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WWW.UMNLOAN.COM
소중한 주택 융자,
신뢰와 전문성을 갖춘 회사
유나이티드 홀게지 내이션과
함께 하십시오!
NMLS# 2425871
1-833-846-4004

중영일보

“최고”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배준원 용자
NMLS# 178471
703-868-7147

채여혜 한의원
Chai Oriental Medicine Clinic
침·부항·뜸
한약 (치료제, 보약)
571-587-4679 / 703-828-0056
4208 Evergreen Ln, Ste 221, Annandale, VA 22003

대표전화: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4 제 691183호

Monday, December 2, 2024 A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오른쪽)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지난달 29일 플로리다주 마라라고의 트럼프 자택에서 만찬을 했다. 트뤼도 총리는 지난달 25일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부과 계획이 발표된 지 나흘 만에 트럼프를 찾았다. [트뤼도 X 캡처]

“트럼프에 조아린 캐나다 총리”

“달려 맞서면 관세 100%” 브릭스도 위협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공)

‘관세전쟁’의 포문을 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타격을 전방위로 넓혀 가면서 세계 각국이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중국은 물론 미국의 이웃인 캐나다와 멕시코, 신흥 경제국 연합체 브릭스(BRICS)를 타깃으로 한 관세 폭탄을 예고하며 국제 무역 질서를 뒤흔들 태세다.

캐나다는 기민하게 움직였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지난달 29일 트럼프 당선인이 있는 플로리다 마라라고를 황급히 찾아 약 3시간의 회동을 가졌다. 지난달 25일 트럼프 당선인이 불법 이민과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의 미국 유입 경로를 막기 위해 ‘대통령 취임 첫날 행정명령을 통해 멕시코와 캐나다의 모든 수입 제품에 25% 관세를 매기겠다’고 한 지 나흘 만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30일 소셜미디어 글을 통해 “트뤼도 총리와 생산적인 회담을 가졌다”며 “불법 이민의 결과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펜타닐 등 마약 위기, 공정 무역 거래, 미국의 대(對)캐나다 무역적자 등 양국이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트뤼도 총리도 같은 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우리가 다시 함께할 수 있는 일을 고대한다”고 썼다.

미 대선 후 트럼프가 당선인 신분으로 공식 회동한 정상은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에 이어 트뤼도 총리가 두번째다. 주요 7개국(G7) 정상 중에선 트뤼도 총리가 처음이다. 트뤼도 총리가 사전 공개 일정에 없던 플로리다행에 나선 것은 트럼프의 관세 폭탄 위협을 그만큼 심각하게 봤기 때문이다. 고물가와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트럼프발 ‘관세 폭탄’이 현실화할 경우 캐나다 경제는 복합 위기를 맞을 수 있다.

트뤼도 총리는 트럼프 집권 1기 때 약연이 있다. 2018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산 철강·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자 트뤼도 총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매겼다. 2019년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의 중 트뤼도 총리가 트럼프를 조롱하는 발언이 공개되자 트럼프가 “이중적인 인간”이라며 불쾌감을 표한 일도 있었다. 그런 트럼프가 2기 정권이 출범하기도 전에 ‘관세 25%’ 방침을 밝히자 트뤼도 총리가 빠르게 대처한 것이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 6면 ‘트럼프’ 로 이어집니다

‘블랙 오픈런’ 변했다…오프라인 강제

매년 ‘블랙 프라이데이’(추수 감사절 다음 날)가 오면 미국 백화점이나 마트 앞에 줄을 서던 행렬이 눈에 띄게 사라졌다. 구매행위 자체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간 영향을 ‘블프’도 피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마스터카드 스펀딩플러스의 30일 잠점 집계를 보면, 블랙 프라이데이였던 11월 29일 미국의 소매판매액은 작년 대비 3.4% 늘었다.

특히 온라인 소매판매액이 작년보다 14.6% 늘어나 ‘이제 블프도 온라인’이라는 공식을 증명했다.

다른 정보분석 업체들 분석에서도 온라인 쇼핑이 소비를 주도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어도비 애널리틱스는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 당일 미국 전자상거래 매출액이 108억 달러로 작년보다 10억 달러 증가했다고 분석



맨하튼의 한 매장이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 할인 행사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했다. 유통정보 업체 센소매틱 솔루션도 미국 소비자들의 블프 당일 오프라인 매장 방문 교통량이 작년 대비 8.2% 감소했다고 밝혔다.

유통업계 입장에서도 단기간에 집중해 판매량을 끌어올릴 필요성이 떨어졌다.

평소에도 온라인 판매 비중이 높기 때문에 과거처럼 재고를 털어내기 위한 할인 판촉도 힘을 주지 않게 됐다. 소매거래업체 ICSC의 톰 맥

기 최고경영자(CEO)는 “블랙 프라이데이는 어려움을 겪는 매장들이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날로 여겨져 왔지만 이제는 예전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미국에선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다음 주 월요일인 ‘사이버 먼데이’까지 대형 할인행사가 잇달아 열린다. 이 시기 올린 매출이 연말 매출의 성과를 결정짓는 잣대로 여겨져 왔다.

김철용 기자

한국 온라인 서비스 이용 쉬워진다

미국 등의 재외국민도 간편하게 한국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재외국민이 한국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오프라인 인증서를 발급하거나, 한국 휴대전화 본인확인 등을 거쳐야 했지만 이제 전자여권만 있으면 온라인으로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 방송통신위원회·재외동포청·과학기술정보통신



부·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해외체류 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위해 28일부터 ‘재외동포인증센터(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시스템)’ 서비스를 시범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제 재외국민도 재외국민 등록을 하고 주민등록번호 및 유효한 전자여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민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으로 재외국민 인증서를 발급받아 온라인 신원확인을 할 수 있다.

시범 서비스 기간에는 인증서 발급을 우선 제공한다.

김은별 기자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사고
원장 Dr.김광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급 고가 매입
순금 야기 불변지달기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형사법 전문 변호사

ERIK JURGENSEN

막막한 순간, 나에게 힘이 되는 변호사를 믿으세요.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영향을 끼치는 형사사건, 대응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 음주운전 / 교통위반
- 폭행 / 아동학대
- 절도 / 횡령
- 기물파손 ■ 마약

시작이 강해야 결과가 강합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DAVID MARKS

20년 이상 한인사회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강하고 힘있는 법정 변호사, 데이빗 막스! 정확한 분석력과 정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실력으로 합당한 판결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저희 손을 잡으십시오.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편히 주무십시오.

에릭 저젠슨 변호사 C. Erik Jurgensen, ESQ

- TOP Criminal Lawyers by Northern Magazine
- TOP 20년간의 법정경력

형사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담부터 재판까지 페어팩스 카운티 검사출신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상담 무료

교통사고 문의, 데이빗 막스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David L. Marks, ESQ 데이빗 막스 변호사

- 20년간의 법정경력
- Rated AV-PREEMINENT
- SUPER LAWYERS
- Member of "MILLION DOLLAR ADVOCATES FORUM"
- NATIONAL TRIAL LAWYERS TOP 100 LAWYERS
- TOP ATTORNEYS IN VIRGINIA

Connie A. Yoon
카니 윤 법무이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데이빗 막스

www.davidmarkslaw.com

한국어 상담 환영 **703.385.1100**

10513 Judicial Dr. #204, Fairfax, VA 22030

FREE
The Ultimate Accident Guide

버지니아 자동차 사고 보험 청구 세번째 가이드북 출간

이 책을 읽으시기전까지 보험회사와 연락하지 마십시오. 703-385-1100으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위의 책자를 드립니다.

권력의 돈줄을 쥘다 민주당의 '예산탄핵'

사정기관 특별비·예비비 4조 삭감 야당 감액예산안 오늘 본회의 상정

정부가 편성한 당초 예산안(677조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을 감액한 내년도 예산안을 거대 야당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정국의 긴장이 가팔라지고 있다.

검찰·감사원·경찰 등 3대 사정기관의 특정업무경비·특수활동비(특경·특활비) 678억원과 대통령실 특경·특활비 82억원 전액을 삭감하고, 정부 비상금 예비비(4조8000억원)를 반쪽으로 줄인 감액 예산안이다. 다만 국회 특경·특활비 195억원은 전액 유지됐다.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이 예산안에 대해 박찬대 원내대표는 1일 기자간담회에서 "여당과의 합의가 불발되고 기획재정부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법정시한인 2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실 특별비를 삭감했다고 국정이 마비되지도 않고, 검찰 특별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민이 피해를 보지도 않는다"며 "여당에서 (이재명 대표) '방탄 예산'이라고 하는 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했다.

그간 정부-여당 주도 야당과 합의 없이 세해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적은 수차례 있었으나, 야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적은 없다.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특정 항목 예산을 늘리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어, 이른바 '지역 민원 예산'을 늘리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운데)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희용 의원, 추 원내대표,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이와 관련,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단독 예산안 처리 시나리오를 꽤 오랜 기간 검토해 왔다"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지금은 지역 예산을 확보할 때가 아니다. 이해해 달라'고 양해도 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엔 '최장 기간 처리' 기록을 경신하더라도 대부분 여야 합의로 예산안을 처리해 온 '나라 살림' 공식이 깨질 것이라 우려도 나온다.

지역구 민원 예산까지 포기하면서 강공에 나선 민주당의 태도에 비춰볼 때 감액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시도가 실제로 실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왜 이런 한국 정치사에 없는 전대미문의 시도를 강행하려는 걸까.

정치권에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소추에 이어 예산 버전의 사정기관 탄핵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앞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하고 4일 표결에 부치겠다고 예고했다. 즉,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에 대한 '인적 탄핵'에 이어, 예산을 통해 윤석열 정부 사정기관을 고사시키겠다는 '예산 탄핵'을 민주당이 도모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동안 민심의 역풍 등을 의식해 '대통령 탄핵'을 공개적으로 주장하지 못했던 거대 야당이 탄핵소추권과 예산감액권이란 두 축을 앞세워 대통령의 수족을 잘라내는 권력기관 무력화에 나섰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탄핵에 이어 특별비 삭감까지 반발할수록, 국민은 '칼자루를 쥘 이들이 아무 통제도 안 받으려 한다'고 명확히 인식하게 된다"며 "개혁 동력이 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이 팽박하는 야당' 프레임은 분명히 강화함으로써 윤석열 정부와 야당의 전선(戰線)을 더욱 뚜렷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의도다.

이 밖에 향후 진행될 여야 협상에 있어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목적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이철우 경북지사를 면담한 자리에서 이 지사가 '2025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예산안 증액을 요청하자 "그 사업의 경우 우리도 공감하는 사안이다. 챙겨보겠다"며 "증액이 필요하면 정부가 (예산)수정안을 내고 저희(민주당)와 협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정부-야당 간 추가 협의 가능성'을 시사한 건 '협상 테이블에 들어오지 않으려는 여당을 압박하는 취지'(대표실 관계자)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이 대표는 "정말로 진지한 협상에 임하겠다"며 "길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허영 의원도 이날 "예결위에서 사흘간 증액심사를 했으나, 이에 대한 정부의 답변은 없었다"고 말했다. 어차피 정부 측 예산 수정안이나 추경 등을 통해 여야가 다시 머리를 맞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

선 제압의 효과가 있다는 뜻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국민들 상대로 인질극 하자는 것"이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지난 7월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제안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민생을 위해 추경하자던 민주당이 민생예산을 단독으로 삭감한 건 삼겹살 좋아하는 채식주의자같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헌정 사상 유례 없는 막가파식 행태"라고 반발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예결위 날치기 처리에 대해 국민과 정부, 여당에 사과하고 즉각 감액 예산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선(先)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이날 민주당이 예산안 추가 협상 가능성을 내비친 데 대해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예산 감액안 철회 없이는 증액 협상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해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야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 단독으로 예결위에서 예산 감액안을 통과시킨 것은 예산 폭주로 민생을 외면한 다수의 횡포"라며 "민생·치안·외교 등에 문제가 생키위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될 경우 이는 전적으로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의 행동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며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무정부 상태로 가자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오현석·허진·윤지원·김정재 기자

국회 특경·특활비 195억 유지 "야당, 제 밥그릇은 그대로 두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몫의 특활·특경비는 그대로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이 의석수 과반 이상을 차지한 상황에서 "제 밥그릇은 그대로 유지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

회에서 민주당이 단독 의결로 처리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보면, 국회 특활비 9억8000만원과 특경비 185억원은 전액 유지됐다. 국회 특활비는 산하기관 지원, 의원 해외 출장 등에 사용된다. 국회 특경비 역시 입법 지원 명목으로 의원들 몫으로 들어가는 돈이다.

민주당은 내년도 대통령실 특별비 82억여원, 검찰 특활·특경비 586억원, 감사원 특활·특경비 60억원을 삭감해 놓은 상태다. 반면에 국회 예산에선 의정지원DB구축(-3000만원), 전자도서관 데이터 구축(-3000만원), 의회정보자문단 운영비(-600만원) 등 규모가 작은 사업만 감액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이 자기에게 유리한 특활비는 살리고 불리한 특활비는 삭감하려 한다"면서 "국회의원 의정활동은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국회 특활비도 전액 삭감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와 관련,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

석부대표는 "국회의원들의 특활비는 꼭 필요하다던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실 특별비는 에누리 없이 전액 삭감했다"고 항의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국회 특활비를 전액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1일 대통령실과 검찰, 감사원의 특활·특경비를 전액 삭감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회 특활·특경비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

김철용 기자

워싱턴 날씨 (°F)

3일(화)	42~21	☀	6일(금)	37~23	☁
4일(수)	44~39	☁	7일(토)	38~25	☁
5일(목)	44~26	☁	8일(일)	45~31	☁

12월 2일(월) 40~25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오랜 경력으로 성심성의껏 팔고/사고/렌트해 드립니다.

함께센터 무료 정보 상담 이벤트

English & 한국어

- 미국 시민권 및 수수료 면제 신청서**
자격 심사: 질문과 답변
- 건강 보험 메디케이드 & 오바마 케어**
자격 심사: 질문과 답변
- 소규모 사업자 상담 & 재정지원 정보**
소규모 사업자 상담: 창업, 사업 성장, 자금 지원 안내
재정지원 정보: 병원비 재정지원 정보, 공공지원 안내

2024년 12월 14일
오전 11시 ~ 오후 3시

코이노스 영생장로교회
15015 Braddock Rd., Centreville, VA 20120

예약 없이 오셔도 됩니다

syoon@hamkaecenter.org
703-256-2208, TTY 711
hamkaecenter.org/ko

VA 주지사 선거 캠페인 '본격 시동'

양당 유력 주자 캠프 공식 출범

2025년 11월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를 겨냥해 양당의 유력주자들이 선거 캠프를 정식으로 출범시켰다.

원섭 얼-시어즈 부지사(공화·사진)는 "나는 4년전 부지사가 될 것이라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면서 "정치의 방관자가 되면 기껏해야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에 머물 뿐"이라고 주장했다.

얼-시어즈 부지사는 어린 시절 자메이카 출신의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이민자 출신으로 해병대를 거쳐 2001년 버지니아 하원의원에 당선됐다. 그는 하원의원으로 2년간 일하다가 재선에 도전하지 않다가 팬데믹 이후 정치가 실종되고 민생이 도탄에 빠진 모습을 발견하고 다시 정계에 돌아왔다. 그는 "팬



데믹 규제에 맞서 상식에 근거한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면서 "이러한 이유는 부지사가 되고 주지사에 도전한 이유"라고 밝혔다.

글렌 영킨 주지사는 "얼-시어즈 부지사가 상식에 입각한 보수정치를 옹호하는 뛰어난 정치인"이라며 "상식에 근거해 경제 자유와 교육의 자유를 가장 잘 실현시킬 인물"이라고 지지를 표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얼-시어즈 부지사와 제이슨 미야레스 검찰총장이 밀실 담합을 통해 미야레스 검찰총장의 재출마를 조건으로 차기를 약속 받았다는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얼-시어즈 부지사는 "담합은 결단코 없었

다"고 항변했다. 얼-시어즈 부지사는 "경제 성장을 위해서 감세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예비계일 스펠베르거 연방하원의원이 캠프 개소식을 치렀다. 스펠베르거 의원은 "버지니아 헌법에 낙태권을 명기하는 것"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얼-시어즈 부지사는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낙태에 반대하고 있다. 스펠베르거 의원은 연방우정국 조사관과 중앙정보국(CIA) 특별 수사관을 거쳐 2016년 버지니아제7지구 연방하원 의원 선거에 당선돼 3선을 기록했으나 주지사 출마 선언과 함께 4선 도전을 포기했다.

김옥채 기자

GCF VA 김남숙 회장 '연임'



올해 마지막 월례회에 참석한 회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복지센터, 밀알선교회 등에 2000천불씩 후원금 전달

글로벌 어린이재단 버지니아지부 김남숙 회장의 연임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인준됐다.

지난 30일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린 2024년도 마지막 월례회에서는 54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 인준 및 후원금 전달식 등이 이뤄졌다.

후원금 전달식에서는 워싱턴 한인복지센터 조지영 박사, 밀알선교회 정택정 목사, 2.20 클럽 문숙 회장에게 각 2천 달러, 강영우 장학재단에 1천 달러 후원금이 전달됐다.

또한 오는 4일에는 방과 후 돌봄 센터인 'Boys & Girls Club'에 2천

달러가 전달될 예정이다.

또한 이날 월례회에서는 김미영, 유시현, 김연옥, 배순자 씨 등 새로운 회원들이 가입해 관심을 모았다. 김미영 씨는 과거 타이슨스 코너에서 캘러리를 운영했던 예술계 인사이며, 유시현 씨는 폴스처치 고교 교사로 회원들의 환영을 보냈다.

또한 서울 장로교회 김재동 원로 목사의 사모인 변유승 회원이 가곡 '그리운 금강산'을 열창해 참석자들의 찬사를 받았다.

한편 이날 연임을 통해 '안정적인 리더십'이 재확인된 김남숙 회장은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회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세용 기자

고려대학교 골프대회 성황



고려대학교 골프대회가 지난 23일(토) 열렸다. 대회에는 총 24명의 교우가 참매릴랜드 워싱턴 매너 골프 클럽에서 석해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특히, 대회에서는 남경윤 교우(83학번 서어서문학과)가 9번 홀(파5)에서 '알바트로스(Albatross)'를 기록하며 대회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했다.

남 교우는 드라이버 티샷으로 282야드를 날린 데 이어, 세컨샷으로 183야드를 정확히 공략해, 동반자인 이수동(69학번), 김민(77학번), 박대범(81학번) 교우들의 환호를 받았다. 고려대교우회 측은 "앞으로도 교우 간 우정을 다지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윤미 기자

부동산관리회사 대표가 HOA 자금 횡령

부동산관리회사 대표가 거래를 횡령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버지니아동부 연방지방법원 재판부는 로즈 카샌드 베일리(60, 페어팩스 거주)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피고는 2012년 로즈우드 매니지먼트 앤드 컨설팅 서비스를 창업하고 주택소유주조합(HOA)로부터 유지관리업무 등을 위탁받아 일해왔다. 그가 북버지니아 지역에서 위탁받은 HOA만 해도

70여곳에 달했다.

그는 HOA 임원들로부터 신뢰를 얻은 후 2018년 5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여러 HOA 계좌에서 110만달러를 부당 이체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부분의 HOA는 1천달러 이상의 경비 지출의 경우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했으나, 피고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했다.

HOA 이사회는 대부분 관리회사 계좌를 따로 마련하고 용역업무 수행 때

마다 1천달러 미만일 경우 승인없이 출금이 가능하게 만들어 놓았다. 뒤늦게 문제를 인식한 HOA 이사회들은 계좌 정보 제공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위조된 은행출금증명서를 제출했다.

대형 HOA가 계약 해지를 하려하자 피고는 다른 HOA 자금 60만달러를 인출해 매꾸는 식으로 또다른 금융조작 및 사기행각을 벌였다. 피고는 기소된 후 최대 징역 20년형에 직면하자 유죄를 인정하고 형량조정협상을 통해 실제 형량을 2년으로 줄였다.

김옥채 기자

워싱턴지역 음주운전 단속 강화

내년 1월 중순까지

워싱턴 지역 경찰당국이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 경찰국은 음주단속 태스크포스팀을 꾸리고 40여명의 경찰을 전담인력으로 배치했다.

경찰국은 태스크포스팀을 지난달 27일 정식 발족했으나, 21일부터 사흘 동안의 임시단속에도 29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수치에는 일반 경찰에 의한 단속은 포함되지 않았다.

메릴랜드는 음주 뺑소니 차량에 의

해 숨진 경찰관을 기리기 위해 전국적으로 가장 강력한 음주운전처벌법률인 노아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률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벌하고 있다.

몽고메리 카운티는 하워드 카운티 등과 함께 내년 1월 두번째 주말까지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도 음주운전 대책팀을 가동하고 있으며 일별백계로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최근 워싱턴지역 경찰국은 과거와 달리 음주단속을 예고하지 않고 주요 간선도로에 검문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김윤미 기자

OMNI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1985
오직 OMNI!
보험에 관한 좋은 선택 - 옴니화재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강고은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 Implant Crown,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치과 임플란트,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703)569-8000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편한나라 척추신경 전문병원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2 로케이션에서 진료합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함께 척추 및 자세교정
- 통증 침 치료(Dry Needling)
- 마사지 치료(LMT 라이선스 소지자)
- 디지털 X-Ray, 디스크 감압치료
- 물리치료기구, 재활 프로그램 완비

■ Dry Needling 이란?

침을 근육이나 근막조직의 통증점에 자침하는 치료법으로 근육통의 완화, 근육 및 인대의 긴장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진료 과목

- ☑ 자동차사고 후유증
- ☑ 손, 발 통증 및 저림
- ☑ 척추디스크 통증
- ☑ 어깨 결림 및 통증
- ☑ 두통, 목, 허리 통증
- ☑ 만성근육통

취급 보험

- Blue Cross Blue Shield
- Anthem
- United Healthcare/GEHA
- Innovation Health
- Blue Choice
- Aetna
- CareFirst



원장 Dr. 송영성
- 동아고, 경희대학교 졸업
- R.O.T.C 2871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Graduated Magna Cum Laude from Life Univ.
- Practiced in Choi Chiropractic
- Certified in Cox Technique-Low Back Pain
- Certified Dry Needling



Dr. 민혁기
- 전 경기대 대체의학 대학원 외래교수
- Body Balance Center Director(임구정)
- MD & VA Board Licensed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Magna Cum Laude(우등졸업)
- Life Univ., Doctor of Chiropractic 과정전액 장학생
- 단대부교 졸업



Dr. 석호선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졸업
- 대구 대건고, 경북대학교 졸업
- MD and VA Chiropractic Board Licensed
- Licensed Massage Therapist (LMT) of MD & VA
- Completion of Asian Bodywork Therapy Program
- Member of Associated Bodywork and Massage Professionals

www.carefreelandusa.com

엘리콧시티 (410) 480-2331
3201 Rogers Ave. #102, Ellicott City, MD 21043

락빌 (301) 279-6960
2000A Veirs Mill Rd., #A, Rockville, MD 20851

가짜 신분증 택배 수령...한인 피해

존 신씨, 4500불 랩톱 도난 당해 드론 이용해 빈집 파악 후 절도

새로운 유형의 절도가 LA 인근 지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ABC는 28일 집주인을 사칭하는 신종 절도에 대해 보도했다. 방송국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어바인의 한 주택 앞에 서서 UPS의 트럭이 도착하기 몇 분 전부터 기다리고 있다. 택배 기사가 도착해 랩톱 컴퓨터 맥북 프로를 트럭에서 꺼내자 그는 위조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집주인이라고 말한다. 택배를 받았다는 확인 서명까지 마친 이 남성은 자신의 차를 타고 유유히 사라진다. 피해자는 집 앞마당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이 남성이 절도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남성이 차를 타고 사라지자 택배기사는 피해자에게 “저 사람이 여기 사느냐”고 묻기도 한다. 그야말로 ‘눈 뜨고 당한 것이다’.

론데일에 거주하는 한인 존 신 씨는 ABC와의 인터뷰에서 같은 방식으로 4500달러에 달하는 맥북 프로를 도난 당했다고 밝혔다. 신 씨는 “맥북 프로를 구입한 집만을 노린 것으로 보서는 분



어바인에서 절도범이 피해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소포를 훔쳐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ABC 캡처]

명히 일종의 ‘내부자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인이 많이 사는 스티븐스랜치 지역에서는 드론을 이용한 빈집털이 범죄가 벌어지고 있다. CBS는 절도범들이 드론을 이용해 지역 주민들의 동향을 살피고, 빈집 등을 파악하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주민인 앤드류 엘레오폴로스는 “최근 두 번이나 집이 털렸고 심지어 은행을 가는데 드론이 따라오더라”며 “절도범들은 우리가 하는 일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주민들은 드론을 수상하게 여겨 이를 따라가 보았고 인근 한 호텔 주차장에서 한 무리의 남성들이 몰려 있는 것을 목격했다. 이 남성들이 피해자들 집에 설치된 감시카메라에 찍힌 강

도들과 동일 인물이라고 목격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연말 쇼핑 시즌에는 절도범들이 더욱 활개 친다고 지적했다. 보안 전문 웹사이트 시큐리티에 따르면 지난해 소포 절도로 인한 피해액은 120억 달러를 넘는다. 특히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에 사는 소비자가 소포 절도 피해를 볼 확률이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당국은 빈집털이와 소포 절도 당하지 않는 법을 공개하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LAPD는 집을 오래 비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값비싼 제품을 받을 경우는 반드시 직접 수령할 것을 권고했다. 택배가 오는 시간에 집에 없다면 택배사를 방문해 수령하는 게 좋다는 것이다.

여행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집을 비울 경우 절도범들에게 집의 현관이나 보이지 않게 자동차 등으로 막아놓고 믿을 만한 이웃에게 편지와 소포의 대신 수령을 부탁하는 게 좋다.

LAPD의 드레이크 매디슨 오피서는 “피해를 봤다면 경찰에 바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절도범들이 특정 지역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경찰 측에서도 바로 자원을 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원희 기자**

워킹맘 교수 고민, 혁신 낳았다

조지아대학 안전주 교수 참여 혼합현실게임 ‘피트니스 버디’



모상을 알고리즘화시킨 것이 이 게임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아이들을 움직이는 동기는 가정의 반려동물이

부모의 퇴근을 기다리는 40~50명의 초등학생이 YMCA의 방과 후 수업에 모인다. 대부분의 시간을 멀뚱멀뚱 앉아서 선생님을 기다리며 때운다.

또래 교제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은 숙제를 마친 후에도 놀이에 쉽게 끼지 못한다. 교사는 인력 부족으로 운동 등 외부활동까지 적극적으로 지도할 여력이 없다.

13세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인 안전주(사진) 조지아대학(UGA) 미디어학 교수는 매일 아이를 방과 후 수업에 보내며 보육 프로그램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깨닫게 됐다.

“교사가 부족하니 아이가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하죠. 결국 부모의 부재 속에서 매일 2시간씩 허비하는 셈입니다. 좌식 시간이 늘어나니 아동 비만 문제도 심각해졌어요. 바쁜 이민자 부모는 학교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니 자녀도 답답한 마음에 오늘 뭘 했는지조차 공유하지 않으려 들어요.”

이러한 복합적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18년 안 교수를 비롯해 공학, 스포츠과학, 공중보건, 데이터사이언스 등 5개 분야 연구진이 모였다.

국립보건원(NIH)이 5년간 330만 달러의 연구비를 지원했다.

그 결과 6~10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혼합현실(MR) 게임 ‘피트니스 버디’가 탄생했다. 조지아주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 방과후 돌봄시설의 어린이 303명이 게임 후 신체활동이 크게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프로젝트 책임자인 안 교수는 “아동에게 적절한 동기를 부여해 행동 변화를 촉구하고, 실시간 긍정적 피드백으로 변화를 유지시키는 부

다. 사용자가 농구, 축구 등 정해진 운동 과제를 수행할 때마다 화면 속 강아지의 행복도가 높아진다.

이 강아지 에이전트는 작은 과제를 달성할 때마다 사용자의 성공을 축하하고, 매주 5분씩 운동량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목표를 조정한다.

안 교수는 “유튜브가 개인 취향에 맞춰 자동재생 영상 알고리즘을 적용시키듯, 강아지는 아동 개개인마다 달성할만한 과제를 골라 추천한다”고 전했다.

내 아이의 성장 과정 하나하나를 알고 싶은 부모의 입장에서 게임에 반영됐다. 휴대폰으로 아이의 성취 과정을 살펴보고 운동 중인 아이에게 실시간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됐다.

그는 “한국과 달리 교사가 매일 보육일지를 써주지 않는 미국은 부모로서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아 답답한 면이 있다”며 “매주 자동 생성되는 게임 결과 보고서는 부모가 자녀 생활에 대해 ‘아는척’할 수 있는 대화의 물꼬”라고 강조했다.

특히 언어장벽을 겪는 이민자 부모라 하더라도 게임은 직관적 이해가 가능해 세대간 문화 차이를 극복할 수 있다.

안 교수는 서울대 언론정보학과를 졸업하고 스탠퍼드대에서 석박사 과정을 밟았다. 이후 UGA 교수직을 제안받으며 조지아로 이주해 인종, 사회적 다양성을 고려한 사회 연구를 이어나가고 있다.

글·사진·정채원 기자

“병원비 먼저 납부해라” 산모들 부담 키운다

일부 산부인과 선결제 요구 ↑

일부 산부인과가 임신 초기부터 출산 비용을 선결제요로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산모들의 정신적, 금전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BS뉴스는 테네시주 거주 케슬린 클라크의 사례를 통해 선결제 요구가 불법은 아니지만 불투명한 의료비 청구로 산모들이 재정 부담 및 스트레스를 겪고 있어 산모 건강 관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 4월 임신 12주차였던 클라크는 산부인과 두번째 방문 만에 병원측으로부터 보험 수속 청구가 끝나기 전에 예상되는 본인 부담 출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설명과 함께 960달러를 청구 받고 충격을 받았다.

요청한 비용을 지불한 클라크는 지난 8월 고위험 임신으로 타 병원에서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이전 병원에 선결제 금액 환부를 수차례 요청해 수개월 후야나 받을 수 있었다. 환자권익단체에 따르면 선결제 관행



은 높은 의료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산모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 특히 선결제 금액이 실제 의료비보다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 환부를 받아야 하는 추가적인 수고를 감당해야 한다.

또한 선결제한 경우 산모들이 의료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병원 변경이 어렵고 일부 산모들은 재정 부담으로 산전 관리를 포기하는 사례까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부인과 의료 서비스는 임신, 출산, 산후 관리를 하나로 묶어 보험에 청구하지만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많아 일부 병원들은 비용 회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환자들에게 선결제를 요구하고 있다.

일부 산부인과 의사들은 산모가 출산 후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에 선결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환자권익단체는 이 같은 행위를 “치료를 인질로 잡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험전문가들은 환자들에게 병원이 선결제를 요구할 경우 보험사에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문의할 것을 권장했다. 일부 보험 약관에는 네트워크 병원이 선결제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지타운대 건강보험 개혁 센터의 공동 책임자인 사브리나 폴렛은 주와 연방 정부가 지불 요청의 타이밍을 규제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정치적, 실질적으로 도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비단체의 파위가 강력하고 보험사와 의료 서비스 제공자 간의 계약이 독점적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산모와 가족들이 의료비 때문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정책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낙희 기자



감사의 마음, 거리마다 온정 추수감사절을 맞아 노숙자 구호 단체인 ‘미드나이트 미션’이 LA 다운타운 스킵드로서 약 2500명에게 음식을 제공했다. 할리우드 스타인 제니퍼 가너를 비롯한 자원봉사자들이 접시에 음식을 담아 노숙자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김상진 기자



메디케어

“자녀는 멀고 에이전트는 가깝다”

임강호 보험이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2025 메디케어 플랜가입 및 변경

메디케어 플랜 변경기간

2024년 10월 15일 ~ 12월 7일

상담내용

- 1960년 출생인들의 메디케어 최초 등록
- 2025년 중단되는 플랜과 플랜들의 혜택 변경
-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보험회사 일치화 (VA 해당)
- 처방약 보험 혜택의 변경
- 추가혜택의 변경

- 같은 보험일지라도 매년 혜택이 같지는 않습니다 -

We do not offer every plan available in your area. Currently we represent [10] organization which offer [84] products in your area. Please contact Medicare.gov, 1-800-MEDICARE, or your local Statw Health Insurance Program to get information on all of your options.

임강호

Licensed Agent

상담전화

(703) 989-3031

11325 Random Hills Rd., #650,
Fairfax, VA 22030

Sponsored by



'좌석 선택' 수수료로 거액 챙겨

항공사들이 추가 수수료 부과로 막대한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상원 상임소위원회가 지난 26일 공개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5개 항공사가 좌석 관련 수수료 부과로 124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고 CNN이 보도했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다리 공간이 넓은 좌석 지정 수수료로 유나이티드항공 319달러를 비롯해 스피릿항공 299달러, 델타항공 264달러, 프런티어항공 141달러, 아메리칸항공 140달러를 각각 부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항공사들은 단순히 사전 좌석 선택뿐만 아니라 복도나 창가 좌석 등에도 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심지어 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앉기 위한 좌석 선택에도 추가 비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서는 이 같은 수수료가 20년 전에는 항공권 가격에 포함돼 존재하지 않았으나 분리되면서 고객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저가 항공사는 수하물 요금 수익 극대화를 위해 직원들에게 현금



연방 의회가 항공사들의 좌석 선택 수수료 횡포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런티어항공과 스피릿항공은 지난 2022~23년 수하물 규정 위반 승객을 적발한 직원들에게 총 2600만 달러의 보상을 지급했다. 프런티어항공은 승객에게 초과 수하물 요금을 지불하도록 유도한 게이트 직원에게 가방당 최대 10달러씩의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프런티어, 스피릿, 유나이티드가 요금의 일부를 부과 수수료로 표시해 운송 소비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델타나 아메리칸과 같이 그렇게 하지 않는 항공사가 불리한 입장에 처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프런티어항공은 성명을 내고 "수수료 분리 정책은 항공 여행을 더 저렴하게 만들기 위한 것"으로 수백만의 개인, 가족, 스몰비즈니스에 항공 여행 기회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스피릿항공도 성명을 통해 "보고서의 다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상품 및 가격 투명성과 공평 정책을 통해 고객을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하며 모든 세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상원 상임소위원회는 다음주 이들 5개 항공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글 사진=박학희 기자

"401(k)는 몇 마일이에요?" "안과의사에도 팁 주나요?"

10대들의 재정에 대한 황당한 질문이 소셜미디어에서 공개되면서 재정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인스타그램에서 70만여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 칩 레이턴은 10대 자녀와 부모의 대화 중 재미있는 부분을 모아서 공유하는 것으로 인기를 끌었다. 특히 재정지식이 전무한 10대 자녀의 질문은 열광적 반응을 끌었다.

많은 팔로워에게 웃음을 선물했던 질문은 ▶401(k)는 몇 마일이에요 ▶안과 의사한테도 팁 주어야 하나요 ▶현금자동인출입금기(ATM)는 언제까지 영업해요 ▶지급 제 순자산(net worth)은 얼마예요 ▶우리 집 신탁자금(trust fund)에는 얼마나 있어요 등이다.

이런 대화들을 모아서 '정오는 몇 시예요'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한 레이턴은 어릴 때부터 재정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녀가 황당한 질문을 하면 면박을 주지 말고 교육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른 나이에 쌓은 재정지식은 평생을 간다며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10대 때

재정교육을 받은 소비자의 개인 재산이 그렇지 않은 소비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몬태나 주립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조기에 재정교육을 받은 학생은 대학에 진학할 때 낮은 이자율의 대출이나 그랜트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에 반해 재정교육이 안 된 학생은 크레디카드 대출과 같은 고이율의 금융 상품을 통해 대학교 학비를 충당하는 비율이 높았다. 학자금 대출 상환이 10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고려하면 재정교육이 소비자에게 끼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정교육의 중요성은 높지만,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재정에 대해 배울 기회가 많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재정교육 확대를 위한 비영리단체(NGPF)는 50개 주 중 절반 가량인 26개 주에서만 의무 개인 재정교육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가주도 최근까지 개인 재정교육 의무가 아니었지만 지난 6월 27일 의무화 법이 통과됐다. 법에 따르면 2027년에 고등학교 과정을 시작하는 가주 내 모든 고등학생은 졸업 전에 반드시 재정수업을 들어야 한다. 조원희 기자



현대 22만6천대 리콜 후방 카메라 표시 이상

현대자동차가 22만6118대를 리콜하게 됐다고 27일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후방 카메라 이미지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전했다.

리콜 대상 차량은 2021~2022년형 산타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엘란트라(사진) 세단 계열이다. NHTSA는 판매업자들이 후방 카메라를 무료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리콜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혜정 기자

스타벅스 직원 보너스 반토막

스타벅스가 실적 부진에 허덕이면서 직원들의 보너스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를 인용해 스타벅스가 지난 9월 29일 마감된 회계연도에 예상보다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면서 많은 직원이 전체 보너스 중 60%만 받는다고 27일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스타벅스의 매출이 최근 15년 동안 2020년 코로나19 사태 때 재택근무 여파로 하락세를 보인 데 이어 이번에 1% 미만 증가에 그쳤다고 전했다. 영업이익은 8% 감소했다.

이같이 저조한 실적은 스타벅스가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던 지난 3년과 대조를 이룬다.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고객들이 스타벅스를 찾는 발길이 줄

어들었고 긴 대기시간과 부정확한 주문 대응에 대한 고객 불만 등이 겹쳐 부진으로 이어졌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으로 인해 불거진 불매운동으로 타격을 입었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가 입수한 별도의 문건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매년 12월 지급되는 스타벅스 직원들의 보너스는 개인별 성과와 회사 실적을 기준으로 균등하게 산정된다.

브라이언 니콜 선임 최고경영자(CEO)는 "고객을 되찾기 위해 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우리는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스타벅스를 성장으로 되돌리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커피원두 가격 47년만에 최고 파운드당 3.2불, 브라질 가뭄 탓

세계 최대 커피 생산국 브라질 가뭄과 '트럼프 2기'의 통상 정책 우려 등으로 아라비카 커피 원두 가격이 1977년 이후 최고치로 급등했다.

27일 AFP-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날 뉴욕 시장에서 아라비카 커피 선물 가격은 파운드당 3.20달러까지 올랐다. 이는 3.38달러였던 197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인스턴트 커피나 블렌딩에 주로 사용되는 로부스타 품종은 영국 런던 시

장에서 톤(t)당 5200달러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 역시 올해 들어 상승률은 80%를 넘는다.

커피 원두 가격은 브라질에서 올해 가뭄이 극심해 내년 커피 수확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급등세에 접어들었다. 또 다른 주요 생산국 베트남에서도 경작기 건조한 날씨와 수확기 폭우로 공급 우려가 더해졌다.

카를로스 메라 라보은행 분석가는 브라질의 내년 공급에 대한 우려뿐 아니라 유럽연합(EU) 산림 규제, 트럼프 당선인이 예고한 관세와 무역 분쟁에 대비한 사전 물량 증가 등에 가격이 영향받았다고 설명했다.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환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 용자의 풀인 **마이클 장**

풀인과 함께라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LS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헤민한의원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각종 악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가방,
마스크 등 판매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품질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영아패션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Baltimore National Pike 40
300m
M&T, 대장금(미락조물), 웨일라노래방, 뉴타운홈

미락조물 대장금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새로지는 뉴타운홈
맞은편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파킹장으로 들어오세요~

"최고"
모두가 최고라고 말합니다.

이제 주택 용자는 그린웨이 홈론 **배준원** 용자에 맡겨주세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길을 갑니다"

이자율이 높다구요? 그럴수록 비교해보세요.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직접 경험해 보세요!

WWW.JUNBAEMORTGAGE.COM

배준원 (Jun W. Bae)
Vice President / MBA / Sr. Mortgage Banker

703.868.7147
Jun@gwhomelending.com
(NMLS# 178471)

센터빌 오피스 토요일도 오픈합니다.
(토요일 오전 10시~1시 무료상담)

13890 Braddock Road, Suite 207, Centerville, VA 20121
(센터빌 하이마트 건너편 위치)

GREENWAY HOME LOANS
VA, MD, DC, NC, TX, PA, SC, FL

Greenway Home Loans, Inc. is licensed by the District of Columbia Government DCSB, Maryland State DLR, Virginia State Corporation, North Carolina Commissioner of Banks, Texas Department of Savings and Mortgage Lending, Pennsylvania Department of Banking & Securities, Florida Bureau of Regulatory Review - Finance, South Carolina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License Numbers: DC MLB2501870; MD 2501870; NC L-219065; VA MC-7782; TX 2501870; PA 100823; FL MLD2525; SC 2501870 Greenway Home Loans Inc. NMLS# 2501870
www.nmlsconsumeraccess.org

트럼프, 신임 FBI국장으로 44세 '총성과' 파텔 발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30일 차기 연방수사국(FBI) 국장으로 '총성과'인 캐시 파텔(44·사진) 전 국방장관 비서실장을 발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캐시 파텔이 차기 FBI 국장으로 일할 것"이라며 "캐시는 뛰어난 변호사이자 수사관이며, 부패를 들춰내고, 정의를 지키고, 미국인을 보호하는 데 경력을 쌓아온 '미국 우선주의 전사'"라고 평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FBI가 미국에서 점증하는 범죄 만연 현상을 종식하고, 이민자 범죄 강단을 해체하고, 국경을 통한 인신매매와 마약 밀매라는 극악한 재앙을 중단시킬 것"이라며 "캐시는 우리의 훌륭한 법무장관(지명자) 팸 본디 밑에서 일하며 FBI에 신의와 용기, 신실함을 회복시킬 것"

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당선인의 이번 인사 발표는 2017년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 1기 때 임명한 크리스토퍼 레이 현 FBI국장의 임기(10년)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내년 1월 20일 백악관 복귀 후 레이 현 국장을 해임하고 파텔을 기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이다.

인도계 이민자 2세인 파텔은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공판검사, 연방 하원 정보위원회 선임 고문 등을 거쳐 트럼

프 1기 때 국가정보국 부국장,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테러 선임 국장 등 안보 분야 요직을 맡았다.

특히 파텔은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크리스토퍼 밀러 당시 국방장관 대행의 비서실장으로 일하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업무 이양을 방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행정부를 떠난 뒤 2020년 대선에 부정선거로 규정된 트럼프 당선인 주장에 동조하며, '부정선거'에 관여한

인사들을 응징해야 한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기도 했다.

따라서 파텔이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업무 수행이 필요한 FBI국장에 선임될 경우 트럼프 당선인의 '정치 보복' 참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FBI국장은 상원 인준을 거쳐야 한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마약단속국(DEA) 수장에 체드 크로니스터를 지명한다고 밝혔다.

EU지도부 출범 첫날 우크라행... 젤렌스키 "나토가입 필요"

유럽연합(EU) 고위 당국자들이 새 지도부가 출범한 첫날인 1일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전격 방문해 '확고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왼쪽),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마르타 코스 EU 확장담당 집행위원이 임기 첫날인 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전격 방문했다.

EU에 따르면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칼라스 외교안보 고위대표, 마르타 코스 확장·동유럽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키이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동했다.

EU 당국자들은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EU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우크라이나 정부 및 의회,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를 만나는 후속 일정도 소화

한다. 코스타 상임의장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러시아의 침공 첫날부터 우

크라이나와 함께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과 서방에서 받은 장거리 무기 사용 확대를 EU가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나토 가입 절차의 첫 단계인 '가입 초청'이 "우리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며 "러시아와 협상에 앞서 우리는 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강해지려면 나토가 우리의 안보를 보장하는 것과 더불어 더 많은 무기가 필요하다"면서 장거리 무기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EU에 요구했다.

당국자들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내달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의 대(對)우크라이나 정책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이뤄진 것이다.

코스타 상임의장은 대외적으로 EU 27개국의 입장을 대표하며, 칼라스 대표는 외교장관에 해당한다.

마찬가지로 장관급 인사인 코스 집행위원은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에서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EU 신규 회원국의 가입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

EU에서 대표성을 지닌 고위 인사들이 임기 첫날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난 것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회의적이며 러시아와 협상을 통한 신속한 종전을 공언한 트럼프 당선인에게 유럽 진영이 보내는 일종의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머스크 "오픈AI 영리법인 전환 막아야" 가처분 신청

일론 머스크(사진 왼쪽)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법원에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영리 법인 전환을 중단시켜달라고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CNBC 방송이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머스크와 그가 창립한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인 xAI 측 대리인단은 지난달 29일 이러한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연방 법원에 제출했다. 머스크 측은 또 오픈AI가 자신의 투자자들에게 머스크의 xAI를 비롯한 경쟁사들에 투자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법원에 이를 막아줄 것도 요청했다.

머스크 측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오

픈AI가 부당한 방식으로 취득한 경쟁적으로 민감한 정보 혹은 마이크로소프트(MS)-오픈AI 이사회 간 동조를 통한 협력으로 이익을 얻는 것이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머스크 측은 오픈AI의 최대 투자자인 MS와 오픈AI가 사실상 합병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AI 시장의 경쟁자들을 제거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픈AI 대변인은 이번 가처분 신청에

"(이전과) 같은 근거 없는 불평을 재할용한 머스크의 네 번째 시도는 여전히 전적으로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머스크가 오픈AI를 상대로 벌인 법적 분쟁은 올해 들어서만 이번이 네 번째다.

과거 머스크는 2015년 오픈AI 설립 당시 투자자로 참여했으나 2018년 이 회사의 이사직을 사임하고 투자 지분도 모두 처분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오픈AI가 출시한 챗GPT로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자 오픈AI가 AI 기술로 부당하게 영리를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갈등을 촉발했다.

마약단속국장에 플로리다주 보안관 지명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마약단속국(DEA) 국장에 짝발탁한 체드 크로니스터는 연방 사법기관 근무 경력이 없는 현지 지역 보안관이다.

워싱턴포스트는 30일 플로리다주 힐스버러 카운티 보안관 체드 크로니스터의 DEA 국장 지명 소식을 전하면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은 적이 거의 없는 인물"이라고 전했다.

힐스버러 카운티의 현직 보안관인 체드 크로니스터는 이 카운티 보안관실에서 32년간 복무해왔다. 2017년 힐스버러 카운티 보안관이 갑자기 은퇴하자 크로니스터는 그의 추천으로 후임

보안관에 임명됐다.

미국의 자치경찰인 카운티 보안관은 주민들의 선거로 선출하거나 주지사가 임명하며, 주로 카운티 내의 범죄예방이나 교도소 운영관리, 법원 경비 업무 등을 맡는다. 크로니스터 지명자는 힐스버러 카운티의 치안을 전담하는 보안관에서 직원 1만명이 넘는 대규모 연방 수사기관 수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크로니스터 지명자는 취임 후 중 국산 화학물질로 멕시코에서 주로 생산되는 마약 펜타닐의 유통을 차단하고 관련 조직들의 소탕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 1번 '트럼프' 에서 이어집니다
하지만 AP통신에 따르면, 트뤼도 총리는 관세 부과 위협을 철회할 것이라는 트럼프의 확인을 얻지 못한 채 귀국했다. 캐나다와 함께 25% 관세 부과 대상으로 지목된 멕시코도 피해 최소화 대책에 부심하며 대응에 나섰다. 클라

우디아 세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트럼프의 관세 발표 이틀 뒤 통화를 하고 트럼프가 줄곧 문제 삼은 미-멕시코 국경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29일 소셜 미디어에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공 등 BRICS 소속 국가들의 달러 대

체 통화 논의를 비판하면서 관세 인상으로 맞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는 "브릭스 국가들이 새로운 자체 통화를 만들거나 미 달러를 대체할 다른 통화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안 그러면 100%의 관세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시도에는 '관세 몽둥이'로 대처하겠다는 위협이다.

브릭스 국가들은 역내 통화 활용을 늘리는 한편 중앙은행 간 디지털 화폐(CBDC)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자국 통화인 위안화 결제의 국제화를 추구하

는 등 공공연히 '달러 패권'에 도전하고 있다. 관세를 두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라고 했던 트럼프가 무역적자는 물론 불법 이민과 마약 등 무역과 거리가 먼 정책 현안이나 달러 패권 등 통화 정책에 대해서도 관세를 무기 삼아 압박 강도를 높이는 양상이다.

김민지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VA·MD·DC 면허
이력

- 대원외교 불어과 졸업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타 대법원 근무
- D.C., 버지니아 주 로펌 다수 근무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입양, 가디언쉽
- 유언장, 상속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lawpllc.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VA 전화 TEXT: 703.593.9246
4115 Annandale Rd., Ste 301, Annandale, VA 22003

MD 전화 TEXT: 443.901.8693
3545 Ellicott Mills Dr., Ste 203, Ellicott City, MD 21043
mkim@prosperlawpllc.com

Health Through LoveSpine Chiropractic
Extremity Specialist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후,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정성껏 집중 치료합니다."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 운동상해/직장상해
- ◆ 발/무릎 통증/자주빠는 발목
-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 재활/물리/운동 치료
-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 청소년 성장클리닉
- ◆ 임신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교통사고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도와드려, 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Dr. 이형훈
(Mark H. Lee DC, CCEP, FIAMA)

- 고려대학교 Biotechnology 졸업
- 고려대학교 생명공학 대학원
- Internship for ProteoOne's Lab at UNKP and MedLink Hospital in Washington D.C.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Certified in Gonstead System
- Certified in Gonstead Extremity Adjusting
- Certified Chiropractic Extremity Practitioner (C.C.E.P)
- Fellow of International Academy of Medical Acupuncture (FIAMA)
- Worked for Gwinnett Medical Back & Neck Pain Clinic in GA
- Licensed in Maryland with Physical Therapy Privileges
- Licensed in Virginia Board of Medicine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LoveSpine

Chiropractic Clinic 척추사랑

라벨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 lovespineclinic@yahoo.com

코리안타운에서 30, 샬리스타운에서 10분, 워싱턴에서 10분 거리

센터빌/첼러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 lovespineclinic@gmail.com

센터빌 로터/침리/침리+마사지/첼러리 로터에서 각각 5분거리

가든교회 창립 30주년 기념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연주회

Handel's MESSIAH an Oratorio

저희 가든교회에서는 오는 12월 8일(주일) 오후 5시에 창립 30주년 마지막 행사인 메시아 연주회를 아래와 같이 가집니다.
지난 30년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탄생, 수난, 속죄, 부활, 영생의 주제로 헨델의 오라토리오 연주를 준비하고 초청합니다.
함께 하셔서 아름다운 찬양에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가든교회 교우 일동

일시 2024년 12월 8일 (주일) 오후 5시

장소 가든교회 Garden Presbyterian Church
8665 Old Annapolis Rd., Columbia, MD 21045

문의 (410) 461-9620, (410) 868-5171



지휘 문태은
델라웨어 오페라 소속
아티스트
U of KY 성악 석사 및 박사



소프라노 김성지
Rowan College 교수
Rutgers Univ. 성악 박사



메조소프라노 김여경
U of Dayton 부교수
SUNY in Stony Brook 박사



테너 진철민
Towson Univ. 부교수
Eastman 음대 박사



바리톤 유영광
Scott Levine Mngt 소속
오페라 가수
서울대학교 음대 실기 수석



피아노 김유리
Berea College 겸임교수
U of KY 피아노 석사 및 박사



가든교회 연합 찬양대 (이외 객원 오케스트라)

12월 15일 (주일) 오후 5시 2대 담임 남지현 목사 위임예배

12월 28일 (토) 오후 7시30분 미래자립교회 후원을 위한 음악회

12월 29일 (주일) 오후 5시 은퇴하는 한태일 목사 원로목사 추대예배

재미한인예수교 장로회 가든교회 한태일 목사 외 교우 일동

“애플 수주 4년 공들이자... 팀 쿡, 점심 먹자더라”

TSMC창업자모리스창자서전출간

이건희를 견제했고, 애플을 노렸으며, 젠슨 황은 탐이 났다. 대만 반도체 회사 TSMC 창업자인 93세의 모리스 창(張忠謀) 박사가 밝힌 TSMC 40년의 결정적 순간들이다.

지난달 29일 대만에서 『장충모 자전』의 하편이 출간됐다. 미국 반도체 업계에서 일하던 창 박사가 대만 정부의 간곡한 요청으로 귀국해 TSMC를 세워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기업으로 키우고 은퇴하기까지, 1964~2018년의 행적이 담겼다. 책에서 그는 TSMC는 물론 인텔·애플·엔비디아·삼성전자 같은 기업의 비공개 에피소드를 공개했다. 중앙일보가 책을 입수해 한국 반도체 산업과도 교집합이 있는, 모리스 창 의 3대 결정적 순간을 소개한다.

1988~89년 일본과 한국 메모리 회사들이 호황을 누리자 대만은 국가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그러던 중 창 박사는 1989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게 갑자기 조찬 초대장을 받는다. 이 자리에서 이 회장은 “메모리에는 많은 자본과 인력이 필요한데 대만이 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몇 달 뒤



에는 한국에 초대해 삼성 메모리 공장을 보여주기가 했다는 것. 그럼에도 대만 정부는 메모리 프로젝트를 실행했고, TSMC가 주요 주주로 참여해 1994년 ‘뱅크드 인터내셔널’이 출범한다. 그러나 1996년부터 DRAM 메모리 가격이 하락했고, 자체 설계 인력이 부족한 대만의 한계까지 겹쳐 2000년 회사는 메모리에서 철수한다. 자서전에 밝히진 않았으나 그는 대

만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건희는 (반도체) 전문가가 아니지만, 반도체와 휴대폰의 잠재력을 알고 시대 흐름을 주도한 영웅”이라며 “한국에 이건희가 있다면 대만에는 내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측근에게 “삼성이 거대하지만 고릴라도 발가락을 세계 밟히면 아프듯 삼성에도 약점은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삼성을 줄곧 견제했다고 한다.

최고 수율을 자랑하는 TSMC도 ‘불량 공정’으로 코너에 몰렸었다. 2009년 초 TSMC가 내놓은 40나노미터(40nm·1nm=10억 분의 1m) 파운드리 수율이 낮았고, 전년도 금융위기 여파까지 이어져 증권가는 “TSMC 위기론”으로 들쭉였다. 2005년 은퇴했던 창 박사는 4년 만에 CEO로 복귀해야 했다.

78세에 귀환한 CEO는 먼저 리더인 당시 부사장 등 기술통에게 힘을 실었다. 창 박사는 또한 전임 CEO의 800명 해고 계획을 무산시키고 ‘불황 3대 원칙’을 실천에 옮겼다. 첫째, 고객사와 이해·조율을 통해 협력을 유지한다. 둘째, 해고하지 않는다. 셋째, 연구개발(R&D) 자금을 늘린다. 이후 R&D 예산을 회사 매출의 5%에서 8%로 끌어올렸다.

40나노 불량으로 피해를 본 고객사

중에 엔비디아도 있었다. 창 박사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미국 자택으로 찾아갔고, 가족 식탁에서 피자로 저녁을 먹은 뒤 서재로 가 둘만의 협상을 벌였다. “TSMC의 보상을 받아들일지 48시간 내 답하라”는 최후통첩에 황 CEO가 응해, 1년간 끝난 양사 갈등은 극적으로 타결됐다.

오늘의 TSMC가 있게 한 1등 공신은 애플이다. 창 박사는 2007년부터 애플을 TSMC의 잠재 고객으로 노렸다고 자서전에서 털어냈다. TSMC는 애플이 로직 칩 설계를 위해 삼성을 찾았다는 소식과, 이후 삼성이 자체 스마트폰 사업을 한다는 소식을 입수했다. 창 박사는 “내가 스티브 잡스라면 참을 수 없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애플 수주에 더 공을 들였다. 이때 다리를 놓은 이는 아내 소피 창 여사의 사촌인 테리 귀 폭스콘 창업자였다. 폭스콘은 애플의 주요 제조 협력사다. 2011년 팀 쿡 애플 CEO가 창 박사를 초대해 점심을 먹으며 “인텔은 위탁 제조를 잘 못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2014년 애플은 아이폰6S용 칩을 삼성과 TSMC로부터 모두 납품받았고, 현재는 전량 TSMC에 맡기고 있다.

심서현 기자

러, 내년 전승절에 북한군 초청... 김정은, 다자외교무대 데뷔하나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이 지난달 29일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내년 5월 제2차 세계대전 전승절 행사에 북한군 부대를 초청했다.

김정은은 러시아 군사대표단을 인솔해 평양을 찾은 벨로우소프 장관을 환대하면서 주요 일정을 함께 소화했다. 러시아 파병에 대한 반대급부를 챙기는 동시에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관계없이 양국 밀착을 이어가겠다는 행보로 풀이된다.

러시아 국방부에 따르면 벨로우소프 국방장관은 김정은과 만나 내년 5월 9일 러시아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북한군 부대 파견을 요청했다며 “긍정적인 결정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러시아 전승절은 옛 소련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 독일에 승리를 거둔 1945년 5월 9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러시아 측이 북한군을 열병식에 초청한 만큼 김정은이 북한군을 이끌고 참석해 국제 다자무대에 데뷔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을 향해 북·러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돈독해졌다는 것을 과시하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내년 5월 김정은의 방러는 유동적이지만 북한 군대나 장비가 모스크바 붉은광장에 도열한 모습은 한국 입장에서 섬뜩한 장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벨로우소프 장관은 지난달 29일 노광철 국방상과 ‘북·러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두 나라 군대 사이의 전투적 단

결과 전략 전술적 협동을 강화해나가는 문제”를 논의했다.

이어 김정은을 예방해 지난 6월 양국이 맺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조약)을 언급하면서 “두 나라 관계를 정치, 경제, 군사를 비롯한 제반 분야에서 보다 활력 있게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군대와 인민은 앞으로도 제국주의 패권 책동에 맞서 국가의 주권과 영토 완정을 수호하려는 러시아의



지난달 29일 평양에서 열린 러시아 군사대표단 환영공연에 함께한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노동신문=뉴스1]

정책을 변함없이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교·이유정 기자

미 항모 불법 촬영한 중국인, ‘우수 공산당원’ 이었다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인근에서 미국 항모모함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국인 유학생이 과거 ‘우수 공산당원’으로 선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당국은 중국 정보기관의 연루 가능성을 들여다보면서 이적 혐의 입증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일 정보당국에 따르면 경찰·국군방

첩사령부·국가정보원으로 구성된 합동수사단은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작전 기지에 입항한 미 핵추진 항모 루스벨트함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입건된 중국인 유학생 3명이 중국 정보기관의 지시를 받고 조직적으로 행동에 나섰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지난 6월 25일 드론을 띄워 루스벨트

함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이 중국 간첩의 계획 범죄로 드러나면 군사기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 외에 일반 이적 혐의로 추가 입건이 가능하다.

수사당국은 3명 중 드론을 조종한 사람이 2021년 5월 중국 C대학에서 우수 공산당원으로 뽑혔다는 사실을 확

인했다. 이들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중국 공안국 관계자 연락처와 중국 공산당 소식지가 대거 식별됐다. 정보당국은 적발된 유학생들이 장기간에 걸쳐 한국 군사기밀과 주요 장비, 미 항공모함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뒤 본국에 보고해 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찍은 것으로 보이는 한·미 군사시설 사진 수백 장이 발견됐다. 2022년 9월 부산 해작사

영내 관찰이 용이한 인근 야산을 사전 답사한 데 이어 2023년 2~3월 입항한 미 핵추진 잠수함 스프링필드함과 항모 니미즈함 등을 수차례 촬영했다고 한다.

수사당국은 타국 정보 수집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 우수 공산당원으로 뽑힌 인원이 한국에 파견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근평·이유정 기자

방법이 다르다면 결과도 다릅니다

Jaewoon Lee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 소속 • Attorney At Law
J.D. (법학박사) • Jaewoon Lee & Associates, LLC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신분 문제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습니다.
오직 전문가만이 귀하의 성공적인 이민 생활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길은 있습니다.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민법을 비롯한 관련법을 모르거나 잘못 해석하여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미국이민의 큰 꿈을 접어야 하는
기막힌 사연 또한 많습니다.

항상 저의 케이스를 진행한다는 마음으로
성실히 그리고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이민 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복잡한 이민법, 오직 이민법만을 고집하는
이재운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Text, **myattorney** to 703-916-1111
“Text 로 이민상담 신청하세요!”

주요업무

- ◆ 취업이민 영주권 (EB2/EB3)
- ◆ 취업 비자 (H1-B)
- ◆ 종교 비자 (R1)
- ◆ 종교 특별 영주권 (R1/I-360)
- ◆ 투자/교역 비자 (E1/E2)

- ◆ 학생 비자 (F1)
- ◆ 주재원 비자 (L1)
- ◆ 시민권 신청 (N-400)
- ◆ 가족 초청 이민
- ◆ 결혼 이민
- ◆ 추방유예 (DACA)

- ◆ 사면준비
- ◆ 이민국 인터뷰
- ◆ 세계 각국 미 대사관 업무
- ◆ 기각된 서류 항소 및 재심사 요청
- ◆ 이민국 노동청 감사 답변
- ◆ 비자 연장 및 신분 변경

www.jaewoonlaw.com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Jaewoon Lee & Associates, LLC | T. 703-916-1111 / 703-916-1215 | Fax. 703-563-6028
E-mail : lee@jaelaw.com | 7700 Little River Turnpike, Suite 502, Annandale, VA 22003 (예천 길건너편)

1985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옴니화재와 함께하는 메디케어!

나에게 꼭 맞는 메디케어 찾기, Medicare 전문가와 함께 하세요!

옴니의 전문 상담가들이 당신의 건강과 안정을 위해 최적의 플랜을 제공합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옴니화재가 함께합니다**



메디케어 파트 A&B
기본 메디케어,
병원 및 의료 서비스 커버



메디케어 파트 C
사설 보험사가 제공,
파트 A와 B 외에 추가 혜택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비용 커버



메디케어 메디갭
원본 메디케어의 공제금 및
코페이 비용을 보충

메디케어, 옴니화재가 친절하고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866-915-6664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으로
최적의 플랜을 제안합니다

FREE MEDICARE BENEFITS REVIEW

보험회사는 많지만 39년의 노하우의 경험과 실력은 오직 옴니화재입니다!

고객의 소중한 자산에 대한 걱정은 덜어드리고 안심은 더해드리려고 보험료에 상관없이
옴니화재는 전세계가 인정하는 손해보험회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최상급상품과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험에 관한 **옳은 선택** - 옴니화재

www.getomni.com

Annandale Corporate Office
8201 Greensboro Dr. Suite 505, McLean, VA 22102
Tel:703-642-2225 Fax:703-642-5862 email:info@getomni.com

Maryland Ellicott City Office
3448 Ellicott Center Dr. Suite 103, Ellicott City, MD 21043
Tel:410-465-2700/2701 Fax:410-465-5319 email:info@getomni.com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주택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1-866-915-OMNI(6664)

“아들 학원 가게 야근 빼라” 전화… 자녀 사표 대신 쓴 아빠도

국내 한 증권회사 부사장 박유진(가명·46)씨는 최근 신입사원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우리 애가 고객 응대를 힘들어하고 실적 목표를 부담스러워하니 다른 부서로 옮겨 달라”는 애기였다. 처음엔 부모가 전화를 걸었다는 게 믿기지 않아 보이스피싱을 의심했지만 재차 걸려온 전화를 받고서야 진짜임을 알고 당황했다고 한다.

성인 직장인 자녀의 연봉 협상, 부서 배치 등 회사 생활까지 개입하는 ‘과잉 양육(overparenting)’ 부모가 늘고 있다. 불편한 소통을 기피하는 자녀 대신 부모가 직장 상사나 인사팀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경우도 많다. 1990년대 초 탄생한 개념인 ‘헬리콥터 부모’(최소년 자녀 머리 위를 맴돌며 모든 일에 간섭하는 부모)가 직장인성인 자녀로까지 확장된 것이다.

중앙일보가 국내 100대 기업(시가총액 기준, 금융업·지주사 포함) 소속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40명 중 35%(14명)가 “본인이나 동료가 직원 가족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연락한 주체는 직원의 어머니가 78.6%(11명)로 가장 많았고, 아버지는 7.1%(1명)였다. 부모가 연락한 이유는 문의(78.6%)가 대부분이었다. 부서 이동, 수당·상여금 등 급여, 휴가, 복장 규정 등 내용도 다양했다.

정보통신(IT) 분야 한 대기업 팀장은 “직원 아버지가 ‘지방에 제사를 지내러 가야 하는데 깜빡하고 반차를 못 냈다고 하니 급히 처리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국내 유통 대기업 인사팀과 장 박서형(가명·41)씨는 올해 초 직원 아버지가 보낸 장문의 편지를 받았다. A4용지 4장 분량의 편지는 “유학을 가겠다는 아들이 회사를 그만두지 못하게 막아 달라”는 게 요지였다. 아버지는 “상사가 힘들게 해서 아들이 그만두겠다는 게 아니냐”고 으름장



머리를 앓는다. 기업 인사담당자 약 580여 명이 모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도 후일담이 속출했다. 지난 10월 한 카톡방에선 “무단 퇴사한 신입사원의 부모가 ‘애가 잘 몰라서 그랬다. 다시 받아줄 수 없겠냐’ 하더라” “아버지가 대신 와서 시작서를 썼다” 등의 에피소드가 올라왔다. 한 회계법인에선 팀장이 신입 회계사의 부모로부터 “퇴근 후 학원에 가야 하는데 야근이 이렇게 잦아 어떡하냐”는 항의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부모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신고한 경우도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대형병원 소속 2년 차 간호사 A씨(25)의 어머니는 병원에 전화해 “왜 휴게시간을 안 주느냐. 아이가 밥도 못 먹고 일한다”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겠다”고 항의했

다. 얼마 뒤 중노위 조사관이 실제 병원을 방문했다. 조사 과정에서 병원 측이 휴게시간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고, A씨 부모가 진정을 철회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됐지만, 병원 관계자는 “직원 부모의 컴플레인도 노동 당국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1년에 한 번은 된다”고 말했다.

특히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선 대학 입시만큼 부모 개입이 광범위하게 일어난다. 채용 공고가 나면 부모들이 문의하는 건 다반사다. 한 채용 대행사 관계자는 “면접 때 부모가 따라와 대기실에 같이 들어가려고 하거나 ‘언제 끝나냐’고 묻는 일은 요즘은 공채 때마다 벌어진다”고 전했다.

성인이 된 뒤 직장·결혼 등 중요한 인생의 결정뿐 아니라 일상생활까지 의존하는 ‘어른이 쟁거루족’이 많다는 뜻이다. 허민숙 국회의원법조사처 조사관은 “저성장 장기화로 부모 세대보다 경제력이 떨어진 첫 자녀 세대가 등장했다”며 “그 결과 부모가 성인 자녀를 계속 돌보는 게 하나의 사회문화 현상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보람·김서원·이찬규 기자

“우리 아들 학점 왜 F냐” 민원에… 대학들, 교수 폰번호 감춘다

최근 서울 한 4년제 사립대에서 열린 대규모 취업박람회에서 희끗희끗한 흰 머리의 중년 남성이 한 대기업 부스에서 상담을 받았다. 지방대 졸업을 앞둔 딸을 둔 아버지였다. 그는 “딸이 서울에서 취업하려고 준비 중인데 요즘 채용 트렌드를 확인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싶어 물어보려고 왔다”고 말했다.

헬리콥터 부모들이 성인 자녀의 직장 등 사회생활에 개입하는 건 대부분 자녀 대학 시절부터 학점 관리나 취업 준비 등에 관여해 왔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서울 내 4년제 대학에서 경영학을 가르치는 강사 조모(33)씨는

지난 7월 1학기 성적 처리 마감을 앞두고 한 수강생 어머니로부터 “아들의 F 학점을 철회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조씨는 “같은 질병 확인서를 내 차례 냈기 때문에 세 번은 결석으로 보고 F 학점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어머니는 “애가 진짜 아꼈다. 대학에 갑질한다고 신고하겠다”며 막무가내였다고 한다. 조씨는 “과거엔 강의계획서에 교수 휴대전화 번호를 적는 게 필수였지만, 부모의 항의 전화가 잦아 보니 최근엔 자율적으로 정하는 추세”라고 했다.

중년의 아버지들이 대학생 자녀 과

제를 대신 해주는 일도 많다. 대학교 1학년 딸을 둔 한 정부 부처 서기관은 “교양과목 책을 대신 읽고 요약 정리하는 데 최소 5시간은 필요해 주말에 쉬는 게 쉬는 게 아니다”고 토로했다. 한송희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과거엔 주로 엄마가 양육의 주체 역할을 했지만, 과잉 양육 현상이 확산하며 그 주체가 아버지까지 범위가 넓어졌다”고 말했다.

일부 부모는 자녀의 이익을 위해 집단행동도 마다치 않는다. 지난 2월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뒤 전국 의대생과 전공의 부모

3900여 명이 모인 전국대학부모연합은 8월부터 11월 수능 당일까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의대생 자녀를 둔 60대 정모씨는 “아들의 꿈이 무너져 마음이 아프다”고 외쳤다.

중앙일보가 20·30대 자녀 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성인 이후 부모로부터 받거나 요청한 도움(경제적 지원 제외)’을 물었더니 44%(중복응답 포함)가 ‘재무 관리’를 꼽았다. 50·60대 부모 50명을 상대로 성인 ‘성인 자녀에게 준 도움이 어떤 것인지’를 묻자 ‘보함·은행·통신 등 가입’(66%, 중복응답 포함)이 1위로 꼽혔다. 본인이 직

접 해야 하는 돈 관리나 행정 처리 등을 여전히 부모에게 의존하는 셈이다. 지난해 3월 취업한 박민석(29)씨도 아버지가 휴가를 내고 집 근처 은행 서너 곳을 돈 뒤 1년 만기 적금, 청년도약계좌 개설,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등을 알아봐줘 이를 따랐다.

자녀들은 이 외에 ‘독립 뒤 가사 도움’(34%·17명), 등하교·출퇴근 때 승용차로 태워주는 ‘라이딩’(24%·12명), ‘취업 등 정보 검색’(16%·8명) 등의 도움을 받는다고 답했다.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상교수는 “어릴 때부터 주체성을 획득하지 못한 채 어른이 되면 결국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잃는다”고 지적했다. 이보람·김서원·이찬규 기자

금쪽이같이 키우다 취업·결혼도 늦어져… ‘어른이 양육’ 늘었다

헬리콥터 부모들이 성인 자녀를 과보호하고 간섭·통제하려는 현상은 출산율이 낮아지고 독립 시기가 늦어지는 등 사회 변화와 관련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한 가정에 자녀를 1~2명씩만 두면서 부모의 경제적·정서적 에너지가 비교적 많이 투입될 수 있고, 대졸·취업·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부모의 양육도 연장됐다는 것이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신생아 중 첫

째 비율은 1998년 48.9%였지만 지난해 60.1%로 크게 높아졌다. 교육 수준이 높아진 동시에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들의 연령도 높아졌다.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대졸 신입사원의 첫 입사 평균연령은 1998년 25.1세였지만 2020년엔 31세로 올랐다.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한국에서는 결혼 뒤에야 부모로부터 독립한 성인이라는 인

식이 강하다. 이 때문에 경제적 의존이 지나친 정서적 의존으로 이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두 명의 자녀를 어린 시절부터 성인 이후까지 관리하면서 “자식 농사에 성공했다”는 성적표를 원하는 심리도 자연스레 생겼다. 2023년 여성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자식의 성공은 나의 성공과 같다’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한 부모가 58.9%에

달했다. 현행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 과정도 과잉 양육 현상을 강화한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대입 전형이 학교별로 다른 데다 자주 바뀌면서 학생 혼자 입시 전략을 짜는 건 사실상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성인 자녀에 대한 과잉 양육 현상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1991년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처음 기사로 ‘헬리콥터 부모’에 대해 소개한 이후 미국 교육계의 관련 연구도 활발해

졌다. 처음엔 주로 아동·청소년 자녀의 학교생활에 과잉 간섭하는 부모에 초점을 뒀다. 하지만 코로나19 전후 미국에서도 상류층 자녀 대학 부정입학이나, 자녀 취업 면접에 동반하는 등 성인 자녀에 개입하는 현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부모 뜻에 순종하고 개인보다 가족을 중시하는 가족주의 문화가 강해 부모의 개입을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라 분석도 나온다.

김서원·이보람·이찬규 기자

MERCY CHIROPRACTIC

멜시척추신경

교통사고 치료 전문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24년 임상경험의 여러분 가정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 병원

- ▷ 교통사고 · 운동사고 · 직장사고
- ▷ 스포츠 · 노동 후유증
- ▷ 오십견 및 급만성 요통
- ▷ 좌골 신경통
- ▷ 척추측만, 거북목 증후군
- ▷ 관절 클리닉
- ▷ 손발 통증 및 저림

- 최신 물리치료, X-Ray 안비
- 유학생 보험 / 여행자 보험
- 교통사고 보험처리에 필요한 모든 서류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

매난데일

703.256.3005

7535 Little River Tnkp. #200-B
Annandale, VA 22003
(한국일보 옆 건물 2층)

센터빌

703.830.0993

13880 Braddock Rd., Suite 102
Centreville, VA 20121

엘리콧시티

410.465.3221

9005 Chevrolet Dr. #4
Ellicott City, MD 21042

www.jungmercyclinic.com

email jungspinechiropractic@gmail.com



HAPPY LIVING

추수감사절
특별세일

슬고 수퍼천수

SOLCO.

전통 온돌과 메디칼 과학의 결합으로 탄생한 신개념 온열 매트리스
혈액 순환개선 및 근육통 완화의 효능효과!!!

돌침대에서 경험할 수 있는 부드러운 온열, 3D 에어메쉬, 항균 바이오폼, 온도 둔감형 메모리폼으로 체압을 분산시켜 포근하고 편안합니다.



수퍼천수의 특하기술!

- ▶ 수맥파 차단 및 수맥차단 매트리스
- ▶ 면상발열체의 연결구조
- ▶ 교류전원의 전력 공급제어회로
- ▶ 전자파를 제거한 면상발열체
- ▶ 과열방지 온열매트

* 매트리스 ONLY
- 베드 프레임 별도 판매

온열 소파 베드

안전성과 온열 전위 기능이 강화된 전자파 없는 소파 겸 베드
설정된 온도에 도달하면 전기 차단
특수 설계 SR 발열 시스템으로 온돌 방식을 과학적으로 재현



닥터린

슈퍼 글루타치온 맥스

98% 고순도
글루타치온 효모
추출물이 1매당
130mg 함유



- 구강 분해 필름으로 체내 흡수는 빠르게 후대는 편하게
정확한 용량으로 복용은 편하고 쓴맛은 차폐
- 비타민C, 비타민B2, 비타민 B6, 나이아신, 비타민E, 셀렌,
미네랄의 최적의 배합
- 밀크씨슬, 엘라스틴, L-시스테인, 히알루론산, 피쉬콜라겐 함유

- 각종 유기농 건강 제품, 꿀 제품, 로열젤리, 자연 건강 제품,
각종 액기스 제품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단체 맞춤 건강 선물 세트 문의 환영합니다.

코웨이 프리미엄 안마의자

[렌탈 및 판매]

COWAY

- 입체적인 4D 안마기능 • 다리 길이 조절
- 하체 집중 마사지 기능 • 3단계 무중력 모드
- 자동 체형 감지 • 블루투스 스피커
- 발바닥 마사지 • SL자형 프레임
- 전신 에어 마사지 (124개의 에어셀)

렌탈료 월 \$99.99+tax 부터 가능
* 렌탈 기간 만료 후 안마의자 소유 (무상)

코웨이 제품 공식 판매 업체
정수기, 청정기, 비데, 연수기, 안마의자



매장에
방문하셔서
체험하세요!
렌탈과 일시불 구매
도 가능합니다.

단 10초면 따뜻해지는 닥터스 탄소사 매트

매트 안에 구리 열선이 없이
탄소사만을 열선으로 사용하여
가볍고 안전하고 배김 없이
따뜻함이 최고!!!

국내(한국) 관련 특허 29개의
한국 제품!

특허받은 기술력 전기열선 無 60,000 탄소사 섬유	1mm 초슬림 약 866g 초경량 등전보다 얇다!
전자파 NO! EMF 인증 완료	원적외선 UP 원적외선 방출 테스트 완료
세탁기 사용 OK! 세탁/오염 걱정 DOWN	전기요금 DOWN 소비전력 걱정 NO

무연 전기 그릴

연기와 화력을
동시에 잡은
무연 전기 그릴



- 위아래 이중 가열로 화력은 UP (화력 500° F 까지 가능), 강력한 에어커튼 팬으로 연기는 ZERO
- 독일의 기술력인 에어커튼의 기능으로 주변에 튀는 기름 제거
- 두터운 통 삼겹, 토마호크, 냉동생선도 문제없이 요리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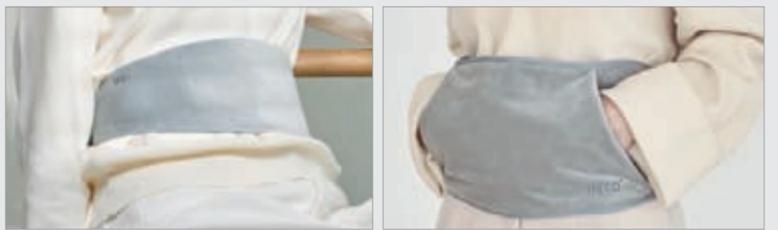
SMART 펫 드라이룸

안면 무풍 드라이 테크놀로지로 털은 뽀송! 눈과 코는 촉촉!
빠르고 쾌적한 드라이 기술, 편리, 안전, 위생 모두를 고려한 기술



휴대용 온열 찜질기

- 가느다란 열선 대신 면으로 양면 발열하는 소재 사용
- 전자파 없는 최첨단 친환경 발열 신소재 온열 찜질기 (은나노 필름 히터 특허 기술)
- 추위에 약하고 생리통, 허리통, 부종으로 찜질이 필요하신 분에 추천
- 초슬림, 초경량으로 몸에 따뜻한 편안한 착용감
- 3단계 온도 조절 가능 (40° C ~ 55° C)



해피 리빙

703-798-7270
(애난데일 K-마켓 안에 위치)

CARESYS SOLCO. COWAY

4239 John Marr Dr. #1, Annandale, VA 22003

고치다던 '상속세 개편' 없던 일로... 코인과세 유예는 수용

야당, 오늘 예산부수법안 단독처리 박찬대 "상속·증여세 1.5조 더 걷혀 추가 예산으로 여당과 협상 가능" 학계 "후진적 세제 고집, 국민 타격"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왼쪽 둘째)가 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국회 허영예결특위·정태호 기재위 간사.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예산 부수법안도 단독으로 상정·표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법안 등 여야 간 견해차가 큰 쟁점 법안들을 야당 안대로 부결 또는 단독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일 "예산 부수법안은 2일 무조건 처리한다"며 "정부 안 13개 중 10개는 원안 가결, 2개는 수정안 가결, 1개(상속·증여세법 개정안)는 부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예산 부수법안 중 정부 안 13개를 우선 처리 대상에 올려놓았다.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의 경우, 이날 민주당이 "유예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 안

통과가 가능해졌다. 문제는 박 원내대표가 부결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다. 박 원내대표는 "상속·증여세법을 부결시키려는 이유는 초부자감세이기 때문"이라며 "부결로 1조5000억원 정도의 세수가 (정부 안보다) 더 걷힐 걸로 본다. 이 추가 예산으로 여당과 협상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부자 감세"를 이유로 수용 불가를 선언했지만, 이를 두고 야권 내에서조차 "여론 반향이 큰 금투세(금융투자 소득세)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결정한 반대급부로 상속·증여세를 포기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앞서 지난 8월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 금액

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도 앞다퉀 상속세 개정안을 줄지어 발의했다. 결과적으로 예산안 단독 처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속세 개편을 '없던 일로' 만든 셈이다. 전문가들은 "후진적 세제를 고집하면 국가 경제가 타격을 입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지게 된다"고 비판

한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비춰볼 때 한국의 상속세는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1999년에 만든 세율과 과표 구간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건 부자 감세가 아닌 중산층 감세를 포기하는 것인데, 이제 누가 한국에서 기업을 경영하고 돈을 굴리려 하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부결 방침에 이어 조세특례제한법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야당 안으로 고쳐 단독 의결할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부자 감세 기조에 해당해 수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개별소비세법 ▶관세법 ▶과세자료 제출 및 관리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소득세법 ▶국제조세조정법 ▶FTA 관세법 특례법 ▶법인세법 ▶국제기본법 등 개정안 10개는 무쟁점 법안으로 분류된다.

심서름·윤지원 기자

의사봉 권 우원식... 감액안 상정이나, 여야 중재냐 고민

4일·10일 본회의의 남야 협상여지 일각 "여야 강경해 상정 강행할 수도"

더불어민주당이 1일 예산안 단독 처리와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소추안 보고를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행보가 변수로 떠올랐다.

민주당 출신이면서 입법부 수장이기도 한 그의 선택에 따라 향후 정국이 요동칠 수도 있다.

국회법상 예산안과 탄핵안을 본회의에 부의·상정해 표결에 부칠 최종 권한은 국회의장에게 있다.

국민의힘은 "최근 민주당 행태는 정부를 멈추겠다는 사실상의 '입법 쿠데타'로, 국회의장이 바로잡아 달라" (배

준영 원내수석부대표)고 촉구하고 있다. 예산안과 관련해서 "우 의장이 2일 본회의에 야당 단독 예산안을 그대로 올리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민주당 재선 의원은 "우 의장으로서도 사상 초유의 야당 단독 예산안을 상정하는 게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추가 협상을 요구하며 명분을 갖출 것"이라

고 전망했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2일이라고는 하나, 오는 4일과 10일에도 본회의 일정이 잡혀 있어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측면도 있다. 의정실 관계자는 "우 의장이 기획재정부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과 함께 실제 야당 단독 예산안을 처리할 경우 '사고'가 날 위험은 없는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여야 입장이 워낙 강경해 "우 의장이 예산안 상정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한다. 우 의장은 2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와 따로 만나 예산안을 놓고 추가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안을 놓고선 "우 의장이 민주당 요구를 묵살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의정실 관계자는 "우 의장이 탄핵안에 대해서 아직 의견을 정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성지원 기자

"플라스틱 먹고 거북이 죽어간다" 부산 찾은 호주 원주민들의 호소

"이 거북이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5차 '국제 플라스틱 협약' 회의가 열리는 부산 벡스코에서 지난달 26일 만난 호주 원주민(어보리진)들이 한 사진을 보며 눈물을 글썽거렸다. 사진 속 거북이는 어망에 칭칭 감겨 있었다. 답답함과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죽은 듯했다. 사진을 찍을 당시에 거북이가 살아 있었다는 사실이 떠올랐는지 원주민들은 괴로워했다. 어망 재질이 너무 강해 도울 수가 없었다고 한다.

호주 원주민 그룹을 대표해 국제 플라스틱 협약 옵저버(observer·국제 협약 성안 과정을 감시하는 시민)로 참

석한 마알틸리 마리카는 이 장면이 가장 충격적이었다고 했다. 그가 사는 아넘랜드(호주 북부 해안 마을)의 해양 동물들은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해 쫓아간다. 쓰레기에 갇혀 죽거나, 쓰레기를 먹고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다"고 했다.

원주민들이 해양 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외치고자 부산까지 온 이유다. 함께 온 또다른 원주민 락락 마리카는 큰 가방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그는 어망과 음료수병 사이에서 소시지 포장재를 찾아 들어 올리며 "거북이의 사체 안에 있던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26일 호주 원주민 대표단이 호주 북부 해변에 있던 플라스틱 쓰레기를 꺼내 보이고 있다. 작은 사진은 어망에 오물이 감겨 죽어가는 거북이.

다. 그들은 "주로 인도네시아에서 온 쓰레기가 많고, 한국에서 온 어획 도구와 포장재도 간혹 줍는다"고 했다.

플라스틱 오염이 극심하기로 유명한 필리핀에서도 여러 활동가가 부산을 찾았다. 필리핀에서는 매년 약 270만톤(t)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하고 매일 약 1억6400만 개의 비닐봉지가 사용되며 오염이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

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보건 의료 단체인 '해로움 없는 보건 의료'(Healthcare without Harm) 소속 카일라 패트리아스 베르네즈는 올해 자신의 친구와 가족 여럿이 병을 앓고 있다고 전했다. 여성의 경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진단받았다.

보건의료학을 전공하고 의료 기술 분야에서 종사해오던 그는 "주변인들의 불운이 플라스틱에서 나온 유해물질의 영향일 것이라고 생각해 6개월 전 비영리 기구에서 활동을 시작한 결과, 플라스틱이 토양이나 바다에서 분해되면서 납, 카드뮴, 비스페놀A 같은 발암성 유해물질이 발생하고, 다량 유해물질 발생 인근 지역 주민이 이로 인해 생식기 질병이나 암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성지원 기자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김경아의 독점 COMING SOON LIST!!

1. 윗브리지 타운홈
2. 알렉산드리아 싱글홈
3. 페어팩스 스테이션 싱글홈
4. 매나사스 타운홈
5. 버크 싱글홈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김경아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정승욱
연방세무사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IRS 감사 세무당감 전문



김명선
연방세무사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인 세금 보고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당감 신청

사업체 세금 보고

- 법인제,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장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Financial Group



메디케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티모시유 보험이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 현재 가지고 계신 플랜을 다른 플랜으로 변경하고 싶으신 분들
- 메디케어가 처음이신 분들 (1959년~1960년생)
- 65세 이후 직장에서 은퇴하신 분들
-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 (듀얼 플랜)
- 타주에서 이사 오신 분들
- 처방약 절약이 필요하신 분들 (LIS)

파트 A & B / 파트 C (어드밴티지) / 파트 D (처방약)
메디갭 (서플먼트) / 듀얼 (메디케어 + 메디케이드)

연금 보험

여유롭고 행복한 노후 준비를 도와드립니다!

평생 연금으로 고객님의 노후를 든든하게 계획해드립니다!

각 고객에 맞는 연금보험을 정성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생명 / 암 보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건강이 염려되시는 분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건강 보험 (오바마케어)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건강 의료 보험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개인 맞춤
진단!



티모시유 보험

TEL. 703-961-8811
email: info@yoofg.com

5900 Fort Dr. Suite 407, Centreville, VA 20121

야, 검탄·감탄·특검·예산 4중 폭주

〈검사 탄핵·감사원장 탄핵〉

민주당, 검사 이어 감사원장 탄핵 전·현 감사원장 “헌법 질서 훼손”

대통령실·정부·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을 무기로 싸우고 있다. 검사에 이은 감사원장 탄핵소추와 야당에 의한 특별검사 추천이란 대치 전선에 29일 예산안 처리까지 더해졌다.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이날 거야(巨野)가 단독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들이다. 민주당은 헌법적 권한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실과 해당자들은 반헌법적 권한 남용이라고 크게 반발했다. 어느 쪽도 물러설 기세가 아니다.

첫 전선은 탄핵이다. 헌법기관장인 최재해 감사원장부터 크게 반발했다. 그는 이날 국회 예결위 참석에 앞서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탄핵 사유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고, 당혹스럽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부실 감사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회의록 국회 제출 거부 및 국정감사 위증 등을 이유로 최 원장이 국회 증언·감정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원장은 “(대통령실 이전 감사는) 저희가 조사한 그대로 전부 감사보고서에 담았다. 그 이상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정감사에 충실히 답변했고, 위증한 게 없다. (민주당에서) 정확히 뭘 위증했다고 하는지 제시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탄핵 전 사퇴를) 할 생각은 없다”고도 했다.

전윤철(19·20대, 노무현 대통령 임명)·김황식(21대)·양건(22대, 이상 이명박 대통령)·황찬현(23대, 박근혜 대통령)·최재형(24대, 문재인 대통령) 전 원장은 이날 깊은 유감 표명과 함께 탄핵 중단을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감사원장 출신의 연명(連名) 반박은 초유의 일이다. 이들 5인은 민주당의 탄핵 사유에 대해 “과연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며 “정치적인 이유로 헌정 질서의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 감사원의 헌법적 임무 수행이 중단돼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 간부 전원은 이날 오후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대통령실도 ‘정치적 탄핵’이라고 반발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

후 브리핑에서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을 마비시키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사드 정보 유출 사건 등 국가 문란 사건을 조사해 국가 질서를 세우는 업무가 마비된다”며 “야당의 입맛대로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탄핵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추가 검사 탄핵을 두고도 양 진영이 충돌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이 원하는 대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탄핵하는 것은 명백한 보복 탄핵”이라며 “야당 관련 수사 및 재판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사법 체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검찰 내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21명 전원은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특정 사건 처리 결과에 기인한 연이은 검사 탄핵 시도는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남용하는 잘못된 선례가 될 우려까지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중앙지검에선 26일 1·2·3 차장검사가, 27일엔 부장검사 전원이 입장문을 냈다. 28일엔 대검이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최재해 감사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자신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관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않을 것”이란 공식 입장을 냈고, 서울 남부지검에서도 “탄핵은 극도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헌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맞받았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탄핵소추는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이고, 그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몫”이라며 “국회의 탄핵소추권에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이야말로 삼권분립을 근간으로 한 헌정 질서를 부정하고 헌재를 압박하려는 시도로 오만과 독선의 헌정 파괴를 당장 중단하라”고 했다.

또 다른 전선은 특검 임명을 두고서다. 민주당은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서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대통령실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이 국회 추천권을 독식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며 “국회 추천 4명을 모두 자신들의 꼭두각시로 임명함으로써 민주당 마음대로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 자신만의 검찰로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행정부의 기소권,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해 삼권분립에 위반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했다.

박태인·강보현·석경민 기자

증액없이 4조1000억 깎은 예산안 야당, 헌정 최초 예결위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에서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29일 단독으로 처리했다. 예결위에서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예결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677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그간 야당의 예고대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특활비·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특경비·506억9100만원)와 특활비(80억90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경찰 특활비(31억6000만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특경비는 사실상 수사·감사 활동 예산이다.

감사원·검찰·경찰은 “사실상 가능 마비된다”며 삭감에 반발했었다. 정부안에서 505억원이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은 497억원, 70억원이었던 민관합작 선진 원자로 수출기반구축(R&D) 예산은 63억원이 감액됐다. 사

업 추진이 불가한 수준이다.

4조8000억원 규모인 정부 예비비도 절반인 2조4000억원을 깎았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등을 충당하기 위해 일정 한도에서 미리 책정하는 금액이다.

소관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증액은 반영되지 못했다. 건강보험 가입 지원 예산 1조6000억원, 호남고속철도 건설 예산이 277억원 등이다.

헌법에 따르면 국가가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가능하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헌법이 보장한 대로 심사를 성실히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오로지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분풀이식 삭감”이라고 반발했다.

기획재정부도 “야당의 단독 감액 예산안이 시행될 경우 국가의 기본적인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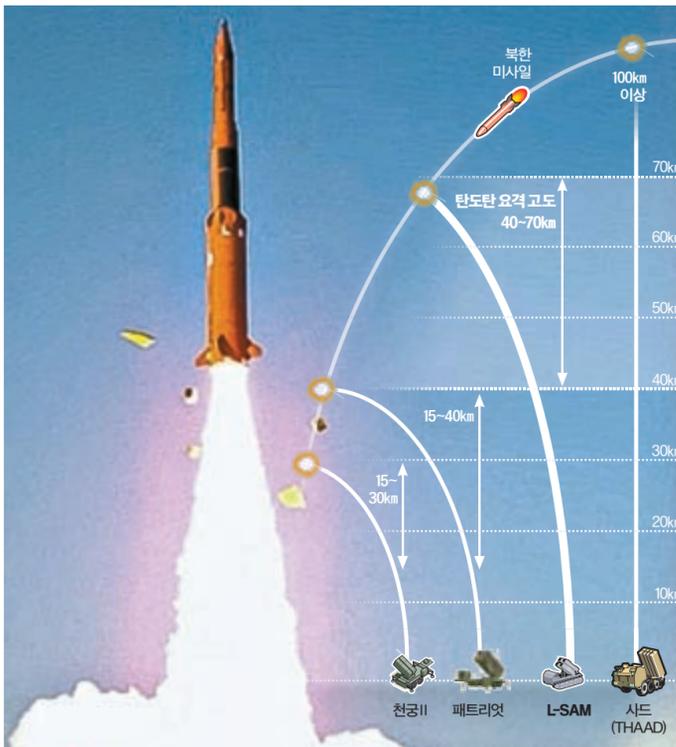
이어 예비비·특활비·특경비 삭감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야당의 일방적인 감액 예산안 의결에 따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귀결된다. 이제라도 예산안 합의 처리에 임해 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단독 의결한 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순 있지만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야당만의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 있어서다. 지역 예산을 확보하려는 야당 의원들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다.

기술적인 문제도 있다. 예산안은 세수를 고려해 세출을 결정한다. 기획재정부가 세수와 관련된 세법 개정안을 심사하면 예결위가 이에 맞춰 증·감액을 결정하곤 했다.

이번엔 세법 개정안의 결론이 나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이 삭감안부터 통과시켰다. 차질 수입은 정부가, 지출은 야당이 짚 ‘미스매치’ 세입·세출안이 마련될 수도 있는 셈이다. 역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다.

유성운·임성민 기자



‘한국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불리는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의 개발이 완료됐다. L-SAM은 탄도미사일 종말단계 상층 방어 체계로 40~70km 상공에서 미사일과 직접 충돌하는 방식으로 요격한다. 국방부는 29일 ‘국방과학연구소(ADD)는 10여년간의 개발 끝에 L-SAM 독자 개발을 완료했다’며 “이날 국방과학연구소 대전청사에서 L-SAM 개발이 성공적으로 끝난 것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다”고 전했다. 사진은 L-SAM의 발사 모습. [사진 국방부]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 65세 되시는 1960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 /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 /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 703-598-3316

정문기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좌골 신경통
- 척추 고정 및 물리치료
- 어깨, 무릎 통증
- X-ray, 재활운동 시술 환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국립사고 치료 전문의)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WIDE SHOT



첫눈 반기는 재두루미 첫눈이 내린 27일 이른 아침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 한탄강 철새 도래지 관찰소에는 '찰칵찰칵' 카메라 셔터 소리가 온종일 끊이지 않았다. 영하의 날씨를 뚫고 새벽길을 달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우아한 날갯짓과 고고한 자태를 뽐내는 '겨울 진객' 재두루미 모습을 담기 위해 인천과 수원 등지에서 온 사진작가들이다. 재두루미는 1968년 천연기념물로, 2012년엔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으로 지정된 보호 조류다. 월동을 위해 지난달 중순부터 철원지역으로 날아든 두루미·재두루미는 현재 3000여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철원군청은 파악하고 있다. 백종환 철원두루미운영협의체 회장은 "올겨울 역대 최대인 7000여마리가 찾아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진·글=김상선 기자

먼나라 이웃나라 역사 프리즘

탄핵

글·그림 이원복

탄핵(彈劾)이란 고위 공직자를 의회에서 소추해 파면하거나 처벌하는 것이다.

의회 공직

의회정사에서 최초의 탄핵은 1376년에 일어났다.

1376년 잉글랜드 국왕 에드워드 3세의 실정을 보다 못해

에드워드 3세
1312-1377
1327-1377

프랑스의 백년전쟁을 일으킨 잉글랜드 국왕

간금 소집한 이른바 선정의회(善正의會: Good Parliament)*에서

1337년부터 40년에 걸친가다!

이러다가 백년전쟁 되는 거 아니냐?

왕을 끌어내면 반역이니

바로 아래를 끌어내야지.

당시 최고 실세였던 윌리엄 레티머 남작*을 탄핵한 것이다.

그는 의회에 의해 파면당한 첫 최고 공직자로 기록된다.

이차의 다

이적 행위 뇌물, 횡령 정치적인 거...

*임시국회 *1390-1391

미국에서도 건국 이래 여러 차례 대통령 탄핵 소추가 있었다.

탄핵 소추 impeachment

17대 앤드루 존슨
37대 리처드 닉슨
42대 빌 클린턴
45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파면하자!

가장 유명한 것이 암살된 링컨의 뒤를 이은 앤드루 존슨에 대한 탄핵이었다.

Andrew Johnson*
1808-1875

그는 남부 출신 북부 대통령으로 전후 남부에 대한 유화적인 태도로 북부의 마음을 샀고

제 고창이라 꺼고도는 거야. 뭐야?

*제임 1865-1869

그런 존슨의 태도에 기가 산 남부가 북부에 저항하면서 남부의 미움도 받았다.

남부인인데 북부 부통령으로 부역했던 자!

의회와 지목이 사이가 나뉘었던 그는 결국 35 대 19로 탄핵 소추되었고

상원에서는 통과되었으니

하원 전체 회의에서 결정한다.

찬성 35표 반대 19표

1868년 3월 1일 전체 하원 의회에서 탄핵안의 표결이 있었다.

방정환에 엄청난 웃음이

그때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래. 문있다지? 미국 역사상 첫 탄핵이니!

와클 와클

탄핵안은 의원 수 3분의 2에서 단 한 표가 오지라 부결되었는데

부결 찬성 +1표 반대

탄핵에 찬성했던 공화당 의원 7명이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탄핵이 고립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마비시키지는 않 된다.

그렇게 강등도 없고 대임이 심한 미국 역사에서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은 한 명도 없다.

그때도 알래스카를 러시아에서 빼앗고

멕시코에서 프랑수아를 몰아냈다

미국은 50개 나라가 합쳐진 합중국으로, 주마다 권력 구조가 중앙정부와 같다.

연방(Federal)

주지사 하원·상원

후(State)

대통령도 탄핵되는데 주정부 수장인 주지사가 탄핵되는 경우가 없을 리 없다.

나가!

가장 유명한 것이 2011년 일리노이주 주지사 로드 블라고예비치의 탄핵이다.

Rod Blagojevich
1956년생
일리노이주 주지사 2003-2009

이름에서 짐작되듯 세르비아 이민자 후예다.

2008년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일리노이주 상원 의석이 공석이 되자

민사리

상원 의원

대통령

그는 돈을 받고 상원 의석을 거래했다는 혐의로 탄핵되었고

2011년 탄핵 소추 사유 20가지 중 177개가 인정되어 14년 형을 언도받고 실형을 살다가

부패, 헐바, 위증 등등등

보도계명 재판

연방 법사가 발한 주지사 법치 수사 재판

2018년 5월 31일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감형받은 뒤 2020년 사면되었는데

그때도 9년이나 형사 감형 때문에 옥살이했지?

사면 복권

트럼프가 사면 이유로 낸 것은...

포다같이 그와 함도

안 되는 사유로 탄핵당해?

남들 다 하는 건데!

낄낄 낄낄

추천이 꼬리를 무는 부동산 GALAXY REALTY **갤럭시부동산** 2024 여름 마켓에 울리지 않고 주인·세입자 바로 연결한 집

매매 / 렌트	금액	설명	주소	기간	세입자
★ 주택 ★ McLean, VA	SOLD \$900,000	*계약 후 10일내 세불먼트 완료 현재 3년 렌트 (\$4,250) 렌트 끼고 살 투자자. 매달 25일경 기관에서 다음 달 렌트비를 주인 통장으로 바로 입금함	★ 8*03 Fallstaff Rd. McLean, VA	1년	Non Korean
★ 사업체 ★ Fairfax, VA	\$3,500	Mantua ES, Frost MS, Woodson HS 권 싱글하우스 렌트. 부역, 화장실 upgrade 된 집, 10월 1일 입주 가능	★ 82* Wakefield Dr. Arlington, VA	3년	주재원
★ 사업체 ★ 델리샵 (DC)	\$150K	DC 내 좋은 위치. 장사 잘 되는 곳이나 은퇴 예정. 사업 운영하면서 투자용 집, 두 자녀 집 살 때 다운 페이먼트 지원할 정도로 안정된 수입	★ 822* Crestwood Heights Dr. McLean, VA	2년	Non Korean
★ 사업체 ★ 세탁소 (MD)	\$300K	MD, 코로나 때 주변 세탁소 문 닫아 장사가 더 잘되는 세탁소	★ 1*11 Fallbrook Ln, Vienna, VA	2년	주재원
			★ 1*02 Abbey Way, McLean, VA	3년	교민
			★ 22*3 N Underwood, Falls Church, VA	2년	교민
			★ 7*32 Old Dominion Dr, McLean, VA	2+1년	국제기구
			★ 1*89 Dawson St, Vienna, VA	2년	교민
			★ 2*02 Scotch Haven Dr, Vienna, VA	2년	주재원
			★ 7*37 Backett Wood Ter, McLean, VA	3년	주재원
			★ 1*40 Kensington Rd, McLean, VA	1년	주재원
			★ 7*51 Tremayne Pl, McLean, VA	1+1년	주재원
			★ 411* 11th St, Arlington, VA	2년	주재원
			★ 1*33 Colonial Hills Dr, McLean, VA	3년	국제기구
			★ 2*69 Oakbrough Sq, Oakton, VA	18개월	주재원

사무실 (703) 622-0312 직통 (703) 625-9909 | 1952 Gallows Rd. #102, Vienna, VA 22182 (타이슨스 DMV 옆, 한미과학재단 1층) 로리 정 갤럭시부동산 대표 에이전트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건강한 치아 www.naturadent.net

원장 강동호 Don Kang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펜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한국, 미국에서의 27년 임상경력

임플란트 Implant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응급환자 Emergency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반도체 쌓고 구멍 뚫고 ... 유별난 호기심이 HBM 낳았다

(고대역폭메모리)

D램 더 못 줄이는 기술적 한계 직면
세로 구조 역발상, 기업과 연구 시작
고교때부터 궁금증은 못 참는 성격
전자공학 석사, 박사 학위는 물리로
최근엔 단백질 관련 생물학 연구

인공지능(AI) 시대의 개막과 함께 수시로 뉴스에 등장하는 용어가 있다. HBM, 풀어쓰면 '고대역폭메모리'란 의미다. AI를 구현하려면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써야 하는데, 데이터 처리속도가 월등한 HBM 없이는 GPU를 유지할 수 없다.

이 산업의 대표적인 수혜자가 최고 성능의 5세대 HBM인 'HBM3E' 양산에 성공, 엔비디아에 독점 납품하고 있는 한국의 SK하이닉스다. SK하이닉스는 HBM 수요폭발에 힘입어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부동의 업계 1위이던 삼성전자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도 고성능 HBM 개발 경쟁에서 한발 밀린 탓이 크다. HBM은 전자기구나 데이터센터 등에도 사용할 수 있어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전기차 제조사인 테슬라가 삼성전자에 6세대 HBM 개발과 공급을 요청한 상태다.

타 교수 연구실 들렀다가 구멍에 관심

HBM의 기본 구조를 장안한 사람이 'HBM의 아버지'라 불리는 김정호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전자공학과 교수다. 그는 2010년 종래의 메모리 소자인 D램을 3차원 적층 구조로 쌓는 기술을 고안했고 그것이 지금의 HBM이 됐다. 그 이후 SK하이닉스와 손잡고 HBM 양산에 성공, 지금도 차세대 HBM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김 교수를 카이스트 나노과학기술원 테라랩(Teralab)에서 만났다.

HBM은 어떻게 탄생했나요.

"어느 날 TV를 보고 있는데, 문득 새로운 형태의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TV 화질을 더 좋게 하려면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가 필수거든요. 그런데, 가장 대중적인 메모리 반도체인 D램은 사실상 기술적 한계에 와 있었어요. 더 이상 작게 만들기 어려웠던 거죠. 무어의 법칙(반도체 성능이 2년마다 두 배로 증가한다는 법칙)이 한계에 도달한 겁니다. D램을 아파트처럼 쌓아 올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게 '3차원 적층 구조' HBM의 시작입니다."



김정호 KAIST 전기·전자공학과 교수는 "카이스트 출신 연구자를 중심으로 한국이 AI 반도체 패권을 잡게 할 것"이라며 "한국에 오지 않는 젠슨 황이 우릴 찾아오게 하겠다"고 말했다.

"쌓아 올리는 것만으로 성능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걸 좀 더 나은 순간부터 기술적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다 재료과의 동료 교수한테서 힌트를 얻었어요. 그분 연구실을 놀러 갔더니 온종일 반도체에 구멍을 뚫고 있더라고요. 패키징(반도체를 자르고 묶어 성능을 높이는 과정) 기술을 연구하는 과정이었는데, 저한테 어떻게 구멍을 뚫으면 좋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날부터 저도 구멍 뚫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호기심이 생겼어요. 쌓아 올린 반도체에 구멍을 뚫어 전력과 신호를 공급하면 어떨까, 하는. HBM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실리콘관통전극(TSV) 기술이 접목된 배경입니다."

당시 김 교수 연구실은 D램을 쌓는 기술(적층) TSV D램을 연결하는 접지기술 등을 오랜시간 연구하고 있었다. 때마침 SK하이닉스가 AMD·엔비디아 등과 고성능 메모리를 설계 하던 참이었고, 김 교수와 연구협력을 해온 SK하이닉스가 아이디어를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김 교수는 "알고 보니 우리 연구실이 연구한 적층·TSV·접지 기술이 AMD·엔비디아가 원한 메모리

반도체의 핵심 기술이었다"고 전했다. 그게 2010년이었는데, 김 교수는 HBM이 소위 '대박'이 날 것이라고는 예측하지 못했다.

"2010년 이후 계속 HBM을 연구했습니다. 상업적 성공 가능성을 내다본 건가요. "지금처럼 AI의 핵심 반도체가 될 것이라고는 당연히 몰랐죠. 고작해야 TV 화질을 더 좋게 하는 정도.(웃음) 그런데, 어느 날부터 딥러닝과 알파고 가 유행처럼 확산하는 거예요. HBM의 계속 연구해야겠다는 생각도 그때 한 거죠. 우리 연구실(테라랩)은 현재 전세계 대학 중 유일하게 HBM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연구가 호기심에서 출발했다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궁금한 걸 참지 못했어요. 대학에서도 수업을 빼먹고 도서관에서 살았어요. 학점은 바닥이었습니다. 아마 카이스트 역대 교수 중 최저 학점으로 임용된 교수일 거예요.(웃음) 학생시절에서 줄 서서 밥 먹는 시간이 아까워 도시락 싸 와서 벤치에서 먹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때는 유일한 낙이 모르는 분야 책을 읽는 거였는데, 한 챕터만 읽은 뒤 혼자 책 한 권을 쓰곤 했어요. 남의 걸 받아들이기보다는 나만의 세계, 내 이론을 만든 거죠."

그는 서울대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했는데, 박사도 미국에 가서는 물리학을 전공했다. 이 또한 호기심이 발단이 었다. 그는 "도서관 옆자리 학생이 『플라즈마 물리학』이라는 책을 보고 있었는데, 궁금해서 나도 읽게 됐다"며 "그 책을 읽고 인류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물리학으로 전공을 바꾸게 됐다"고 말했다. 1994년 대학원을 졸업한 뒤, 당시 등장한 넷스케이프라는 인터넷 브라우저를 보고 반도체를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는 삼성전자에 입사해 2년간 D램을 개발했다.

"호기심만으로 매년 새로운 분야에 뛰어들기 어려웠을 텐데요. "분야를 한 번 넘을 때마다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용어조차 생소하니까요. 그래서 처음엔 학부 1~2학년 심정으로 공부합니다. 무조건 다 외워버려요. 그게 5~10년 지나면 지식이 되고, 어느 순간 희열을 느끼는 정점이 오더라고요. 마치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금광을 찾는 기분이었어요. 정점을 찍으면 심심해져서 또 새로운 분야를 찾는 겁니다. 사실 지금은 HBM에 살짝 흥미를 잃은 상태이긴 합니다. 나만 알아야 재밌는데, 지금은 전 국민이 HBM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웃음) 요즘 저는 엔비디아가 눈독 들이고 있는 단백질과 관련된 생물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논문 안 읽고, 신기(神氣)로 예측하는 교수로도 유명합니다. "HBM·AI 반도체 시대를 예측해서

데, 한 챕터만 읽은 뒤 혼자 책 한 권을 쓰곤 했어요. 남의 걸 받아들이기보다는 나만의 세계, 내 이론을 만든 거죠."

그는 서울대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했는데, 박사도 미국에 가서는 물리학을 전공했다. 이 또한 호기심이 발단이 었다. 그는 "도서관 옆자리 학생이 『플라즈마 물리학』이라는 책을 보고 있었는데, 궁금해서 나도 읽게 됐다"며 "그 책을 읽고 인류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물리학으로 전공을 바꾸게 됐다"고 말했다. 1994년 대학원을 졸업한 뒤, 당시 등장한 넷스케이프라는 인터넷 브라우저를 보고 반도체를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는 삼성전자에 입사해 2년간 D램을 개발했다.

"호기심만으로 매년 새로운 분야에 뛰어들기 어려웠을 텐데요.

"분야를 한 번 넘을 때마다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용어조차 생소하니까요. 그래서 처음엔 학부 1~2학년 심정으로 공부합니다. 무조건 다 외워버려요. 그게 5~10년 지나면 지식이 되고, 어느 순간 희열을 느끼는 정점이 오더라고요. 마치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금광을 찾는 기분이었어요. 정점을 찍으면 심심해져서 또 새로운 분야를 찾는 겁니다. 사실 지금은 HBM에 살짝 흥미를 잃은 상태이긴 합니다. 나만 알아야 재밌는데, 지금은 전 국민이 HBM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웃음) 요즘 저는 엔비디아가 눈독 들이고 있는 단백질과 관련된 생물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논문 안 읽고, 신기(神氣)로 예측하는 교수로도 유명합니다. "HBM·AI 반도체 시대를 예측해서

그런 말을 종종 듣는데, 생각의 방식을 바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나 샘 올트먼, 삼성전자, 웨일스트리트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요. 그러니 그들의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그런 고민 속에서 제가 할 일을 찾습니다. 매일 새벽 3~4시에 일어나서 출근할 때까지 이런 생각만 하다 보니 타율이 높아졌다고 생각해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던 일을 멈추고 메모를 합니다. 학생들에게도 논문을 읽지 말라고 합니다. 발표된 논문은 최소 10년 전에 나온 아이디어거든요."

김 교수가 삼성전자를 떠나 카이스트에 온 것도 자유로운 환경에서 협력하며 호기심을 발휘하고 싶어서다. 김 교수는 "협력을 좋아하다 보니 자유로운 연구가 가능한 대학이 가장 잘 맞는 일터"라며 "산업체에 남았다면 돈은 많이 벌었겠지만, 카이스트에서 하고 싶은 연구를 하는 지금의 행복지수가 훨씬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김 교수와 한 부서에서 근무한 동료 한 사람만 삼성전자 신임 파운드리사업부장(사장), 경계현 전 대표이사, 이정배 전 메모리사업부장이다.

"한국이 AI 반도체 패권 잡는 것이 목표"

교육자로서 김 교수의 꿈은 한국의 반도체 인재를 세계 무대 곳곳에 진출시키는 것이다. 그는 "TSMC가 세계 반도체 시장을 뒤 흔들 수 있었던 건 중국인 네트워크 덕분"이라며 "테라랩 출신 연구자를 중심으로 한국이 AI 반도체 패권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의 목표"라고 말했다. 그의 연구실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100여명 중 약 40%가 애플·구글·오픈AI 등 실리콘밸리에서 HBM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다.

후학 양성에 대한 고민도 깊으실 텐데요.

"이대로 인재가 많이 풀린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한 가지 희망은 있어요.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던 친구가 연구도 잘하진 않더라고요. 내신이 좋고 학점이 좋으면 정답 맞는 건 잘하는데, 도전은 잘 못 해요. 그래서 저도 다양한 학생을 뽑아요. 길러보니까 학점 3.3 정도가 제일 잘하더라고요.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학생이 아직은 많습니다. 교육 시스템도 이런 학생을 길러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해요. 암기식 교육은 안 돼요. 소통하고 협력하는 교육을 받은 인재만 그렇게 자랄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대학 입시에 모든 걸 걸면 우리 미래가 위험합니다."



김 교수는 학생들과의 토론 시간을 가장 즐긴다. 그는 "매일 지도 학생들의 이름을 공평하게 불러 주기 위해 신경 쓴다"며 "학생들은 내게 선생님 같은 존재"라고 말했다.

HBM
고대역폭메모리(High Bandwidth Memory)
겹겹이 쌓은 D램을 수직 연결해 데이터 처리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인 고부가가치·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한 번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어 속도가 매우 빨라 AI 반도체에 필수품으로 떠올랐다.



D램 수직 적층
자료: SK하이닉스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집 파실 분 - 셀러 스페셜!

최소 비용, 최대 효과, 최고가 판매 전문 노하우

1. 집값 - 셀러레포트
2. 홈 인스펙션/Class A Contractor
3. 지붕, 거더, 인스텍션
4. 히팅/에어컨 인스텍션
5. 터미이트 검사
6. 홈워런티
7. 현재 소유 보험 리뷰
8. 크레딧 리뷰, 관리 방법

- **패어팩스 싱글 \$795,000**
방 4, 화장 2, 2레벨 싱글, 495/66/395, 조지타운(대학, 트윈부룩 풀, 전부 안그라운드, 리모넨, 새 지붕, 새 가전, 새 HVAC, 새 화원, 새 마루, 새 카펫 (지하 방, 풀베스, 우드 fireplace) 선택, 페인트, 워드아웃
- **옥톤 싱글 렌트 \$3,600**
방 4, 화장 2, 최고 2, 아틀란틱 넓은 정원, 조용한 동네, 123/66/267/495/286, 미디어 힐
- **애너데일 콘도 렌트 \$1,800**
3층, 방 1, 화장, 세탁기, 전부마루, 리모넨, 미츠/Hmart 인근, 236/295, 1,000sqft, DC, Amazon 12마일
- **센터빌 터킨 뒤 오피스 렌트 \$2,100**
1,250 sqft

① 프로협상전문가 ② 공격적 마케팅전문가 ③ 24/7 언제나 연락가능 ④ 신속 정확한 일 처리
⑤ 대기 셀러/바이어 다수 보유 ⑥ 클로징 후 철저한 지속 관리

부동산 전문 브로커 황계실 571-239-6054

GSHwangRealty

맞춤 융자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융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융자 상업융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US이주투어 **아주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수 23-24년 새 VVIP 버스운영! 40년 무사고! 전미주 고객만족도 1위!**

북프랑스+벨기에 7일 \$2299+항공료
 ▶ 12/22 파리, 루브르 박물관, 베르사유 궁전, 브뤼셀 그랑팔라스, 루앙, 웡플리르, 몽생미셸 내부관람과 야경(외판) 등
이태리 1주일 7일 \$1999+항공료
 ▶ 12/25 리오, 삼바 챔피언 페레이드입장료, 이과수폭포(브라질/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리마, 쿠스코, 마추피추, 나스카(정비행기 포함) 등
서유럽 11일 \$3399+항공료
 ▶ 12/21 **핵심 7일** \$2299+항공료

40th ANNIVERSARY **꿈결 같은 여행 40년! 아주투어 40년!**
 아주투어가 올해로 창사 40주년을 맞이 했습니다. 1984년부터 한결같이 미주 한인들을 위해 내달려온 40년 고객 여러분과 함께한 40년은 아주에게는 꿈결 같은 여행이었고 보람이었습니다. 아주는 창사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024년에는 좀 더 특별한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아주 세계일주! 매달 스페셜 투어를 선보입니다. 기대해주세요!

튀르키예(터키) 완전일주 10일 \$1299+항공료
 ▶ 12/9 동서양의 문화가 공존 하여 아시아와 유럽의 길목인 나라
 고귀한 역사지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나라
 아름다운 자연이 있어 볼거리가 너무 많은 나라
 너무나 맛있는 음식이 있는 기다리고 있는 나라
 튀르키예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베스트 프렌드인 나라

참사 40주년 빅 이벤트
여태까지 이런 요금은 없었다!
 이스탄불(톱카프궁전, 성소피아성당, 블루모스크, 히포드롬 광장), 카파도키아(괴뢰에 아외박물관, 데린쿠유, 파사바 계곡, 비둘기 골짜기), 콘야, 페르게, 안탈야, 파묵칼레, 에페소(원형극장, 스킴라스티카 목욕탕, 하드리아누스 신전, 에페소 교회, 사도요한의 교회 및 무덤, 아르테미스 신전, 버가모 교회), 아이발록, 입살라 등

아프리카+UAE **16일** \$12500 → \$10499+항공료
 ▶ 2/26/2025(1차 마감), 10/15 가이드 동행! **아주관광 단독팀 보장** **초특급 사파리 패키지!**
 세렝게티 국립공원 & 옹고옹고롱 국립공원 사파리
 아람에메리트, 케냐, 짐바브웨, 보츠와나, 탄자니아, 잠비아, 남아공 7개국
핵심!! Victoriafalls 직항 2일 절약! 사파리 항공이동 1일 절약!
빅토리아폭포 최고급 호텔인가 확인!
 1. Victoria falls 특급 호텔 2. 6성급 사파리 캠프 호텔
 3. 에어콘 프리미엄 사파리 차 4. 사파리투어를 항공이동으로 2일 절약
 5. 두바이 레이저 빔 & 분수쇼 관람하며 식사
 6. 테이블 마운틴에서 익스프레스 케이ابل카

심바 축제 13일 \$4999+항공료
 ▶ 3/6/25 리오, 삼바 챔피언 페레이드입장료, 이과수폭포(브라질/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리마, 쿠스코, 마추피추, 나스카(정비행기 포함) 등

멕시코 크루즈 5일 \$469
 ▶ 2/2/2025 **인솔자 동행! 세금 포함**
 2020년 리노베이션한 10만톤, 승무원수 1,108명, 총탑승객수 2,984명

여행 고수와 경험자들이 선택하고 추천하는 아주는 고품격 투어! 차원이 다릅니다!!

알래스카 8일 \$1499+항공료
 ▶ 5/24, 6/7, 28, 7/12, 26, 8/16, 30, 9/13
 시애틀, 주노, 스카그웨이, 클래시어베이, 케치칸, 빅토리아 섬, 시애틀

22년 디스커버리 프리세스호(14만5천톤) | 가이드 동행, 유람선+세금+항공사 포함

바하멕시코 5일 \$499+항공료
 ▶ 2/2, 4/28, 5/12 가이드 동행
 롱비치, 카타리나 섬, 엔세나다, 롱비치

서지중해발코니 10일 \$3099+항공료
 ▶ 3/26, 10/31 가이드 동행, 항공료 포함
 바르셀로나, 마르세유, 제노바, 나폴리, 메시나, 발레타(몰타)

멕시코리베라 6일 \$549+항공료
 ▶ 1/23, 2/25, 6/3, 7/15, 8/12, 9/9, 10/2 가이드 동행
 롱비치, 카보 산루카스, 엔세나다, 롱비치

웨스턴카리브해 8일 \$1099+항공료
 ▶ 5/24, 8/27, 10/31 가이드 동행
 포트 로드데일, 코즈멜로아탄, 벨리즈 시티, 마이아말, 포트 로드데일

남태평양 A 피지/호주/뉴질랜드 B 뉴질랜드/호주
 A 13일 \$3799+항공료 B 11일 \$3299+항공료
 ▶ 12/11, 2/11/25, 3/18, 4/9 가이드 동행!

아주 남태평양투어가 명품인 이유?
 1. 럭셔리하고 편안한 여행 2. 최고의 만족도
 3. 항공이동으로 버스 타는 8시간 절약
 4. 최고급 식사와 맛있는 특식 5. 반지의 제왕 촬영지
 6. 지상의 천국 피지 7. 반딧불 등골 포함

아주모국관광 **27인승 VVIP 버스** **초특급 5atar 호텔** **전국 각지 맛집 탐방** **한국지사 직접운영**
 단독출발인자 꼭 확인하세요! 여행의 질이 업그레이드됩니다!
제주에서 해바라기 2기 멤버 심명기 무료공연 중

제주+모국일주 10일 ▶수 \$2199+항공료
제주+모국일주+서울 11일 ▶수 \$2499+항공료
 순천만 국가정원, 광주, 거제성서호텔 신관, 해남 해상케이블카, 여수오동도, 통영, 거가대교, 제주2박, 부산 국제시장과 전통시장, 해운대, 울산, 경주, 안동 하회마을, 단양 평창오대산, 전나무 숲길, 서울

일본 3일 \$499+항공료 (부영 호텔(신라 가능) ▶일)
서해/제주 7일 \$1499+항공료 ▶수
서해/남해 5일 ▶수 \$999+항공료
동해/제주 6일 ▶일 \$1299+항공료

라디오 서울 창사 33주년 기념! 아주관광 함께하는
2025 봄꽃일주 7일 ▶3/26, 4/2 \$1599+항공료
 경복궁 한복 입고 관광, 청와대, 롯데 타워 관광, 곡성 증기 기관차 탐승, 덕유산 곤도라 탐승, 한국 민속촌 관광, 산형 한방 체험(공진당 만들기 배급 침뜸 체험), 남해 봄꽃의 산지 관광

일본 7일 ▶3/18, 25 \$1999+항공료 (인간선 2회 온천호텔 3박, 로얄호텔 및 특급식당, 인천 공항에서부터 7시간 동행)
일본 14일 ▶3/18, 25 \$3599+항공료
베트남/캄보디아 7일 ▶1/17, 31, 2/14, 28, 3/7, 21, 4/2, 16 \$1199+항공료
 하노이, 엔트, 하롱베이, 티투섬, 씨엠립, 앙코르 톰, 앙코르 왓, 톰 레이크 등

정통미서부 **라스베가스 2박/트레이즈 아일랜드 호텔**
아주 단독! 32인승 24년 새 VVIP 버스!
다수의 24년형 새 VVIP 버스로 편안하게 모십니다!
아주단독! 스피어는 아주와 함께합니다!
라스베가스 스피어 한인 컨트랙은 아주 뿐!
아주단독! 요세미티 마리포사 그로브 국립공원과 컨트랙으로 아주만 방문합니다!

2개 상품이 하나로 가격 & 일정!
미서부 완전일주 7일 ▶월 \$1469+항공료 (라스베가스 조인)
요세미티/샌프란시스코 4일 ▶목 \$889+항공료 (라스베가스 특급호텔 숙박)

그랜드/브라이스/자이언/앤티elope캐년 4일 핵심! 4대캐년을 한번에! **라스베가스 조인** ▶월 \$809+항공료

그랜드 싸클+세도나 7일 미서부 대표 관광지 총망라! **라스베가스 조인**
 아이츠 국립공원, 모뉴먼트밸리, 그랜드 캐년, 엔젤로프 캐년, 자이언캐년, 브라이스캐년, 라스베가스 ▶월 \$1339+항공료

미동부 5일 ▶수, 토 \$1150+항공료
8일 ▶수, 토 \$1700+항공료 (울드페브 숙박)

캐나다동부 6일 ▶목 \$1399+항공료
캐나다록키 6일 ▶월 \$1199+항공료

명품유럽 **전문인솔자+현지가이드!** **복/서유럽 2인입체 가이드! 전일정/전국간 함께해 인솔자가 고객의 니즈를 바로바로!** **CST기침 & 보험규모 꼭 확인!**

엘리버드 유럽 스페셜 \$700 엘리버드 DC (12월 31일까지 예약시)
\$700 환인 찬시 북유럽/발틱 7개국 14일 \$5999 → \$5299+항공료
\$700 환인 찬시 북유럽 4개국 11일 \$4999 → \$4299+항공료
 ▶ 2025년 5/19, 6/4, 16, 7/15, 8/5, 19
\$200 환인 찬시 발틱일주 3개국 6일 \$2199 → \$1999+항공료
 ▶ 2025년 5/27, 6/12, 24, 7/23, 8/13, 27

서유럽 11일 \$3599 → \$3399+항공료
이태리일주 7일 \$1999+항공료
 ▶ 12/21 **핵심 7일** \$2299+항공료

아주투어는 전일정 초특급 호텔! 새로지어서 내세우지 않는 파리 몰란 호텔 꼭 확인!
 런던 1박(힐튼 or 크라운 플라자) | 파리 2박(초특급 Pullman Paris) | 스위스 1박(알프스산 바로 앞! 초특급 호텔) | 밀라노 1박(초특급 호텔) | 볼로냐 1박(초특급 호텔) | 로마 3박(로마 시내안 머무르 or 에르미타 호텔)

튀르키예/그리스+산토리니 튀르키예일주 9일 \$1999+항공료
 13일 \$3999+항공료
국내선 항공료 포함, 산토리니 섬 숙박, 양복 항공, 특급 호텔과 특식 **그리스+산토리니 7일** \$2799+항공료

동유럽/발칸 13일 \$3299+항공료
동유럽일주 7일 \$2099+항공료
크로아티아/발칸 9일 \$2599+항공료

스페인/포르투갈/모로코 13일 \$2999+항공료
스페인/포르투갈 11일 \$2499+항공료

이집트/요르단 12일 ▶1/9/25, 2/13 \$3799+항공료
이집트일주 10일 \$3299+항공료 ▶1/9/25, 2/13
 특급! 나일강크루즈! 카이로 5성 힐튼호텔! 대피라미드!

남미 **모객을 1위! 5성급 호텔을 쓰는데! 타사와 일정을 꼭 확인하세요!**

남미일주 13일 ▶12/9, 1/6/2025, 13 \$4699+항공료
브라질/아르헨티나 7일 ▶12/1, 1/11/2025, 18 \$2599+항공료
페루일주 7일 잉카, 마추피추, 나스카 ▶12/9, 1/6/2025, 13 \$2199+항공료
우유니사막+볼리비아 5일 ▶12/9, 1/6/2025, 13 \$2199+항공료
우유니사막+볼리비아+페루일주 12일 ▶12/9, 1/6/2025, 13 \$3999+항공료

파타고니아 15일 \$11900+항공료
&빙하탐사 크루즈 파타고니아/아르헨티나/칠레 ▶12/2, 1/6/25
칠레/빙하탐사 크루즈 10일 \$8449+항공료
 ▶12/2, 1/6/25

하와이/마우이 ▶월, 목 출발, 공항 왕복편 호텔朝食, 오후 5시 입주 호놀룰루 시내관광!

와이키키 리조트 **와이키키 메리엇** **해트 레시 와이키키** **쉐라톤 와이키키**
 4일 \$849+항공료 4일 \$1049+항공료 4일 \$1149+항공료 4일 \$1299+항공료
 5일 \$999+항공료 5일 \$1249+항공료 5일 \$1349+항공료 5일 \$1629+항공료

인도/네팔 14일 ▶2/10/25 \$4899+항공료
 가이드 동행!

아주 골프투어 원하는 모든 품의 라운딩 아주에서!
하프문베이/하딩팍 3일 \$1200 ▶수시 **코스타리카 7일** ▶수시 \$1699+항공료
파피힐스/하프문 베이 3일 \$1200 ▶수시 **파라다이스 칸쿤 5일** ▶수시 \$1899+항공료

가족, 친구에게 여행을 선물하세요! 아주투어의 **여행상품권 AJUMONEY!** **아주 한국행 항공 아주가 답이다!** 마지막으로 전화주세요! 최저가 비행기 티켓! **고객만족도 전미주 1등** **40년 무사고 전미주 고객만족 1등** 아주투어!

213 - 388 - 4000 Toll free 1-800-933-3011 | OC지사 714-534-1200

Instagram usajutour.com

서울 02 - 522 - 8686 | info@usajutour.com | 무료픽업 가든그로브, 놀원, 토렌스, 가디나, 플러턴, 세리토스, 부에나파크, 다이아몬드바, 로렌하이츠, 엘바인(4명이상) 등 해외여행은 출발 2개월전, 국내항공 여행은 출발 3주전 결제하는 LA출발 비수기 주중요금이며, 모든 패키지 요금은 2인1실 기준입니다. 상기 모든내용은 사전통보없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에 의한 일정의 변경이나 취소는 책임이 없으며, 상품은 조기 매진될 수 있습니다.

우리말 바꾸기

‘반듯이’ 나 ‘반드시’ 나

‘반듯이’와 ‘반드시’는 대표적으로 헷갈리는 단어다. 두 단어의 발음이 [반드시]로 같기 때문에 말할 때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적으려고 하면 어느 쪽인지 아리송하다.

‘반듯이’는 ‘반듯하다’에서 온 부사로 ‘비뚤어지거나 기울거나 굽지 않고 바르게’라는 뜻이다. “자세를 반듯이 해야 한다” “허리를 반듯이 펴라” “신발을 쭉지 말고 반듯이 신어라” 등처럼 쓰인다. ‘반드시’는 ‘틀림 없이 꼭’을 나타내는 부사어다. “반드시 시간에 맞춰 와라”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다” “언젠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등과 같이 쓰인다. ‘반듯이’와 ‘반드시’는 부사어로, 부사는 뒤에 오는 말을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 동사나 형용사를 수식하므로 부사의 주인은 동사·형용사인 셈이다. 주어·목적어와는 직접적 관계가 없다. 그렇다면 “~을 반듯이 세우겠다”는 구조의 문장을 보자. 수식하는 말인 ‘세우겠다’에 어울리는 단어이지만 따져보면 된다. ‘반듯하게 세우겠다’는 뜻이므로 ‘반듯이’는 맞게 쓰인 것이다. “~을 ○○○ 따르겠다”의 경우엔 어떤 것이 들어가야 할까? ‘틀림없이’ ‘기필코’ ‘꼭’ 등의 내용이 와야 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반드시’가 적절한 말이다. ‘반듯이’와 ‘반드시’가 헷갈릴 때는 ‘반듯하게’로 바꾸어 보면 된다. 바꾸어서 말이 잘 되면 ‘반듯이’로 쓰고, 말이 통하지 드시’로 적으면 된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는 긴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유홍주 칼럼

북한은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국



유홍주 한미자유연맹 상임고문

지난 11월 20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또다시 대북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4일에는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엔인권이사회도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한 바 있다.

11월 20일 제3위원회는 61개국이 공동 제안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만장 일치로 채택했는데, ‘3대 악법’으로 불리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그리고 평양문화어보호법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유엔 제3위원회 결의는 2005년 이래 20년 연속 대북인권 결의문을 채택한 것이며, 지난 4월의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의는 2003년 이래 22년 연속으로 채택한 대북 결의였다. 이렇듯 북한의 인권 문제는 이제 유엔의 상시 관심사가 되어버렸다.

매년 그랬지만 금년에도 제3위원회는 장문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의 전문은 31개 항목을 통해 북한의 인권현황, 유의점, 경과보고 등을 실었고, 본문에서는 28개 항목을 통해 북한의 반인권 사태들을 적시하고 개선을 촉구했는데, 방대한 내용을 자세히 기술했다. 결의문은 본문에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D)가 지적했던 비인도적 구금, 성폭력, 자의적 처형, 정치적·종교적 사유에 의한 구금이나 사형, 공개처형, 공정한 재판 부재, 연좌제 처벌, 강제노동 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정치범 수용소 문제, 강제이주 및 이동의 자유 제한, 북한에 송환된 탈북자에 대한 보복이나 고문 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여성, 아동,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과 성문제에 의한 차별을 강도높게 비난했고, 납치자

계를 선언한 것에 대해서도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한 인권 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유엔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11월 22일 북한 외무성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문에서 “결의안이 실상을 왜곡 날조했다”며 “우리의 건전한 문화와 윤 리도덕을 지키기 위한 입법까지 시비하는 것은 유엔이 보장하는 자주권 존중과 내정 불간섭 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는 맞지 않는 주장이다. 유엔총회 산하에는 여섯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제3위원회는 사회적, 인도적, 문화적 문제 등을 다루는 위원회다.

유엔헌장 제13조는 차별금지 및 인권과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연구를 시행하고 대책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헌장 62조는 인권 문제를 순수한 국내문제로 보지 않고 국제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유엔이 인권문제를 토의하거나 국제협약이나 선언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나 제3위원회는 이 유엔헌장에 따라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유엔의 기구다.

즉 유엔도 인권을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국경을 초월하는 인류보편적 가치로 보고 있으며, 그래서 어떤 나라가 자국민의 인권을 탄압하는 경우 안보리 결의를 통해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보호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북한의 인권 문제가 국제적 논쟁거리가 되는 것은 한국의 입장에서도 자랑스럽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은 일이다.

한반도가 모든 이들이 인간으로서의 기본 권리를 존중받으면서 살 수 있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해 본다

와 전쟁포로의 본국 송환을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도 반복했다. 그리고는 북한 당국을 향해 지적사항들을 개선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대화를 촉구했다. 특히, 금년에는 처음으로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 양문화어보호법 등에 의해 사상, 양심, 종교, 표현, 평화적 집회와 결사 등의 자유가 온라인 및 오프라인상에서 심각하게 제약 받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는 틀린 말이 아니다. 2020년에 제정한 반동 사상문화배격법은 청소년들이 한국영화를 보고 듣거나 입수 하다가 적발되면 다른 청소년들 앞에서 체포·처벌 함으로써 극심한 공포감을 유발하는 법으로 금지 대상 미디어들을 나열하고 지역 공무원들의 책임 과 위반자에 대한 엄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

2021년에 제정된 청소년교육보장법은 청소년들의 반사회주의적 풍조를 척결하는 교육을 강제하는 내용이며, 2023년에 만들어진 평양문화어보호법은 한국 문화와 언어습관 등을 차단하며 한국 식 말투를 쓰면 처벌하는 법이다. 그럼에도 북한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낮에는 주체사상을 배우고 밤에는 한국문화를 즐긴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한국의 문화와 음악에 심취하고 있는 것 같다. 또한 결의문은 북한이 ‘한반도내 적대적 두 국가관

J네트워크

‘화웨이 악연’

뭐야 이 친구, 왜 아직 여기에 있어?’ 제2기 집권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중국 정책을 설계하는 자리에서 이 말을 할지도 모른다. 화웨이(華為)를 두고 하는 얘기다.

지난 임기 내내 거세게 몰아붙였다. 첨단 반도체 공급을 끊었고, 시장에서 몰아냈다. 우방에 압력을 가해 화웨이의 통신 장비를 끊도록 했다. 장업자의 딸 망원저우를 캐나다에 억류시키기도 했다. 그런 화웨이가 아직도 살아있다니... 화낼 만도 하다.

오히려 더 강해졌다. 작년 시판된 5G 스마트폰 ‘메이트 60’은 이를 상징한다. 여기에 쓰인 7나노 반도체에 세계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최근에는 2번 접는 폴더블폰을 선보여 또다시 업계를 놀라게 했다. 미국 제재를 뚫고 거둔 ‘쾌거’에 중국인들은 환호했고, 화웨이는 중국 시장에서 애플을

밀어내고 스마트폰 시장 2위 자리를 탈환했다.

화웨이는 한 방 더 터트릴 심산이다. 후속작 ‘메이트 70’을 발표한 것이다. 그들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스마트폰’이 될 것이라고 자신한다. 여기에 사용되는 운영체제는 ‘鸿蒙(하모니OS)’이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기반 애플리케이션은 아예 구동이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 시스템과는 완전 결별하겠다는 선언이다.

鸿蒙OS를 사용하는 스마트 기기는 약 10억 대에 달한다는 게 화웨이의 주장이다.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공장, 자동차, 가전 등의 스마트 기기로 확대되고 있다. 뒤에 국가가 있다. 중국 정부는鸿蒙OS 소스를 기부받아 전 산업으로 확산하고 있다. 화웨이가 중국 기술 자립의 중추 역할을 하는 셈이다.

화웨이에 새로운 임무가 하나 떨어졌으니, ‘반

도체 서플라이체인 구축’이 그것이다. 블룸버그 통신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설계에서 생산, 포장 등에 이르는 자체 공급망 구축의 핵심에 화웨이를 뒀다. 정부가 돈을 투자하고 관련 기업, 연구소(대학) 등을 대거 참여시킨다. 자력갱생의 상징 화웨이를 주저앉히지 않고는 기술 패권 경쟁에서 이길 수 없게 됐다. 트럼프가 화웨이를 다시 때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트럼프가 첫 대통령 임기를 마칠 때까지만 해도 전자 발목을 찬 채 캐나다에 억류됐던 망원저우는 최근 그룹 순회 회장에 올랐다. 내년 3월 말까지 말는다. 그는 워싱턴에서 진행될 트럼프 대통령 취임 장면을 선전 집 소파에 앉아 TV로 지켜보게 된다. 악연이다. 트럼프 2기 미-중 기술 패권 공세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한우덕 차이나랩 선임기자

김철민

합동법률사무소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완벽한 Team-Work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최선을 다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취업/가족초청이민
- 종교비자/이민
- E2 비자/투자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국제합작투자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사업체 매매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부동산 투자 개발

대표 703-973-8700 |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천 앞 빌딩 3층

단연 최고의 신문!! 중앙일보

워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일등부동산

뉴스타부동산

대표 브로커
라니 오
703-899-8999
410-417-7080



http://부동산학교.com 5주 숙성반

부동산 학교

수업료: \$250 (교재비: \$100) **시간이 절약됩니다.**
뉴스타와 함께 성공하세요.

>>> 온라인 라이브 강의 <<<

- 한국식 폭집게 수업
- 온라인 수업 병행
- 합격후 10주 실전교육
- 기본 컴퓨터 교육
- 자체 제작 한글교재와 문제 풀이

따라만 오시면 100% 합격보장!!

**모든
공사비는
후불
(집 파신 후)**

리스팅 접수 **개런티**

어떤 집이라도 30일 안에 팔아드립니다!!

“뉴스타에서 집을 예쁘게 공사한 후 동네 최고 가격을 받아드립니다”



뉴스타가 새롭게 소개하는 커머셜 리스팅

**메릴랜드 안전지역
리커 & 와인
(건물포함)**
주매상 \$5만
현재 주인 거의 일하지 않고 있음
비즈니스만 \$2만

**메릴랜드 위트지역
Beer & Wine**
주매상 \$38,000
아주 안전한 지역
\$900K

**버지니아 알링턴
일본 식당**
새로 꾸민 식당
렌트 \$14,500
\$8만

- ✓ 테넌트 때문에 골치 아프십니까?
- ✓ 렌트비가 낮거나 안보내는 경우
- ✓ 잦은 고장으로 시도때도 없는 연락
- ✓ 타주나 한국에서 관리가 힘든 경우

**일 잘하는
뉴스타 매니지먼트에
맡기세요!
맡기는 순간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뉴스타 매니지먼트에 맡기시면...

- 좋은 테넌트 선별과 선정
- 매달 렌트비 컬렉트
- 각종 수리
- 테넌트 사소한 문제 해결
- 고문 변호사와 테넌트 법적 분쟁 해결
- 해당 집/건물/주기적 점검/보수/수리
- 그 외 건물주 100% 대행

버지니아

 \$1,150,000 페어팩스 싱글 방 4, 화장실 4+1, 차고 2, 페어팩스 코스토크 근처에 있는 멋진 집, 업그레이드	 \$1,300,000 페어팩스 싱글 방 4, 화장실 4+1, 차고 2, 벽돌로 지어진 넓은 사이즈에 고급 주택, 0.7 에이커	 \$850,000 페어팩스 싱글 방 4, 화장실 2+1, 차고 2 넓고 이쁜 집, 마루바닥, 넓은 뒷뜰
 \$1,900,000 페어팩스 새 싱글 방 4, 화장실 3+1, 차고 2, 연탄이 초등학교, 모던하게 지은 멋진 새 집	 \$2,300,000 옥튼 새 싱글 방 5, 화장실 4+1, 차고 2 1.8 에이커의 넓은 땅에 지어진 새 집, 워턴 HS	 \$2,200,000 맥클린 싱글 방 4, 화장실 4, 차고 2, 모던한 스타일로 지어진 멋진 고급 주택, 맥클린 HS
 \$2,290,000 폴스처치 새 싱글 방 6, 화장실 6+1, 차고 2, 4천 sqft가 넘는 넓고 모던한 새 집, McLean HS	 \$2,400,000 비엔나 새 싱글 방 5, 화장실 5+1, 차고 2, 모던한 새 집, 4200sqft, Madison HS	 \$2,600,000 맥클린 싱글 방 6, 화장실 7+1, 차고 2, 5500sqft, 모던한 새 집, McLean HS
 \$565,000 알렉산드리아 싱글 방 4, 화장실 3, 지방부터 에어컨까지 전부 다 새로 수리한 집	 \$200,000 버크 콘도 방 2, 화장실 1, 너무 좋은 가격, 전체적으로 다 업그레이드	 \$899,000 페어팩스 싱글 방 6, 화장실 4, 차고 1, 전체적으로 다 수리한 멋진 싱글 홈, 우드슨 고등학교
 \$470,000 우드브릿지 콘도 방 2, 화장실 2, 차고 2, 별문베이에 있는 고급 콘도, 선착장 옆	 \$780,000 페어팩스 타운홈 방 4, 화장실 4+1, 차고 1 4층 구조로 되어있는 멋진 타운홈	 \$789,000 페어팩스 타운홈 방 3, 화장실 2+1, 차고 2 모던하게 잘 꾸민 멋진 타운 홈, 마루바닥

메릴랜드

 \$630,000 Sykesville 타운홈 방 3, 화장실 3+1, 차고 2, 2년된 새 타운홈, 아주 모던하고 고급, 집 뒷면으로 숲	 \$985,000 N. Potomac 싱글홈 방 6, 화장실 3+1, 차고 2 집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 마루바닥
 \$1,025,000 N. Potomac 싱글홈 방 5, 화장실 3+2, 차고 2 고급스러운 벽돌집, 넓은 부엌, 마루바닥	 \$1,325,000 포토맥 싱글홈 방 4, 화장실 3+1, 차고 2, 좋은 위치에 있는 고급 주택, 넓고 고급스러운 부엌, 넓은 테라스
 \$895,000 포토맥 싱글홈 방 4, 화장실 3, 차고 2	 \$680,000 케이더스버그 싱글홈 방 4, 화장실 3+1, 차고 2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 넓은 뒷뜰
 \$1,110,000 베데스다 싱글홈 방 5, 화장실 3, 차고 1, 최근에 전체적으로 다 업그레이드 한 멋진 싱글 홈	 \$765,000 엘리컷시티 싱글홈 방 5, 화장실 3, 차고 2, 센티넬 HS,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 한 이쁜 집
 \$879,000 메리얏츠빌 싱글홈 55+, 방 3, 화장실 3 잘 안나오는 길, 풀집, 3800sqft가 넘는 넓은 집	 \$450,000 엘리컷시티 타운홈 방 3, 화장실 2+1, 차고 1 편리한 교통에 컨디션 좋은 타운홈

DC

 \$1,200,000 워싱턴 디씨 SE 타운홈 방 4, 화장실 3+1 새집, 모던한 스타일의 고급 타운 하우스
 \$1,150,000 워싱턴 디씨 NW 타운홈 방 4, 화장실 3+1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 된 고급 타운 하우스
 \$980,000 워싱턴 디씨 NE 타운홈 방 3, 화장실 2+1 최근에 새로 지어진 고급 타운 하우스
 \$2,500,000 워싱턴 디씨 NW 싱글홈 방 5, 화장실 5+1, American 대학 근처에 아주 고급 동네에 새 집, 3050 sqft의 넓은 땅
 \$1,250,000 워싱턴 디씨 NW 싱글홈 방 5, 화장실 3+2, 차고 2 베네치아 바로 옆, 고급 동네, 좋은 가격

뉴스타부동산

VA 703-496-4989
MD 410-618-4989

8230 Leesburg Pike, Suite 650,
Tysons Corner, VA 22182
3444 Ellicott Center Dr. #105,
Ellicott City, MD 21043 롯데타워 우체국 맞은편



내집 가격이 궁금하다?
컬러 사진으로 만들어진
집값 리포트를 신청하세요.
1-800-406-4989

시 설

문재인 매년 96억 썼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 0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9일 국회 예결위에서 단독 처리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한다. 예결위에서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회가 예산을 증액하려면 반드시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지역화폐 등 '이재명표 예산' 반영 요구가 정부 반대에 부딪치자 정부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을 줄인 감액안만 반영해 예결위에서 통과시켰다.

문제는 민주당의 감액이 굉장히 정략적인 점이다. 민주당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원), 검찰 특검업무경비(506억원)와 특

사상 초유 야당의 예산 단독 의결은 이재명 방탄용 "공존 정치" 발언 진심이라면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로 매년 5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썼다. 2022년 3월 박수현 당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연평균 96억원의 특활비를 편성했는데 이는 역대 정부 최저 수준"이라고 자랑했다. 자신들은 연간 96억 원씩 썼으면서 현 정부 대통령실은 82억원 중 한 푼도 못 쓰게 한다는 걸 누가 납득하겠는가.

후안무치·내로남불의 극치다.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예산 삭감(505억→8억원)도 현 정부 발목 잡기 성격이 강하다. 민주당은 또 상속세·증여세법 등 일부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해 부결 방침을 밝혔는데 이 또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의 감액예산

안 일방 처리는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정치 공세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민주당은 예산뿐 아니라 감사원장·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까지 추진하며 사정 당국을 옥죄고 있다. 이 대표를 살리자고 조직폭력·마약·담배·카드 등 일반 범죄 수사까지 지장을 준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이 대표는 얼마 전 "서로 공존하는 정치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는데, 그게 진심이라면 예산안 단독 처리는 점교 여당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 여당도 정치적 현실을 고려해 민주당 요구 중 일부는 전향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친정에 끌려다닐 게 아니라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막추 중재에 힘써야 한다.

인보사 1심 무죄... 식약처 각성할 계기 돼야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TG-C'(제품명 인보사케이주)의 성분을 속여 정부 허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4년4개월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아직 1심인 만큼 예단할 필요는 없지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 되돌아볼 사안이 많다.

인보사는 코오롱티슈진이 1999년부터 2000억원 이상을 들여 개발한 관절염 치료 주사제다.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임상시험을 진행했고, 2017년 국내에서 먼저 허가를 받아 판매를 시작했다. 그런데 미국에서 3상 도중 핵심 성분인 '연골 유래 세포'가 사실은 '신장 유래 세포'인 것으로 밝혀졌다. 곧바로 국내 허가가 취소됐고, 고의로 성분을 속였다는 이유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다.

인체에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는 신약에 대해 보건당국은 간간하게 평가해야 한다. 보고된 성분이 실제와 다르다면 판매를 중단하고 이유와 영향을 면밀히 따지는 것도 당연하다. 하지만 오류나 실수 가능성, 부작용 등을 판단하기에 앞서 사기로 단정하고 수사 의뢰부터 하는 것은 올바른 순서가 아니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일단 임상시험을 중단시킨 뒤 주성분 착오 원인과 인체 영향을 과학적으로 검토했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자 1년 만에 임상 재개를 승인했다.

반면에 국내에선 판매 중단은 물론이고 추가적인 개

발과 안전성에 대한 연구가 전면 중단됐다. 코오롱 관계자들은 검찰과 법원에 나가 고의가 아니라고 해명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돈을 써야 했다. 어쩌면 식약처가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책임 논란에서 미리 발을 빼기 위해 법적 조치부터 취한 것이 아닌지 의심도 든다. 재판부도 판결문에 "과학적 분야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어떠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 다. 새겨들어야 할 지적이다.

신약이나 바이오 관련 신제품을 개발하는 우리 기업들을 현장에서 이런 어려움을 수없이 겪는다. 식약처는 해외 사례부터 찾아보고, 없으면 일단 퇴짜를 놓는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하소연이다. 과학적 효능과 부작용이 없다는 실험 결과를 아무리 제출해도 요지부동이라고 한다. 몇 년 전 혁신적인 개발품으로 돌풍을 일으킨 삼푸 제품도 똑같은 과정을 밟아 판매 금지를 당했다가 성분을 바꿔 간단히 재기했다.

식약처가 최악의 갑질을 한다는 불멘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다. 바이오산업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분야다. 위고비와 코로나 백신에서 보듯, 신약 개발의 경제적 효과는 어마어마하다. 하지만 우리 식약처는 황우석 사태 이후 보수적 태도를 넘어 보신주의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판결이 각성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정우성의 선택



양성희의 시사각각
時 視 各 角

는 두 사람만이 알 일이다. 어쨌든 원치 않는 생명이었지만 낳기로 했고, 결혼제도 밖에서라도 부모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하니 그 선택을 존중하면 될 일이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아이를 편견 없이 바라봐 주면 될 일이다.

할리우드에서나 봄 직한 일이었다. 그 어떤 뉴스보다 뜨겁게 미디어와 SNS를 달렸다. 배우 정우성 얘기다. 열여섯 살 연하의 모델 문가비가 낳은 아이가 자신의 아들임을 인정했다. 사귀는 사이가 아니었고, 결혼은 하지 않지만 양육비 지급 등 아버지 역할은 다 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 '개념' 연예인인 그의 감추어진 사생활이 드러났다. 그에게 오래 사귀어 온 일반인 여자친구가 있다는 등 사생활에 대한 여러 얘기가 흘러나왔다.

대중의 반응은 엇갈렸다. 달라진 세태를 반영한 그의 선택을 쿨하게 봐주자는 의견 못잖게 날 선 비판도 나왔다. 어떤 이들은 난민도 받아들이자던 그가 자기 자식은 품지 않는 건 위선이라고 비판했다. 돈이 전부가 아니고 아이에게는 온전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게 최선이라는 '정상 가족' 프레임이다. 그러나 양쪽 부모 가정의 아이가 한 부모 가정의 아이보다 행복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원치 않은 아이에 대한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이 결혼한 부부가 끝내 아이로 인한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아이에게 상처 주는 일도 없을 것이다.

평소 '정치적으로 올바르' 발언과 반듯한 이미지에 비춰 더욱 실망했다는 반응도 많았다. 의외의 모습에 배우로서 이미지 추락은 불가피하지만, 그렇다고 전 인격적으로 비난받을 정도는 아니다. 사생활 문제고, 정치적 견해와 성적 태도 사이엔 별 연관성이 없으니 말이다.

통상 원치 않는 아이가 생겼을 때 남자의 반응은 낙태를 종용하거나, 임신·출산의 모든 부담을 여자에게 맡기고 외면하거나, 결혼하거나 셋 중 하나다. 정우성은 여기에 '결혼하지 않되 아이를 책임지는' 새로운 선택지를 추가했다. 물론 정우성이거나 가능한 선택지이기도 하다. 과거에도 재벌이나 정치인 등 권력자들이 혼외자를 낳는 일이 적잖았다. 그때는 축적제도의 유산 속에서 은밀한 삶을 강요했다면, 이번 경우는 남녀가 자발적 선택과 판단을 거쳐 출산 사실을 공개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물론 두 사람 사이의 진실이 무엇인지

지난해 우리나라의 혼외 출생아 수는 1만 명을 넘었다. 혼외 출생률도 지난해 처음 4%를 넘었다. 세대 차이가 있지만, 결혼제도 밖 다양한 가정에서 출생하는 '비혼 출산'에 대한 시선이 달라지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서 올해 20~29세 젊은이의 43%는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답했다. 이런 답변은 10년 전보다 12.5%포인트나 늘어난 것이다.

비혼 출산은 세계적 트렌드이기도 하다. 202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혼외 출산율은 평균 41.9%다.

우리 사회에도 다가온 '비혼 출산' 다양한 가족 인정하는 계기 되길 저출생 해결 위해서도 중요 과제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등 13개국의 혼외 출산율은 50%에 달한다. 우리보다 출산율 자체가 높은 이들 나라의 공통점은 성 격차 지수(Gender Gap)가 낮고, 등록동반자 제도 등 경직되지 않은 혼인제도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성 평등과 비혼 출산에 대한 편견 없는 태도가 결과적으로 출산율을 유지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극심한 저출생 사회지만 우리나라의 임신·출산·육아 지원 정책은 대부분 '정상 가정 부부' 중심이다. 그간 동거 커플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비혼 출산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어떤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도 차별받지 않고 돌봄 양육을 온전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갖추는 게 시급하다. 앞서 2020년 방송인 사유리는 전자 기증을 통해 '자발적 미혼모'의 삶을 선택하면서 "아이를 갖고 싶는데,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과 결혼하고 출산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중앙일보

구독신청·배달 1588-3600 / 080-023-5001 홈페이지 http://jfe.joongang.co.kr	시장·발행인 홍정도 주필 이허경
광고 접수 02-751-5555 / FAX 02-751-5806 홈페이지 http://ad.joongang.co.kr	편집인 최훈 신문제작총괄 고현곤 편집국장 김종윤
기사제보 및 기사 관련 물품·불만 처리센터 02-751-9000 / 080-023-5002 / E-메일 sarangbang@joongang.co.kr	1965년 9월 22일 창간 / 1965년 7월 30일 등록번호 7100195 본지는 신문윤리규약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저작권(©) 중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안내전화 02-751-5114, 9114	구독료 월정 20,000원 1부 1,000원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 보기

주 5일 발행되는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내 손안에 신문! 언제든 편리하게!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정성웅 보험을 선택하는 이유

자동차 보험료 할인!!



갑자기 확 오른 자동차 보험료 때문에 걱정이시죠?
그런데도 다른 보험을 알아 보시기를 주저하고 계신가요?
보험료를 절감하시려면, 한 해마다 꼭 “비교” 해 보시고
보험을 갱신하셔야 합니다!

정성웅 보험

{ 나에게 꼭 맞는 알뜰한 자동차 보험료를
지금 확인하세요~! }



정성웅 보험

T. 703.825.2945 Fax. 703.532.4750
14641 Lee Hwy., Unit 108, Centreville, VA 20121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

Sung Hwang & Kim

합동 법률 사무소 MD, DC, VA



VIRGINIA OFFICE

7353 McWhorter Place, Suite 202
Annandale, VA 22003



MARYLAND OFFICE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한인들의 모든 법률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것이 저희 로펌의 목표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후회없는 선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0/month
고문 변호사
membership program

- **완벽한 영어** 와 **풍부한 재판 경험** 으로 법정에서 자신있게 여러분을 변호합니다.
-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할 경우 변호사 비용 무료**
- **첫상담 무료** (특정분야 제외)

주요 업무 분야

- 교통사고 보험청구/의료비/수리비/휴직 보상
- 민사소송
- 비즈니스 설립/매매/분쟁
- 사업체 고문변호사 제도
- 보험
- 손해배상
- 의료사고
- 부동산 매매/Lease/분쟁
- Liquor License

한국 비즈니스
오너들을
대표해서
FOX NEWS,
CNN 인터뷰



찰리 성 변호사
CHARLEY C. SU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JD

약력
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LLP
DLA Piper, LLP (세계 2위 로펌)
Gilbert & Randolph, LLP
전, 하워드 한인회 회장
Maryland Court of Appeals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Maryland
District of Columbia Court of Appeals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피터 황 변호사
PETER K. HWA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JD

약력
Dickstein Shapiro, LLP
Baker Botts, LLP
New York Court of Appeals
Maryland Court of Appeals



폴 김 변호사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University of Maryland School of Law, JD
- 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Public Health, MPH

약력
Cole Schotz, P.C.
Ober Kaler, PC
Blank Rome LLP
Gardner Carton & Douglas LLC
MD, DC

Sung Hwang & Kim | LLP
www.shkfirm.com



Columbia, MD

T. 410.772.2324
Toll Free: 888.772.3001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Annandale, VA

T. 703.436.1444
Toll Free: 888.772.3001
7353 Mcwhorter Pl., Unit 202
Annandale, VA 22003

Wheaton, MD

T. 410.772.2324
Toll Free: 888.772.3001
11262 Georgia Ave., 2nd Fl.
Wheaton, MD 20902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703.712.7151
T. 571.405.6540

경제 & 연예/문화 Sports

빙·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JoongAng Ilbo Monday, December 2, 2024 C

연방파산법이 지정한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
소송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용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1,000
(치과 임플란트)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평있는 정식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중언어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T. (703)303-4556 / T. (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워런 버핏
가치 투자의 대가
3분기 TOP 매수 종목
• 도미노피자
• 풀코퍼레이션
• 시리우스 XM
TOP 매도 종목
• 애플
• 뱅크오브아메리카
• 리버티 미디어 시리얼 C-A



빌 애크먼
행동주의 투자
3분기 TOP 매수 종목
• 나이키
• 브룩필드
• 씨포트 엔터테인먼트그룹
TOP 매도 종목
• 힐튼 월드와이드
• 레스터랜드 브랜즈 인터내셔널
• 캐나다인 퍼시픽 엔자스티



마이클 버리
숫의 전설
3분기 TOP 매수 종목
• 정동닷컴
• 바이두
• 알리바바
TOP 매도 종목
• 허드슨 퍼시픽 프로퍼티즈
• 리얼리얼
• 아메리칸 코스탈 인슈어런스



스탠리 드러켄밀러
매크로 분석 천재
3분기 TOP 매수 종목
• 나테라
• S&P 지역은행 ETF
• 쿠팡
TOP 매도 종목
• 비스트라 에너지
• 엔비디아
• 마이크로소프트



론 바론
월가의 긍정왕
3분기 TOP 매수 종목
• KKK & Co
• 이퀴닉스
• CBRE그룹
TOP 매도 종목
• 코스타그룹
• 바이두
• 엔비디아



* 9월 30일 기준, 자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NH투자증권

월가 '투자 대가 5인' 포트폴리오 빅테크 팔고 소비자·중국 담았다

'트럼프 2.0시대'를 앞두고 글로벌 금융 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미국 경제 전망도 마냥 밝지는 않다. 트럼프發 무억전쟁이 예고됨에 따라 일각에선 경기 침체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살아남는 투자 전략은 무엇일까. '월가의 전설'로 불리는 투자 대가 5인(워런 버핏·스탠리 드러켄밀러·빌 애크먼·마이클 버리·론 바론)의 포트폴리오를 통해, 금융시장의 격변기에 대비하는 투자법을 들여다봤다.

최근 인공지능(AI) 패러다임을 이끄는 엔비디아 등 대형 기술주를 두고 투

대형 기술주 싹름현상 줄어 버핏, '최대 보유종목' 애플 1억주 팔아 드러켄밀러, 엔비디아주식 전량매도 바론도 테슬라·엔비디아 비중 떨어내

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고점론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가운데, 탄탄한 실적을 기반으로 또 다른 랠리의 시작이라는 기대도 동시에 받고 있어서다. 그런데,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13F 보고서'(운용 자산 1억 달러 이상인 기관의 분기 투자보고서)에 따르면 월가의 투자 대가들은 '빅테크 축소'라

는 뚜렷한 흐름을 보여줬다. 스탠리 드러켄밀러가 이끄는 듀케인패밀리오피스는 엔비디아에서 3분기 완전히 팔았다. 21개월간 보유했던 엔비디아 21만 4060주를 전량 매도했다.

금융주도 처분 대상, 버핏 BoA 20% 매도 워런 버핏이 운영하는 투자회사 버크셔 해서웨이는 최대 보유 종목인 애플 주식을 4억 주에서 3분기 3억 주로 25% 줄였다. '테슬라를 19달러에 산 남자'로 유명한 론 바론의 바론캐피탈도 테슬라와 엔비디아의 비중을 떨어냈다. 그동안 미국 증시를 이끌던 대형 기술주에 싹름이던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셈이다. 개인 투자자들도 대형 기술주 중심에서 다양한 분야의 저평가된 주식에 분산투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후정 유안타증권 애널리스트는 "3분기 M7(엔비디아·마이크로소프트·애플·알파벳·아마존·테슬라·메타)의 이익 창출 능력이 재확인되면서 빅테크 주가 강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7월부터 기술주 자금 유입이 줄어들면서 조심스러움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주도 투자 대가의 주요 처분 대상에 올랐다. ▶2면 '월가'로 이어집니다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JJL Contractor Inc.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대형 교통사고 전문
전직검사 한인2세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같은사고! 다른결과!
ROWE WEINSTEIN & SOHN PLLC
로우와이스틴 & 손로폼
Attorneys and Counselors Law

사고가났습니까? 즉시 연락주세요.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 부터 사망사고 까지-

사고처리
v 교통사고 직후 현장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v 교통사고, 경찰에 신고 해야 하나요?
v 접촉사고 후 가해자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나요?
v 목격자는 필요하나요?

형사처벌
v 교통사고 후 구속되는 경우
v 음주운전 (DUI, DWI)
v 각종 교통 티켓
v 면허정지 (Licenses Suspension)
v 면허취소 (Licenses Revocation)
v 감옥형벌 (Jail Penalty)

교통사고
법정 변호사
전직 검사
교통사고
법정 변호사

패트릭 플로레스 Patrick Flores
노승훈 Robinson S. Rown
로버트 캐들 Robert Cadle

교통사고 법정변호사 pflores@rowepllc.com
교통사고 법정변호사 rrowe@rowepllc.com
Super Lawyers The Washington Post Magazine 선정 Top 100 법정변호사
교통사고 법정변호사 rcadle@rowepllc.com

MD 301-770-4710 VA 703-887-1037 888-340-7583 www.rowepllc.com
909 Rose Avenue, Suite 640 N. Bethesda, MD 20852
7010 Little River Turnpike Suite #300 Annandale, VA 22003
2200 Pennsylvania Avenue, N.W., 4th Floor Washington, D.C., 20037
FAX 301-770-4711

Mrs. Lee 사무장
전화: 909
703-887-1037
www.rowepllc.com

반즈앤노블의 재기에서 배우는 것

아마존의 온라인 서점에 완패했던 대형 서점 체인업체 반즈앤노블이 13년 만에 되살아나면서 한 편의 드라마를 쓰고 있다. 지난달 11월 18일 미국의 한 지역신문에 뉴욕주 마운틴 키스코의 반즈앤노블 개업을 도시 전체가 축하했다는 기사가 실렸다.



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 상공회의소 멤버들이 나와서 축하 리본을 잘랐고, 그 지역 출신 작가도 참석했다. 동네 사람들은 “서점이 문을 닫은 지난 13년 동안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모른다”면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모임 장소, 선물가게, 카페 등의 역할을 함께 했던 서점이 돌아와서 반갑다”고 기뻐했다.

비슷한 시기에 워싱턴DC의 조지타운대학에 입학하는 반즈앤노블 역시 화제다. 2011년 회사가 망하면서 철수했던 바로 그 자리에 다시 입학하기 때문이다. CNN은 ‘반즈앤노블이 컴백한다’는 제목으로 서점의 주요 구성과 시민들의 환영 모습을 주요 기사로 다루었다.

반즈앤노블은 2023년부터 본격적인 확장세를 시작해 올해에만 58개의 서점을 개장했고 내년에도 이런 추세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한다. 특히 2022년 아마존이 오프라인 서점 68개의 문을 닫았는데, 그중 반즈앤노블이 매장을 이어받아서 개점한 곳이 있어서 흥미롭다. 2011년 아마존의 거센 도전을 이겨내지 못한 채 파산했던 반즈앤노블의 과거를 생각하면 더 극적이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2019년 반즈앤노블의

알고리즘 맞서 정성스러운 추천 온라인에 맞서 특별한 공간경험 확립성에 맞서 직원에게 재량권

CEO로 취임한 제임스 돈트다. 그는 영국 독립 서점 돈트책방의 창업자이며 영국 최대 서점체인 워터스톤의 경영진이기도 하다. 지난 4월 영국 팟캐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돈트가 밝힌 내용을 정리하면 성공비결은 업의 본질, 고객 경험, 그리고 직원의 재량권인데,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다.

돈트는 자신의 책방을 시작할 때부터 ‘책’에 초점을 두었다. 기존의 책방이 알파벳 순으로, 또

는 출판사별로 획일적인 진열을 하고 있을 때 돈트는 테마별, 국가별, 작가 특성별로 진열하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다. 반즈앤노블 CEO로 취임한 후에도 ‘좋은 책’ ‘독자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을 최우선으로 진열했다. 출판사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가장 좋은 자리에 진열해주는 관행을 단호하게 없앴다. 돈트 취임 전 출판사 중심으로 책을 진열했을 때 25%에 달했던 반납률이 ‘책’을 중심으로 진열하니 9% 이하로 떨어졌다. 반납률 25%는 서점의 공간과 인력이 그만큼 비효율적으로 사용된다는 의미이므로 이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책’ 그 자체에 더욱 집중했다고 설명한다.

두 번째 성공 요인은 고객의 공간 경험이다. 서점은 고객들이 수시로 오고 싶은 곳이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확고한 철학이다. 온라인 서점이 알고리즘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도록 한다면, 오프라인 서점은 직원들이 정성껏 큐레이션한 책을 진열하여 낯선 공간을 탐험하는 느낌을 느끼도록 했다. 서점을 방문한 고객들은 마치 다른 사람의 서재에 들어가 보는 듯한 신선한 자극을 받았다. 또 공간에 머무는 동안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카페와 선물가게, 문구점을 함께 배치했다.

지역 출신 작가의 책을 특별하게 전시해서 그 지역 고객의 자부심을 북돋웠고, 서점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드는 ‘환대의 장소’가 되도록 했다. 심지어 돈트는 계절마다 그 계절을 느낄 수

있도록 조명, 인테리어, 책 배치 등을 다르게 했다. 온라인 서점에서 느낄 수 없는 ‘경험’이 사람들을 서점으로 불러들이는 셈이다. 그는 연령대별로 서점에 와서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색선별로 섬세하게 디자인했다. 고객의 방문률이 급증한 것이 ‘고객 경험’의 중요성을 입증한다.

마지막 비결은 직원에게 결정권을 준 것이다. 본사에서 획일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큐레이션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인정했다. 그래서 서점마다 자신만의 독특한 큐레이션을 통해 개성 있는 매력을 가질 수 있었다.

직원들은 직접 손으로 자신이 왜 이 책을 추천하는지를 써서 진열대에 붙여두는데 고객의 호응이 좋다고 한다. 직원들이 독자의 반응에 신속하게 응대할 수 있는 것도 자신들이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효능감에서 비롯된다. 그가 경영하는 돈트서점, 워터스톤, 그리고 반즈앤노블에 이르기까지 이직률이 낮은 것은 당연한 결과다.

독립서점을 창업하고 운영하던 사람이 어떻게 대형 체인점을 살리려고 들어갔느냐고 묻자 그는 ‘오프라인 서점의 생존은 체인점과 독립서점을 가리지 않고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는 알고리즘, 빅데이터보다 사람을 믿는다고 했다. 한 사람의 리더가 올바르게 할 때 조직에 미치는 영향은 이렇게 크다. 그 반대로 마찬가지다.

이은형 국민대 경영대 교수·대외협력처장

▶ 1면 '월가'에서 이어집니다

금융 관련 종목은 ‘트럼프 2기’ 최대 수혜를 입을 섹터로 꼽히는 만큼 예상 외 선택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때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0년 도입했던 금융 규제를 완화했다. 이로 인해 미 금융 기업의 주가가 일제히 강세 전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론 바론은 3분기 아차캐피탈그룹·MSCI·킨세일캐피탈그룹 등 금융 섹터 종목을 다수 정리했다. 워런 버핏도 보유 중인 뱅크오브아메리카의 종목을 20% 넘게 떨어졌다.

큰손들이 금융주를 내다 파는 이유 중 하나는 장기 성장에 대한 의구심이 깔려 있다. 금리 인하는 장기적으로 은행 수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은행 수익의 핵심 지표인 순이자마진(NIM)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국내 금융주의 경우 밸류업과 맞물리며 매력이크게 줄어들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정욱 하나증권 애널리스트는 “트럼프 당선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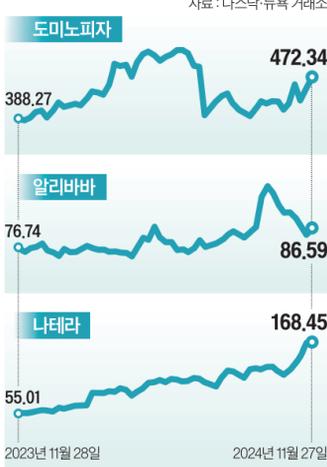
미국 국채 금리 상승으로 글로벌 금융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한국내의 경우 2000억원 규모의 기업 밸류업펀드를 조성하고 투자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은행주의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 대선과 맞물린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월가 대가들은 각자의 투자 관점으로 기회를 포착했다. 마이클 버리가 이끄는 사이언에셋매니지먼트는 최근 중국 시장에 대한 투자를 크게 확대했다. 알리바바·징둥닷컴·바이두를 추가 매수했다.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으로 시장 하락에 베풀어서 막대한 부를 쌓아 올린 그가 이번에는 중국 투자의 액셀을 밟은 것이다. 실제로 시장에선 중국 둔화 직격탄을 맞고 있는 중국 대표주가 ‘저가매수’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확산 중이다.

지난달 28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한국내 투자자가 최근 1개월간 홍콩 증시에서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도 알리바바(1087만 달러)였다. 하지만 중국의 부양책 기대에 급등했다가

경기침체 우려 방어주 등 집중 매수 버핏 도미노피자, 애크먼 나이키 투자 버리는 알리바바 등 중국 투자 '엑셀'

종목별 최근 1년 주가



실적 우려에 내림세로 돌아서는 변동성 확대는 유의할 점이다.

“미국 주식 고점 우려, 공격투자 신중해야”

경기 침체를 대비한 바이오·소비재 등 ‘경기 방어주’는 3분기 월가 큰손의 집중 매수 대상이었다. 버핏은 3분기 도미노피자와 수염용품업체 폴코퍼레이션을 신규 매입했다. 도미노피자는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구축했고, 경기 하강 기류에 저항력을 갖춘 기업으로 꼽힌다.

빌 애크먼의 퍼싱스퀘어캐피탈은 나이키에 14억 달러를 투자했다. 드러켄 밀러는 바이오테크업체 나테라를 대규모 매입했다. 헬스케어 분야는 기술 발전의 발목을 잡는 족쇄를 풀겠다는 트럼프의 수혜주로도 꼽힌다.

전문가들은 한국내에서도 경기 방어주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으로 본다. 대표적 경기 방어주는 바이오·통신·필수 소비재 등이 있다. 불황에도 꾸준한 실적을 내기 때문에 ‘불황형 주식’으로도 불린다. 이 가운데 최근 통신주의 상

승세가 눈에 띈다. 김흥식 하나증권 애널리스트는 “한국내 통신 3사 주주 이익환원 규모가 증가 추세인데 앞으로 글로벌 4차산업 패권 경쟁이 심화하면, 현재 통신규제 정책이 육성 방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증시 폭락을 대비하는 ‘현금화’도 두드러진다. 버핏은 애플과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보유주식을 대거 처분하면서 새로운 갈아타기보다 현금 확보에 주력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9월 말 기준 현금 보유량은 325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다. 버핏은 주주 서한에서 “우리도 주식을 사고 싶지만, 위험이 거의 없고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 한 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선 ‘미국 주식의 미래에 대한 경고’라는 해석이 나온다. 서상영 미래셋증권 연구원은 “미국 기관마저 주식 비중을 줄여가는 가운데, 한국내 투자자가 고점 우려가 있는 미국 주식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현정 기자

당신보다 당신의 집을 더 잘 아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저희 슈나이더 내집장만 부동산 팀은 열심히 노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야의 프로로서 일 잘하는 부동산입니다

승경호 부동산

Realtor
K. Soung

DC 리커 + 건물
디씨 리커와 코너 건물조합
주인이 리커 운영하실분
2억55십만원

DC 리커
35만불, 2000 SF, 청고있음
렌트 6천불

인기 많은 K-HOT DOG집
포토백열, 한달 1만3천불 순수익
주인없이 운영중 25만불

페어옥스몰
버블티, 핫도그 양념치킨 해보실분
2000SF, 렌트8000불, 7만불

버지니아 상가건물
3백10만불
1,800에이커, Cap Rate 7%, 임차 57개
연순수익 \$218,000

DC 유명 델리
주인 없이 운영
판매가 50만불, 정부입주 건물 1층
순수익 = 주인운영 없이 1만불

상가 임대수입
DC - 식당입주한 건물 2억6십만불
3000 SF 복층, 월순수입 \$11,000

상가 임대수입
상가 8백만불, 비엔나, 버지니아
연순수익 52만불, 8백만불

페이팩스 오피스 두개 매매
\$520,000
페이팩스 코퍼하우스와 가까운 위치

Beer and Wine
주매상 17,000불, 버지니아 복권 매출 3등
VA 알링턴, 25만불

상가 임대수입
발티모어상업건물(임대수입)
1백1십만불, 1층식당+2층+3층아파트

Beer and Wine
주2만불수입, 렌트 \$7200+Cam, 2,300SF
MD 볼로제지카운티, 조경부 임대계약, 50만불

상가 임대수입
백골민, 단독건물
4억5십만불, 6,000 SF

단독건물
애니메이션 최고 상권, K-Market 건너편
임대, 드라이브 트루잇을, 2500 SF,
식당, 커피샵, 맥주 전문점이면 좋은 자리

주재원, 사무실, 창고, 공장 전문, 미국 전역 가능합니다
뉴욕, 텍사스, 테네시, 조지아,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메릴랜드, 디피

703.928.5990
k@dwellwashington.com

승경호

“내집장만”을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ONE REALTYONEGROUP CAPITAL

7925 Jones Branch Dr, #3100
McLean, VA 22102
703.928.5990

Realty One Group은 미 전국에 15000명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일하는 미국 부동산 회사입니다
워싱턴 최초 부동산 전문신문 “내집장만” 발행인

THE SCHNEIDER TEAM
www.dwellwashington.com

내 집 장만
부동산 전문 소식지

숨은 비용 세비율, 투자 성과 깎아먹는다

포트폴리오 비용으로서의 세금

장기간 지속된 인플레이션 때문에 모두가 물가에 민감하다. 어떻게든 지출과 비용을 줄이는 데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비용은 투자에서도 관심이 많은 사항이다. 투자 포트폴리오와 연관된 비용에는 펀드 비용, 어드바이저 비용, 트레이딩 비용 등이 일반적으로 언급된다. 이들은 보통 사전에 공유되거나 자료 등을 통해 나와 있기 때문에 쉽게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자주 간과되는 포트폴리오 비용이 있다. 세금이다. 이 비용은 미리 공유되지도 않고,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 미리 알기 어렵다. 나중에라도 알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포트폴리오 성적을 끌어내리는 데 있어서는 비중이 큰 비용일 수 있다. 잘 알려진 비용들에 비해서 그 영향은 더 클 수도 있다.



장기 투자 성공의 열쇠는 세비율을 얼마나 철저히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

**세후 실질 수익에서 상당한 비중 차지하는 손실
펀드 운용과정서 발생하는 배당·양도소득과 연관
세비 줄이는 것이 가장 큰 비용 줄이는 효과 견인
순수 투자용 연금·자문형 투자성 생명보험 활용**

▶세비율

투자 관련 비용으로서의 세금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세비율이라는 것이 있다. 일반 뮤추얼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s)의 수익률이 펀드의 배분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을 빼면 과연 얼마나 감소하는지를 측정하는 '메트릭'이다. 펀드 연구기관인 모닝스타가 주로 이를 계산한다.

은퇴계좌라면 상관없는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는 무관할 수 없는 비용 메트릭 일 것이다. 펀드의 배분활동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비율은 높을 것이다. 세비율이 높다는 것은 수익에서 세금으로 흘러나가는 비용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이런 비용을 흔히 '세무 드래그(tax drag)'이라고도 부른다.

세비율은 자주 거론되지 않고, 투자자들이 잘 생각해보지도 않는 비용이지만 세후 실질 수익을 생각할 때 상당

한 비중을 차지할 수 있다. 미국의 대형주, 소형주, 채권형 펀드 등의 펀드 운용비와 세금 비용을 비교하면 세금 비용이 펀드 운용비의 1.5~2배 정도가 나온다.

수년 전의 통계이지만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추산된다. 대형주와 소형주 펀드 투자자들은 '세무 드래그'으로 인해 평균 1.8%의 수익률을 손해 봤고, 채권형 펀드 투자자들의 세금에 따른 수익 손실은 약 1.3%에 달했다.

쉽게 드러나지 않고, 확인하기도 어려운 비용이지만 펀드 운용비나 투자자문사의 자문비 등과 비교할 때 훨씬 큰 비용이 나가고 있는 셈이다.

▶세비율은 어디서 오나

펀드의 세비는 결국 펀드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배당이나 양도소득에

서 온다. 이들이 투자자들 레벨에서 적용되기 때문이다.

세비율이 높은 펀드는 정기적으로 배당을 많이 지급했거나 투자운용 전략이 양도소득을 자주 발생시키는 전략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모든 배분이 같은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다. 배분의 성격에 따라 세율은 달라질 수 있다.

펀드의 배분 활동에 대한 세금은 크게 세 종류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최악의 경우로 일반소득으로 간주되는 배당이다. 이를 'non-qualified' 배당이라고 부른다. 단기 양도소득이나 이자소득 역시 일반소득으로 간주되는 것들이다.

일반소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을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부분이다. 고소득자들의 경우 최고 41% 가까이 될 수 있다. 장기 양도소득이나

'qualified' 배당은 좀 낫다.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돼 있지만 고소득자는 최고 24% 정도 될 수 있다. 가장 좋은 것은 세금이 없는 것이지만 아직 이익 실현이 안된 보유 종목이나 지방채 등이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결국 배분 활동의 종류에 따라 현저히 다른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기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것보다 장기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것이 당연히 유리할 것이다. 이런 차이를 포트폴리오 운용에 잘 반영할 필요가 제기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왜 세비율이 중요한가

세비율은 다른 투자비용과 마찬가지로 실질 투자성적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모닝스타의 펀드 범주에 포함되는 대부분의 펀드들의

세비는 1~2% 범위다.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이 6.4%라고 가정하고 세비가 2.1%라고 하면 수익의 3분의 1이 세금으로 나가는 결과가 된다. 수익만 놓고 보면 30% 이상의 손실률이라고 볼 수도 있는 비용일 것이다.

이에 반해 '플랫'한 수익률을 기록한 채권형 펀드 등을 가정하면 실질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투자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주식형 펀드와 채권형 펀드를 혼합한 밸런스 포트폴리오를 가정하면 해당 기간 수익률에 따라 세비를 제외한 중장기 수익률이 사실상 제로 퍼센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세비율 관리

투자 포트폴리오 관리 시 펀드의 운용비나 자문비 등도 중요하지만 일반 펀드의 세비도 무시할 수 없는 비용이 될 수 있다. 특히 은퇴계좌가 아닌 일반 투자금이라면 이에 따른 실질 수익의 손실이 상당할 수 있을 것이다.

펀드의 운용비를 절약하고 자문비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나 세비를 줄이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가장 큰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를 위해 가장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옵션 중 하나는 순수 투자용 연금이나 자문형 투자성 생명보험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순수 투자용 연금 역시 자문 서비스를 받는 형태의 연금인데 일반 투자성 연금에 비해 그 자체로도 비용이 현저히 낮다.

게다가 펀드를 사고팔거나 해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이나 펀드의 배분 활동에 따른 세비는 내지 않을 수 있다. 물론, 돈을 인출할 때는 인출금 전체나 일부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 부분이 당연히 있다. 하지만 연금안에서 투자하는 동안에는 일반적인 투자처럼 세비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효과적인 세비 관리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

중앙일보는 워싱턴 한인사회를 위해 새 지평을 열어갑니다. **힘찬출발 중앙일보가 함께합니다.**

마우리 왓츠 & 단 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Watts & Park

“교통사고는 왓츠 & 박”

40여년의 법정 변호사 경력 / 3대째 변호사 집안

한국어 상담 안 윤희 (Yoon Hee Ahn)
히스패닉 상담 Consultas en Espanol ~ 하이디 살게로 (Haidee)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 할 경우 ———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 트럭사고, 자전거 사고 등 모든 교통사고 처리

▷ 사고로 인한 의료비 및 임금청구와 고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 해결

▷ 차수리, 렌트카, 병원 등 모든 일체를 도와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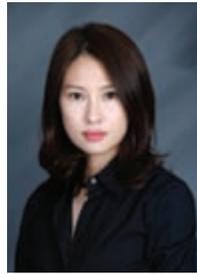
변호사
Maury B. Watts, III
Of Counsel
마우리 왓츠



변호사
Dan D. Park
단 박



변호사
Roopal Gupta
루팔 곱다



사무장
YoonHee Ahn
안윤희

저녁 & 주말 전화상담 가능!

Cell: 703-994-6643

무료상담 703.256.8797 / 301.495.5619 / 410.783.1220

7010 Little River Tnpk., Suite 200, Annandale, VA 22003

PART 19. 세일즈 늘리는 무기, 퍼널부터 만들자?

▷도대체 퍼널이 뭐길래?

“로컬 비즈니스 매출 증가를 위해 밤낮으로 애써도 왜 잘 안되는 걸까?” “해성처럼 나타나 고속 성장으로 경쟁사들을 훌쩍 뛰어넘는 신규 업체들의 비밀 무기는 무엇일까?” 사업주라면 누구나 생각해 보았을 질문이다.

▷해도 안 되는 방법 vs. 저절로 되는 방법?

고객과 세일즈를 늘리려고 다양한 방법과 노력을 쏟지 않은 사업주가 어디 있겠는가? 안타깝게도, 많은 이가 역부족이라 탓하며 쏟아버린 돈과 시간에 한숨을 내쉬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단순한 한두 가지에만 초점을 맞춰도 찾던 해답이 나타나는 신비함을 만날 수 있다. 그 단순하지만 로컬 스톡비즈니스를 살리는 비밀이 세일즈 퍼널이다.

▷세일즈 퍼널이 뭔데?

이미 아시는 분 또는 처음 듣는 분도 있겠지만, 세일즈 퍼널은 한마디로 효과적인 단계별 세일즈의 흐름이다. 웃음 나올 만큼 쉽고 간단한 세일즈 퍼널이라도 제대로만 사용하면, 고객 관심과 세일즈가 평평 쏟아지게 한다. 한번 만들어 놓으면 수십 명이나 수백 명, 그보다 훨씬 많은 관심 고객도 컨베이어 벨트처럼 최종 구매까지 쉽게 실어나른다.

생각날 때 전화하고, 우왕좌왕 비효율적 움직임이나, 그다음 행동을 그때의 생각이나 직관에 의지하는 것은 성공적인 세일즈의 큰 적이다. 반면에 세일즈 퍼널은 단순하고 편리하지만, 한 눈에 흐름과 과정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다. 이번 주에 처음으로 문의한 고객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일차적으로 자



윤필홍
IntelSystems대표

동 이메일과 문자를 받게 된 사람은 몇 명인지, 방문 약속을 해 놓은 숫자와 최종 세일즈 팔로업으로 소통 중인 숫자도 한눈에 보게 한다.

지난주 계약 완료된 고객 숫자와 이미 자동 발송된 리뷰 요청 숫자도 정확히 안다. 모든 단계를 한 눈으로 보며 누가 어느 단계에 들어와 있는지도 안다. 가장 효과적인 다음 행동이 준비

되어 있기에, 사업 매출에서 큰 차이를 만들 수밖에 없다. 이번 주 세일즈는 얼마나 될 것인지, 다음 주와 다음 달 예상 판매 액수까지 추측할 수 있다.

▷누구나 할 수 있다?

“어우, 아날로그 오퍼에겐 너무 복잡하고 넘기 힘든 벽이 아닐까?”하는 생각도 하겠지만, 어렵지 않다. 그리고, 한번 셋업 해두면 그대로 따라가면 얼마나 쉬운지 얼굴에 환한 웃음이 그려질 수 있다.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다. 아니, 실제로 해보면 훨씬 더 쉽고 편리하고, 자신감과 활력까지 치솟는다.

▷퍼널 한 눈에 보기

먼저, 퍼널을 큰 그림으로 보고 이해하자. 그리고, 함께 만들어보자.

-1단계: 관심 끄는 메시지/오피 (구글 사업체 프로필, 웹사이트, 디지털 광고, 소셜미디어 포스팅이나 소통까지)

-2 단계: 반응 고객에게 매력 회신 (문의나 반응하는 일차 고객에게 자동으로 전달하는 문자나 이메일, 첫 번째 전화 소통 또는 방문/만남)

-3 단계: 하나도 놓치지 않는 팔로업 방법 (단계별 중간소통)

-4 단계: 세일즈 후 소통 (감사 메시지와 고객 리뷰 요청 발송)

-5 단계: 차후 팔로업 또는 새 프로모션 전달

이렇게 다섯 단계의 퍼널이면 대부분 커버가 된다. 혹시 업종이나 사업의 특성상 필요 없는 것은 빼고 넣어야 할 단계를 추가해도 무방하다. 위의 흐름과 개념만 이해하면 시작할 수 있다.

▷구글 로컬 지역 광고, 세일즈 퍼널, 마케팅 문의, 무료 ebook ▷문의:703-337-0123, www.intelsystems.com

세법 상식



윤주호
CPA

비트코인 과세 및 절세

한국, 2027년부터 암호화폐 수익 과세 IRS, 비트코인 등 수익 감사강도 높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비트코인을 전략적 국가자산으로 비축하겠다는 공약은 취임하기도 전에 벌써 달성 중입니다.

친 암호화폐 인물들의 정부 요직 기용 등으로 암호화폐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분위기 속에 비트코인은 10만 달러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많은 코인 투자자들부터 과세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적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들은 ‘핫 월렛’과 ‘콜드 월렛’으로 불리는 암호화폐 전용 지갑을 이용해 국경을 넘나들 수 있어 뜻하지 않게 절세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J1비자나 F1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한 한국인이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한 후 이를 암호화폐 전용 지갑에 담아 한국으로 돌아가 매도해 수익이 났다면 이에 대한 자본 소득(Capital Gain) 세금은 없게 됩니

다. 만약 미국에서 이를 매수해 미국에서 매도했다면 비거주자로 세금보고를 하면서 이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한국은 아직도 암호화폐 매매에 따른 수익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이에 대해 이른바 ‘가상자산 소득세’를 과세할 방침이었으나 한국정부는 최근 세법개정안을 통해 과세 시점을 2027년으로 2년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하면서 비트코인 팔아 번 돈에는 세금을 내라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에 대해 논의 중인 국회에서는 12월 중 이 개정안을 확정할지 결정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국의 예를 들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해외 거래소를 통한 암호화

폐 거래는 투자자가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암호화폐 세금면제 국가는 싱가포르, 엘살바도르, 두바이가 있는 아랍 에미리트 등입니다.

해외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또 다른 조세 피난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2027년부터 암호화폐 거래 정보를 국가간 공유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 나가는 중입니다.

올해는 비트코인 ETF와 이더리움 ETF가 월가의 승인을 받으며 암호화폐가 제도권으로 진입한 가운데 국제세정(IRS)도 암호화폐를 통해 올린 수익에 대해 감사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2014년 암호화폐를 처음으로 투자 자산으로 인정했던 IRS는 10년만인 올해 7월, 디지털 자산 브로커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과세지침을 확정하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 수익보고를 강화한 게 핵심 내용입니다. 특히 암호화폐 판매로 인한 자본이득, 암호화폐 채굴 소득을 포함해 임금, 임대소

득, 도박상금 등 디지털화폐 형태로 받은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발생한 미신고 소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법을 준수하면서 암호화폐도 다는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거주지를 세금 우호적인 국가나 주로 옮기는 것 말고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면서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IRS는 암호화폐의 매매에 대해 주식이나 부동산의 양도소득과 동일하게 자본소득(Capital Gain) 세율로 세금을 매깁니다. 1년을 초과해서 보유하고 매도했을 때는 장기(Long Term) 자본 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 상의 혜택인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때 세율은 소득에 따라서 0%, 15%, 20% 중에 하나로 결정되어 과세합니다.

둘째, 은퇴계좌(IRA 계좌 등)를 통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나 이들 암호화폐 관련 상품에 투자하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ROTH IRA 경우 시간이 지나 불어난 자금을 대해 은퇴 후 비과세 혜택이 주어 집니다.

3450 Ellicott Center Dr. Suite 107, Ellicott City, MD 21043 / O: 410-696-2268 / F: 866-531-7541

리얼티 원 부동산

MONTGOMERY, HOWARD, ANNE ARUNDEL PRINCE GEORGE 카운티 전문

집을 예쁘게 꾸미는 것은 주택매매에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Realtor
지니 최
301-318-4242
Jinny19619@yahoo.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집을 예쁘게 단장 해 드립니다”

후원 투자 리스팅 집매매, 렌트 놓으실때 (자체 인테리어 소품 구비)

<p>SOLD</p> <p>Hanover</p> <p>\$580,000 타운홈, 방3, 화4, 차고2</p>	<p>UNDER CONTRACT</p> <p>Laurel</p> <p>\$589,000 싱글홈, 방4, 차고1, Upgraded</p>	<p>UNDER CONTRACT</p> <p>Edgewater</p> <p>\$575,000 싱글홈, 방3, 화2, 0.45에이커</p>	<p>UNDER CONTRACT</p> <p>Odenton</p> <p>\$465,000 타운홈, 방3, 화3</p>	<p>COMING SOON</p> <p>Perry Hall</p> <p>\$575,000 싱글홈, 방3, 화2</p>
<p>UNDER CONTRACT</p> <p>Catonsville</p> <p>\$395,000 싱글홈, 방4, 화2</p>	<p>UNDER CONTRACT</p> <p>Elkridge</p> <p>\$515,000 타운홈, 방3, 화3</p>	<p>UNDER CONTRACT</p> <p>Ellicott City</p> <p>\$475,000 타운홈, 방2, 화2.5, 차고1</p>	<p>UNDER CONTRACT</p> <p>Jessup</p> <p>\$389,000 타운홈, 방2, 화2</p>	<p>UNDER CONTRACT</p> <p>Ellicott City</p> <p>55+ Luxury \$425,000 콘도, 방2, 화2, 1,438sf</p>

《《《 렌트 매니지먼트 해 드립니다. 《《《》》》

정직, 신용, 친절로 도와드리겠습니다

Realtor
스테이시 양
443-668-0453
stacy4989@gmail.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RENT

집 렌트하기 원하시는 분들!!! 최선을 대해 도와드리겠습니다.

<p>RENTED</p> <p>Elkridge</p> <p>월 \$2,400 타운홈 방3, 화3</p>	<p>RENTED</p> <p>Sliver Spring</p> <p>월 \$3,500 타운홈</p>	<p>Germantown</p> <p>월 \$2,100 콘도 방2, 화2</p>	<p>Hanover</p> <p>월 \$2,650 타운홈 방3, 화3, 차고1</p>	<p>Germantown</p> <p>월 \$2,000 타운홈 방2, 화3 (지하실 제외)</p>	<p>Glen Burnie</p> <p>월 \$1,750 콘도 방2, 화1</p>
---	---	---	--	---	--

영국 주름잡은 사교계 여왕들의 시대

1935년 6월 영국 런던에 있는 에메랄드 커나드의 저택에서 성대한 오찬회가 열렸다. 이 자리엔 원저공 데이비드 왕세자(에드워드 8세)와 '심프슨 부인'으로 널리 알려진 윌리스 심프슨(어니스트 심프슨의 아내), 훗날 영국 총리가 되는 윈스턴 처칠, 그리고 히틀러가 영국에 파견한 요아힘 폰 리벤트로프 특사 등 당대의 명사들이 함께했다.

왕세자는 이듬해 부친 조지 5세의 승하로 왕위를 물려받았으나 이혼 경력 이 두 번이나 있는 미국인 윌리스 심프슨과 결혼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아 결국 재위 11개월 만에 왕좌를 동생(조지 6세)에게 양위했다. 사람들은 화려한 크라운 대신 결혼반지를 선택한 에드워드 8세와 심프슨 부인의 결혼을 일컬어 '세기의 로맨스'라 부른다. 그렇다면 왕세자와 이혼한 유부녀 간의 애절한 사랑에도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에메랄드 커나드는 과연 어떤 인물일까.

그는 당시 영국 최상류층 사교계를 쥐락펴락했던 6명의 '여왕벌' 중 한 명이다. 에메랄드 커나드, 낸시 애스터, 시빌 콜팩스, 로라 메이 코리건, 마거릿 그레빌, 이디스 런던데리 등 6명의 사교계 여왕들은 왕세자 등 로열패밀리와 총리, 장관, 의원, 대사 등 당대의 실력자들과 밀접한 교류를 통해 막후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 오프라인 인물루어자들이다.

영국 문화사학자 시안 에번스가 지은 『여왕벌』은 바로 그들의 이야기를 드라마틱하게 엮은 흥미 만점의 역사 다큐멘터리다. 6명의 여왕벌은 모두 빅토리아 시대의 절정기인 1863년부터



1 원저 공작 부부, 즉 왕위를 포기한 에드워드 8세(오른쪽)와 심프슨 부인이 결혼한 이후의 모습. 2 낸시 애스터(왼쪽)는 여성 최초로 영국 하원 의원이 되어 26년 간 의원 경력을 이어갔다. 3 시빌 콜팩스는 지식인·예술가 등 인맥 수집가이자 성공한 인테리어 디자이너였다. [사진 열린책들]



계급사다리 올라 매력·실력 발휘
각계 명사들과 교류, 영향력 쌓아
'세기의 로맨스'에도 중요 역할
의회 진출, 인권·자선 활동도 두각

1879년 사이에 태어났다. 그들은 1차대전과 2차대전 사이인 전간기(戰間期)에 정계, 왕실, 연극계, 과학계, 예술계 등 다양한 분야의 걸출한 유명 셀럽들과 '그들만의 리그'에서 내밀하게 교류하면서 영국과 유럽 나아가 세계를 들었다 놔다 했다.

데이비드 왕세자와 윌리스 심프슨 곁에는 에메랄드 커나드뿐 아니라 다른 여왕벌들도 모여들었다. 커나드는 왕실의 로맨스를 부추기는 재미를 즐기는 쪽이었다. 국왕이 된 에드워드 8세와 심프슨 부인을 파티에 초대했던 시빌 콜팩스는 그들 연애사 전체를 더

낭만적인 시선으로 보았다. 이디스 런던데리는 왕세자가 이미 이혼 경력이 있는 유부녀와 사귀는 것을 원칙적으로 반대했지만 그녀 역시 윌리스를 만찬에 초대하곤 했다.

여왕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조건 좋은 결혼을 통해 신분 상승의 기회를 얻었고 이를 심분 활용해 권력층 깊숙이 진입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계급사다리를 오르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매력과 실력을 마음껏 발휘했다. 든든한 인맥의 후광을 입고 스스로도 독자적인 유력 인사가 됐다. 사교계의 여왕들은 흥겹고 편안한 분위기의 연회

장처럼 꾸민 저택의 호화로운 응접실과 우아한 거실로 각계의 유명인, 비범한 인재, 미남, 미녀, 부자 등 당대에 두각을 나타내며 활동하는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불러 모아 즐거운 환대를 베풀면서 자신들의 비즈니스를 키웠다.

낸시 애스터와 이디스 런던데리는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랐으나 나중에는 자기 나름의 급진적인 사회적 이상을 키워 나갔다. 토리당의 여성 실세 런던데리는 최초의 노동당 출신 총리 램지 맥도널드와 서로 집을 방문하는 막역한 사이가 됐다.

마거릿 그레빌은 히틀러나 그의 돌격대원인 '브라운셔츠'에 대한 호기심과 애초에 잘못된 팬심 때문에 복잡한 국제 정치판에 얽혀기도 했다. 코리건은 2차 대전 당시 나치 점령지의 파리에 남아 술한 위험을 감수하면서 상당 금액의 재산을 헌납해 자선 활동을 지원하는 등 모두의 예상을 깬 용감한 행보를 보여 줬다. 그레빌은 영악한 여성 사업가이자 영국 최고의 부자로 등극했으며 애스터는 여성에게 참정권이 허용되면서 의회 의원에 출마해 당선됐다. 애스터와 런던데리는 18세 미만 주류 판매 금지법 등 여성 권의 보호를 위한 법안 도입에 힘썼고 국가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전문 산파를 제공해 산모와 영아 사망률을 낮추는 데도 기여했다.

한마디로 6명의 여왕벌은 격이 다른 파티를 주관할 줄 아는 전문가들이었다. 이 책은 100년 전 아득한 이야기를 담기는 했지만 지금 읽어도 전율이 흐른다. 장대한 OTT 드라마 시리즈를 방불케 한다. **한경환 기자**



여왕벌
시안 에번스 지음
정미현 옮김
열린책들

습관에서 벗어나야 중년의 위기도 탈출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감이 바닥을 치는 정확한 나이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 미국, 영국, 캐나다, 스웨덴에서는 40대 중반이고 인도, 프랑스, 독일, 아르헨티나에서는 50대 중반이다. 이러한 '중년의 위기'는 여성과 남성, 국가와 직업을 불문하고 나타나며 70개국 이상에서 확인됐다.

『넛지』로 유명한 행동경제학자 캐스 선스타인이 인지신경과학자 탈리 샤프트와 함께 펴낸 신간 『룩 어게인』은 그 원인을 변화에서 찾는다. 변화가 멈추면, 즉 학습과 발전이 멈추면 우울증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습관화'에 대한 기존의 통념과 관점을 깬다. 그간 인간의 본성을 활용해 좋은 습관을 만드는 데 큰 관심을 기울여왔다면, 이제는 익숙함에서 벗어나 풍요로운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탈습관화'에 눈을

뜨라는 얘기다. '인생 최고의 날'을 떠올려보자. 어떤 사람은 결혼식 날이나 취업에 합격한 날, 어떤 사람은 아이가 태어나던 날을 꼽는다. 그 멋진 하루를 다시 보낸다면, 아마도 매우 유쾌하고 신나고 행복할 것이다. 그런데 그날이 계속 반복된다면? '인생 최고의 날'이라는 지루한 타임 루프에 갇히게 될 것이다. 경제학자 티보르 스키토프스키는 "즐거움은 욕망이 불안전하고 간헐적으로만 충족될 때 생성된다"고 말한다.

왜 사람들은 그토록 습관의 함정에 빠질까. 나약하거나 소중함을 몰라서가 아니다. 습관화는 생존과 결부된다. 뇌가 예전과 다른 것에 우선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갑자기 느끼기 시작한 연기냄새, 눈앞에 불쑥 나타난 사자 등에 더 반응하도록 진화됐다.

저자들이 알려주는 탈습관화는 의외로 간단하다.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물건을 사기보다 여행과 같은 경험을 권한다. 독서도 좋다. 워터 버킷이나 빌 게이츠 모두 유명한 독서광이다. 꼭 무엇을 하지 않아도 된다. 상상력으로도 가능하다. 눈을 감고 당신이 살아가는 인생을 상상하되, 현재 살고 있는 집도 직업도 가족도 모두 없다고 가정해 보라. 다시 눈을 뜨고 그 모든 것이 꿈이었다는 사실 자체가 새삼 감사하게 느껴질 수 있다.

탈습관화는 결핍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육상선수였던 딕 포스베리는 10대 시절에 자신이 낙오자라고 느꼈다. 높이뛰기 선수로 뛰려면 최소 1.5m를 넘어야 하는데, 이 기준을 통과하기 어려웠다. 그는 경로를 바꾸었다. 직선으로 뛰지 않고, J자 모양의 경로를 따라

달려간 다음 배를 하늘로 향하는 자세로 뛰어올랐다. 처음에 사람들은 그가 뛰는 방식이 터무니없다고 했다. 하지만 마지막에 웃은 사람은 포스베리였다. 그는 19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땀다. 그가 만일 전통적인 방식의 높이뛰기를 잘했다면 그 방식의 기술을 의심하지 않았을지 모른다. 탈습관화는 창의력을 높여준다.

저자들은 습관이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그저 루틴처럼 만성화될 때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위협이 되는지를 수많은 연구 결과와 실제 사례들을 엮어 흥미롭게 보여준다. 습관은 만드는 것도, 바꾸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러나 습관화된 일상을 다시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이 책이 전하는 메시지는 가볍지 않다. **배현정 기자**



룩 어게인
캐스 선스타인·탈리 샤프트 지음
이경식 옮김
한국경제신문

교통사고 / 개인파산 전문 신성재 변호사

“ 교통사고 최대보상을 위하여
변호사가 직접 법정에서 끝까지 싸워 드립니다.
저희에게 대충 합의란 없습니다. ”

- 교통사고 최대보상 · 개인상해 / 민사소송
- 개인파산 Chapter 7 / Chapter 13 (Payment Plan)

파산을 통하여 경제적 고통으로부터 해방 되시기 바랍니다. 30년 경력의 파산 전문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 신뢰할 수 있는 소송 전문 변호사 그룹 ★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Fax: 240.775.3004 / E-mail: sjshin.esq@gmail.com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세요.

“여백 있는 영화로 도파민 중독 시대 해독하고 싶었죠”

한국판 ‘청설’ 조선희 감독
대만영화 리메이크, 청춘 로맨스물
“평범해서 더 특별한 순간들 담아”

“8월의 크리스마스” ‘클래식’ 같은 로맨스. 멜로 영화가 사랑받던 시기의 낭만과 순수를 가져오고 싶었죠.”

‘무공해 영화’란 입소문 속에 장기 흥행에 돌입한 ‘청설’(6일 개봉)의 조선희(47) 감독 말이다. 2010년 한국내 개봉한 동명 대만영화(2009)를 15년 만에 리메이크한 청춘 영화다. 수어를 사용하는 20대 남녀 주인공의 순수한 사랑을 한국 배역으로 되살려 10~20대 관객층을 공략했다. 멀티플렉스 CGV 예매 관객 중 20대가 35%, 10·30대가 각각 19%로 뒤를 이었다. 대학 수능시험(14일) 전날인 예비소집일부터 관객 수가 전일 대비 30% 증가하며 ‘수능 수혜작’이 됐다. 흥행 역주행에 힘입어 개봉 21일 만에 72만 관객(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집계)을 동원하며, 원작 관객 수(2018년 재개봉까지 누적 2만3900명)를 30배 이상 뛰어넘었다.

“청량감 가득한 청춘 영화” “대만 원작 못



조선희

지않게 (한국 주연배우) 흥경·노윤서 합이 좋아 섰다”는 등 멀티플렉스 예매 관객의 호평이 줄을 잇는다. 청각장애 수영선수인 동생 가을(김민주)을 뒷바라지하는 여름(노윤서), 언니가 자기 삶을 살기를 바라는 가을, 부모님의 도시락 가게 일을 도우며 여름 자매와 교류하는 용준(흥경)이 극을 이끈다. 조 감독은 “도파민 중독 시대, 여백과 여운이 있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홍길동의 후예’(2009) ‘더 웹툰: 예고살인’(2013) 조감독을 거쳐 장편 데뷔작 ‘하루’(2017)까지 범죄·스릴러를 주로 해온 그는 “로맨스가 액션·스릴러보다 어렵다”며 “그렇기에 복잡한 기교보다 쉬운 언어로 이야기 본연의 매력이 담백하게 드러나도록 신경 썼다”고 설명했다. 캐릭터와 이미지의 결이 닮은 20대 배우들을 캐스팅하고, 수영장·도시락 가게·공원 등의 일상 공간으로 영화를 채웠다. ‘D.P.’(2021, 넷플릭스), ‘악한영웅’(2022, 웨이브), ‘악귀’(2023, SBS) 등 무거운 장르물을 주로 해온 흥경으로부터 반전 캐릭터를 끌어냈다. ‘일타 스캔들’(2023, tvN)과 ‘우리를



20대 청춘 남녀의 풋풋한 수어 로맨스를 그린 영화 ‘청설’(6일 개봉)이 대학 수능시험을 치른 10대와 20·30대 여성 관객을 중심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사진 KC벤처스,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

의 블루스’(2022, tvN)로 눈 도장을 찍은 노윤서, 걸그룹 아이즈원 출신 김민주의 자매 호흡도 자연스럽다.

‘청설’에서 “평범하기에 더 특별해지는 순간들”(조 감독)을 빛어낸 건 수어 연기와 음성의 빈자리를 대신한 사운드다. 주인공들이 말없이 눈을 맞추고 몸짓에 집중하는 순간들이 풋사랑의 설렘을 끌어올린다. 지난달 ‘청설’ 언론시사회에서 노윤서는 “수어는 표정이 70%를 차지한다”며 “촬영 전 2~3개월간 수어 선생님들과 밥도 같이 먹으

면서 실제 동작을 자연스럽게 구사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조 감독은 “촬영 현장에 상주하는 수어 통역사, 농인 선생님들이 녹화해 준 수어 대사를 스태프들과 사전에 공부하다 보니 촬영 10회차쯤엔 수어의 의미와 감정이 느껴졌다”고 전했다.

여름의 매미 소리, 바람이 스치는 소리 등이 음성 대사의 빈자리를 메우며 서정적인 느낌을 선사한다. 비장애인 용준이 귀를 막고 청각 장애를 체험하는 장면, 여름 자매와 함께 클럽에

가 음악을 스피커의 진동으로 느끼는 장면 등에서는 사운드를 억누른 듯한 효과를 통해 관객도 농인의 세상을 엿볼 수 있다.

원작 팬들을 사로잡은 “네가 널 생각 안 하니까, 내가 네 생각만 하게 되잖아”에 더해 명대사도 늘었다. 여름의 청각장애에 대해 용준의 엄마(정혜영)는 “말없는 사람도 말 안 통하는데, 사람만 좋으면 되지”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한다. 동생에게 헌신해온 여름이 “본인을 안 챙기면서 가족들을 챙기는 건 부당스럽다”는 조언을 듣는 장면에선 “K-장녀로서 공감했다”는 관람평도 나온다.

‘청설’은 개봉 4주차인 현재까지 박스오피스 4위권을 지켜왔다. ‘위키드’ ‘글래디에이터2’ 등 할리우드 대작, 청불 스릴러 ‘히든페이스’ 등 신작 공세 속에서 순제작비 45억원의 저예산 영화가 이런 성적을 낸 건 고무적인 일이다. 조 감독은 “판타지 같고 너무 착한 영화라고 하지만, 현실이 절망이니까 오히려 희망을 원할 수 있다”며 “기분 좋은 느낌, 감성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극장을 찾아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나원정기자**

아파트 특공 받으려 ‘가짜 결혼’ ... 유산 상속 위해 ‘가짜 아기’도

독립영화 ‘한 채’·‘딜리버리’ 개봉
신혼부부의 매운맛 생존법 그려
가족·생명보다 물질 중시 세대 지적

‘혼자 딸 키우는 택배기사인데요. 브로커 통해서 소개받은 30대 여자랑 허위 혼인신고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 넣기로 했거든요. 오늘 상대 여자를 처음 소개받았는데 지적장애가 있네요. 이거 어떡하죠?’

20일 개봉한 영화 ‘한 채’(감독 정범-허장)의 주인공 도경(이도진)이 자신의 고민을 온라인 게시판에 익명으로 올리면 이런 내용이 될 법하다. 집 한 채 갖기 힘들고 육아 또한 만만치 않은 시대, 신혼부부의 매운맛 생존법을 다룬 1980년대생 감독들의 독립영화 2편이 나란히 개봉했다.

‘한 채’가 신혼부부 특공을 노린 가짜 커플의 불법 청약을 다뤘다면, 같은 날 개봉한 영화 ‘딜리버리’(감독 장민준) 또한 신문 사회면에 나올 법한



요즘 커플들의 주거 및 육아에 관한 현실을 풍자한 독립영화 ‘한 채’(1)와 ‘딜리버리’(2)가 나란히 개봉했다. (사진 씨네소파, 마노엔터테인먼트)

사연을 담았다. 피임 실패로 낙태하려던 백수 커플 미자(권소현)와 달수(강태우)가 유산 상속을 위해 아이가 필요한 불임 부부 우희(권소현)·귀남(김영민)과 벅속 아기를 불법 거래하는 내용이다.

두 작품 모두 내 집 마련, 물질적 풍요를 지상 목표로 삼는 세대 속에 가족과 생명 가치가 경시되는 우리 시대 현주소를 되짚었다. 서스펜스 가득한 전개(‘한 채’), 허점투성이 캐릭터 코미디(‘딜리버리’) 등 장르적 재미도 놓치

지 않았다. ‘한 채’ 공동 연출을 맡은 정범(37)·허장(40) 감독은 “집 한 채를 소유하는 것이 과연 우리의 안정된 삶을 책임져 줄 수 있을까”란 질문에서 출발해 물리적 집 자체보다 집 한 채를 채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려나갔다.

지적 장애가 있는 30대 여성 고은(이수정)과 아버지 문호(임후성) 부녀는 집을 얻기 위해 홀로 딸을 키우는 젊은 남자 도경과 가족 행세를 한다. 딸 고은을 위해 안정된 보금자리를 원하는

문호와 분양권을 팔아 새출발하려는 도경, 다르면서도 닮은 두 아버지의 사연을 데칼코마니처럼 펼쳐낸다. 주연 배우를 제외하고 일반인 배우를 동원해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 현장감이 생생하다.

대학원(단국대 문화예술대학원) 영화과 동기인 두 감독이 각각 연극 조연출(정범), 영화 프로듀서(허장) 경험을 녹여냈다. 지난해 부산 국제영화제 한국영화의 오늘-비전 부문에 선정돼 LG올레드 비전상·시민평론가상 2관

왕을 차지했다.

‘딜리버리’ 역시 부산 국제영화제 같은 부문에 이어 이달 초 파리 한국영화제 페이샤슈 부문에 초청된 화제작이다. 제목은 배달과 출산이라는 뜻이 있는 영단어 ‘딜리버리(Delivery)’에서 따왔다. 영아 유기 기사를 접한 장민준(35) 감독이 직접 아내와 임신·출산 과정을 겪으며 느낀 바를, 대리모·입양 가족의 엇갈린 입장을 통해 한바탕 소동극으로 풀어냈다.

게임 페인 달수의 전세방에서 ‘짜퐁’ 명품 중고 거래를 하며 별생각 없이 살아온 미자는 뜻밖의 모성애에 눈을 뜬다. 자신이 불임이라 믿어온 ‘금수저’ 우희는 산부인과 의사인 남편 귀남이 감춰온 비밀을 알게 되면서 결혼 생활 전체가 흔들린다. 영화 ‘마돈나’(2015)로 칸 국제영화제 주목할만한 시선 부문에서 갈채를 받은 권소현과 걸그룹 포미닛 출신 권소현, 동명의 두 배우가 정반대 처지의 예비 엄마 역을 맡아 임신·출산 전 과정을 실감나게 소화했다. **나원정기자**

Lee Koo Acupuncture Pain Control Clinic & Herbs

서울 미구 한방병원

원장 이구 (한의학 박사) 저서

-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86에서 출생
- *전 메릴랜드 한의과대학 교수
- *임상경력 50년
- *각종 보험 취급 (교통사고 보험 100%)
- *VA, MD, DC 면허 소지
- *신비한 체질의 세계 (사상의학)
- *만성병의 음식치료와 보양법
- *정설침구혈위대전
- *사암침법해설 (사상의학)

****특진 (사암 오행침과 사상체질의학 전문)**

모든 알러지, 피부병, 각종 통증, 갱년기 장애, 콧병, 불임증, 여드름, 기침, 정력감퇴, 통풍, 위산과다, 허리통증, 피곤증, 탈모증, 조루증, 이명, 변비, 복부가스, 설염, 부인과 허혈, 중풍, 이갈이, 코골이, 머리카락이 빠지는 병, 수전증, 미용침, 치질출혈, 장출혈, 코피, 모든 출혈 치료됨.

703-256-8040 (24시간) 전화예약 바랍니다
11905 New Hampshire Ave., Silver Spring, MD 20904 (White Oak 도서관 옆)

크레딧 카드 환영
TV Travel Channel 서울이구한방병원 방영

김웅용 변호사

미국 이민 전문

성공률 최고
만족도 최고
실력 최고

이제 이민법 전문 김웅용 변호사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시민권 / 영주권

- 가족초청이민
- 취업이민
- 종교이민
- 간호사(RN)
- 투자이민 (EB-5)
- NIW

비 이민비자

- 학생비자 (F-1)
- 단기취업비자 (H-1B)
- 투자비자 (E-2)
- 기타 조기 유학생담 및 신분 변경
- 종교비자 (R)

www.joylawgroup.com
Joy Law Group, PLLC. (Eng/Kor) (구원행방) (한국어 상담)
703-246-9100 |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 3863 Plaza Drive, Fairfax, VA 22030
뉴욕 오피스 646-256-9156(Kor) | 212-739-0843(Eng)
17 State St., Suite 4000 New York, NY 10004

34세 때 교통사고로 생사 갈림길... 책 속에 '살 길' 있었다

올해 11회를 맞은 '교보문고 출판 어워드' 수상자가 지난달 27일 발표됐다. '올해의 작가' 부문에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과 나란히 선정된 작가는 개그맨·배우·사업가로 이름을 알린 고명환(52) 씨다. 그는 에세이 『고전이 답했다 마땅히 살아야 할 삶에 대하여』(라곰)로 이 상을 받았다. 교보문고 측은 "고명환 작가는 독서를 통해 인생을 바꾸고, 이를 독자들에게 진솔하게 나누며 큰 공감을 얻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 책은 출간되자마자 교보·에스24 등에서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고, 11월말 현재 10만부가 팔렸다.

경북 상주가 고향인 고 작가는 단국대 연극영화학과 졸업한 뒤 1997년 MBC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했다. MBC 코미디하우스의 '와룡봉추' 코너로 큰 인기를 얻은 그는 연극·뮤지컬 배우로도 활동했다. 그러다 2005년 고속도로에서 큰 교통사고를 당했고 "사할 안에 죽을 수도 있으니 준비하라"는 통보를 받는다. 기적적으로 살아난 고명환은 닥치는 대로 책을 읽는다. 20년간 3000권이 넘는 책을 독파한 그는 독서를 통해 인생의 의미를 찾았고 이를 기반으로 작가와 사업가의 길을 걸었다.

『고전이 답했다』 등 5개국에 번역 출간 그의 저서 『책 읽고 매출의 신이 되다』와 『이 책은 돈 버는 법에 관한 이야기』는 사업과 독서를 연결한 혁신적인 시도였다. 『나는 어떻게 삶의 해답을 찾는가』와 『고전이 답했다』는 일본·베트남·러시아 등 5개국에 번역 출간됐다. 고 작가의 모든 책은 도서출판 라곰이 만들었다.

고 작가는 매달국수 식당과 갈빗집 등 네 군데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사업 영역을 계속 확장하고 있다. 전국을 돌며 강연과 기업 컨설팅을 통해 "책 속에 길이 있고 답이 있고 돈이 있고 성공이 있다"며 독서론을 설교하고 있다.

고 작가와의 인터뷰 날짜는 수상 소식이 전해지기 전인 11월 13일이었다. 그의 책들에 담긴 핵심 문구들의 의미를 묻고 답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 '직관을 개념 앞에 두라'는 쇼펜하우어가 한 말이다.
이죠.

"맞습니다. 직관은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고, 개념은 모두가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교통사고 나서 중환자실에 끌려가면서 '내가 34살에 죽는데, 벌여놓은 돈 못 쓰고 가는 것보다 왜 34년을 내 뜻대로 못 살았는지 그게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게 그토록 어려웠을까? 개념 때문이었죠. '남들이 하는 것처럼 사는 게 맞아' 하면서 살았거든요. 개그맨이면 유재석 처럼 돼야 해, 이런 식이죠. 개념을 뚫고 나오는 직관이 있어야 합니다. 『데미안』의 '내 안에서 솟아 나오려는 그것, 나는 그것을 살아보려 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책을 읽으면서 깨닫게 됐죠."

MBC서 개그맨 데뷔, 배우로도 활동 20년간 3000권 이상 읽으며 작가로 교보 '올해의 작가' 한강과 나란히

- '핸드폰은 새까맣게 탄 고기다'라고 하셨는데요.
"고기는 맛도 영양도 좋지만 까맣게 탄 고기에서는 발암물질이 나오잖아요. 핸드폰도 편리하고 좋은 기능이 많지만 지나치게 몰입하면 새까맣게 탄 고기보다 더 정신건강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광세에 '인간의 모든 불행은 그가 방안에 조용히 머물러 있을 줄 모른다는 사실에서 유래한다'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는 조용히 머물러 있는 5분을 건디지 못해 핸드폰을 찾잖아요."

- '남이라는 글자는 미네모난 통 위에 '나'를 올려 놓은 것이다'라는 문구도 눈길이 갑니다.
"남을 위해서 살면 통 위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내가 더 돋보이고 원하는 곳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죠. 제가 혼자 글을 쓰는 남해 옥지도 방안에 '남' 글자를 크게 써 붙여 놓고 계속 쳐다보다가 떠올린 생각입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라고 스스로 대견하더라고요.(웃음)"

- '이타주의자는 진정한 이기주의자다'는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요리하는 걸 좋아하는데 내가 먹으려고 요리하는 동안에는 설렘이 없어요. 누군가 초대하고 그를 위해서 요리하는 동안에는 기대와 설렘이 있거든요. 남을 위해서 뭔가 한다는 건 내가 더 행복해지는 과정입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이 진정한 이기주의자, 남 돕는 이기주의자가 될 수 있죠. 『그리스인 조르바』에도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은 남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다'는 대목이 있잖아요."

- '동서남북(book)'이라는 유튜브를 해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올 한해 지하철에서 책 읽는 사람을 딱 세 명 봤어요. 얼마 전 전통시장 야채가게에서 한강 작가님 책을 읽는 분을 봤는데, 진짜 인터뷰를 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책 읽는 사람을 보면 선물을 주고 인터뷰 요청해서 유튜브로 내보내려고요. 방방곡곡 맛집 찾아다니는 TV·유튜브 프로는 많은데 영혼의 양식인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콘텐츠는 거의 없잖아요."

- '우리의 불행은 욕망과 능력의 불균형에서 온다'는 광세에 나오는 말이죠.
"맞습니다. 내가 능력은 안 되는데 욕망은 한 없이 커지고, 거기서 불균형과 불행이 생깁니다. 그래서 '능력 안에서 욕망하라'고 하는 겁니다. 제 매달국수 식당이 대박 나고 TV에 잇따라 소개되면서 마음만 먹었다면 가맹점을 300개는 낼 수 있었어요. 300억원 벌 수 있었지만 저는 그걸 담을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죠. 큰 돈을 운용할 능력이 없으면 돈은 독이고 칼이 됩

니다. 저는 지금 행복하게 일하면서 300억 이상을 담을 그릇을 키우고 있습니다. 300억을 벌면? 멋진 도서관을 짓고 싶어요."

식당 잘 돼 300개 가능했지만 내 그릇 알아 - '결심은 미래로 도망가는 거다'고 쓰셨는데요.
"그래서 나이키가 '저스트 두 잇'(Just do it)을 외친 겁니다. 12월 27일에 '1월 1일부터 담배 끊을 거야' 하면 나흘 뒤로 도망가는 거죠. 다음 주부터 다이어트 하자 결심하는 순간 그날 왕창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결심하지 말고 그냥 생각이 떠오르면 일단 뭐라도 시작하고 보자는 겁니다."

- '낙타의 독서, 사자의 독서, 어린이의 독서를 소개했는데요.
"니체가 인간의 성장 단계를 낙타-사자-어린이로 구분했죠. 저는 이것을 독서의 단계로 정리해 봤어요. 낙타는 그냥 시키는 대로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갑니다. 낙타의 독서는 남들이 읽는 유명한 책, 베스트셀러 위주로 갑니다. 처음엔 다 이렇게 시작하죠. 사자는 자신의 의지대로 사냥을 합니다. 사자의 독서는 내 입맛에 맞는 책, 내가 가치를 부여한 책을 읽는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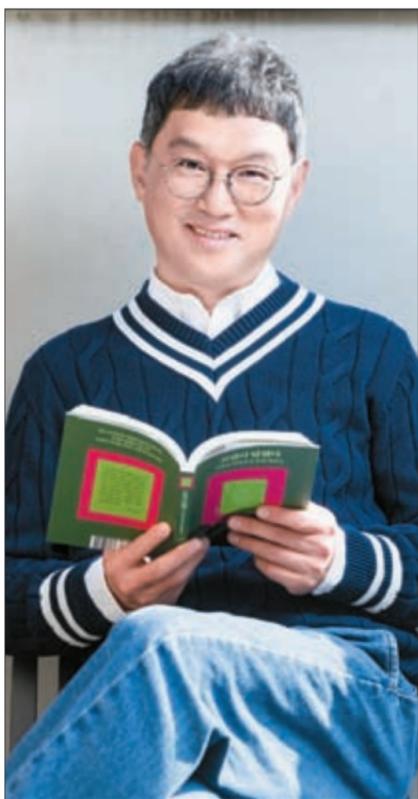
- 그러면 어린이의 독서는 뭔가요.
"사자의 독서에는 '분량'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저도 1년 365권 읽기에 매년 도전했어요. 어느 순간 분량에 대한 욕심이 사라지고 자유로워졌죠. 요즘은 딱 두 줄 읽다가 생각거리가 걸리면 두세 시간 산책하면서 상념에 잠깁니다.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고 지혜를 깨닫게 되지요. 그게 어린이 단계, 기대와 설렘이 있는 독서죠. 예수님이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게 이 맥락이라고 봅니다.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무소유'도 물건에 대한 무소유보다는 집착·질투를 내려놓는 생각의 무소유를 강조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고 작가가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하는 일이 '긍정 확인'을 외치는 거다. 자신이 추구하는 비전과 소망을 살짝 과장스러운 몸짓에 담아 표현하고, 이를 영상으로 찍어 유튜브 '고명환TV'에 올린다. 지난달 29일에 1095일째 영상을 올렸다. 그를 따라 긍정 확인을 하는 사람들도 늘었다.

고 작가는 "원래 1000회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팬들의 요청으로 1만회까지 하기로 했어요. 하루하루 쌓일 때마다 복리(利)의 마법을 실감합니다"라고 했다. 그가 '올해의 작가'로 선정된 것도 긍정 확인의 힘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나는 어떻게 삶의 해답을 찾는가』에서 그는 '읽고, 질문하고, 기다려라.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던 일들이 내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라고 썼다.

"독서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고급스러운 쾌락이다. 특히 고전은 미래의 답안지다." '독서 전도사' 고명환의 말이다.

정영재 문화스포츠에디터



고명환 작가가 10만부를 찍은 『고전이 답했다 마땅히 살아야 할 삶에 대하여』를 들고 편안한 표정을 짓고 있다. 그는 한강 작가와 함께 교보문고 선정 '올해의 작가상'을 수상했다.

최기웅 기자

도 치고 메모도 하고 다시 꺼내서 볼 수도 있는 효용성 면에서 종이책이 제일 좋다는 거다. 그는 "집에 쌓이는 책의 권수와 제가 내는 종합소득세 액수가 정확히 비례합니다"라며 웃었다.

- '동서남북(book)'이라는 유튜브를 해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올 한해 지하철에서 책 읽는 사람을 딱 세 명 봤어요. 얼마 전 전통시장 야채가게에서 한강 작가님 책을 읽는 분을 봤는데, 진짜 인터뷰를 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책 읽는 사람을 보면 선물을 주고 인터뷰 요청해서 유튜브로 내보내려고요. 방방곡곡 맛집 찾아다니는 TV·유튜브 프로는 많은데 영혼의 양식인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콘텐츠는 거의 없잖아요."

- '우리의 불행은 욕망과 능력의 불균형에서 온다'는 광세에 나오는 말이죠.
"맞습니다. 내가 능력은 안 되는데 욕망은 한 없이 커지고, 거기서 불균형과 불행이 생깁니다. 그래서 '능력 안에서 욕망하라'고 하는 겁니다. 제 매달국수 식당이 대박 나고 TV에 잇따라 소개되면서 마음만 먹었다면 가맹점을 300개는 낼 수 있었어요. 300억원 벌 수 있었지만 저는 그걸 담을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죠. 큰 돈을 운용할 능력이 없으면 돈은 독이고 칼이 됩

니다. 저는 지금 행복하게 일하면서 300억 이상을 담을 그릇을 키우고 있습니다. 300억을 벌면? 멋진 도서관을 짓고 싶어요."

식당 잘 돼 300개 가능했지만 내 그릇 알아 - '결심은 미래로 도망가는 거다'고 쓰셨는데요.
"그래서 나이키가 '저스트 두 잇'(Just do it)을 외친 겁니다. 12월 27일에 '1월 1일부터 담배 끊을 거야' 하면 나흘 뒤로 도망가는 거죠. 다음 주부터 다이어트 하자 결심하는 순간 그날 왕창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결심하지 말고 그냥 생각이 떠오르면 일단 뭐라도 시작하고 보자는 겁니다."

- '낙타의 독서, 사자의 독서, 어린이의 독서를 소개했는데요.
"니체가 인간의 성장 단계를 낙타-사자-어린이로 구분했죠. 저는 이것을 독서의 단계로 정리해 봤어요. 낙타는 그냥 시키는 대로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갑니다. 낙타의 독서는 남들이 읽는 유명한 책, 베스트셀러 위주로 갑니다. 처음엔 다 이렇게 시작하죠. 사자는 자신의 의지대로 사냥을 합니다. 사자의 독서는 내 입맛에 맞는 책, 내가 가치를 부여한 책을 읽는 거죠."

- 그러면 어린이의 독서는 뭔가요.
"사자의 독서에는 '분량'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저도 1년 365권 읽기에 매년 도전했어요. 어느 순간 분량에 대한 욕심이 사라지고 자유로워졌죠. 요즘은 딱 두 줄 읽다가 생각거리가 걸리면 두세 시간 산책하면서 상념에 잠깁니다.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고 지혜를 깨닫게 되지요. 그게 어린이 단계, 기대와 설렘이 있는 독서죠. 예수님이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게 이 맥락이라고 봅니다.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무소유'도 물건에 대한 무소유보다는 집착·질투를 내려놓는 생각의 무소유를 강조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고 작가가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하는 일이 '긍정 확인'을 외치는 거다. 자신이 추구하는 비전과 소망을 살짝 과장스러운 몸짓에 담아 표현하고, 이를 영상으로 찍어 유튜브 '고명환TV'에 올린다. 지난달 29일에 1095일째 영상을 올렸다. 그를 따라 긍정 확인을 하는 사람들도 늘었다.

고 작가는 "원래 1000회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팬들의 요청으로 1만회까지 하기로 했어요. 하루하루 쌓일 때마다 복리(利)의 마법을 실감합니다"라고 했다. 그가 '올해의 작가'로 선정된 것도 긍정 확인의 힘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나는 어떻게 삶의 해답을 찾는가』에서 그는 '읽고, 질문하고, 기다려라.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던 일들이 내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라고 썼다.

"독서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고급스러운 쾌락이다. 특히 고전은 미래의 답안지다." '독서 전도사' 고명환의 말이다.

정영재 문화스포츠에디터



고명환 작가가 지난해 경기도 안산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힘찬 제스처를 보이고 있다. [사진 고명환]

막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12월 HOT 리스팅

- 디씨 콘도 렌트, 스튜디오 \$2100 아메리칸 대학, 조지타운 대학, 조지워싱턴 대 차로 10분거리
- 스텔링 2024년 지어진 새 콘도 \$2800 방2+화2 즉시 입주 가능
- 덤프리 타운하우스 \$2,350 방3, 화2.5, 즉시 입주 가능
- 우드브리지 콘도 \$2,800 2005년 지어진 새 콘도 방3+화2, 차고 1 게이트 커뮤니티 넓고, 밝은 깨끗한 집, 즉시 입주 가능
- 타이슨코너에 인접한 타운하우스 비엔나 \$3,300 방3+ 화3.5, 지하실 넓고 작은 뒷마당 겸비, 즉시 입주 가능

독점 리스팅 힘든 세입자나, 밀린 렌트비로 고민중이시면 연락주세요!

비키리 부동산

전화 문자 703-231-5572

DC, MD, VA 브로커 면허 소유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프로듀서, 주택 관리 전문 회사

NVAR Diamond Member
Membership in the Top Producer's Club for 10 years of cumulative success

CONFIDENTIALITY NOTICE: The contents of this email message and any attachments are intended solely for the addressee(s) and may contain confidential and/or privileged information and may be legally protected from disclosure.

앰플러스 부동산 대표 / 막착같은 부동산

버지니아 / 703-863-0321 D.C., 메릴랜드 / 301-399-0140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안과

25년 over 11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7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Glaucoma Laser and Surgery	눈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 각종 보험 적용 됩니다

구인 리셉셔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종언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te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2300 Jane St.
Pittsburgh, PA 15203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못하면 2부 강등 'K축구 룰' ... 명문 팀도 예외없다

2024 K리그1 순위

1 울산	2 강원	3 김천	4 서울	5 수원FC
6 포항	7 제주	8 대전	9 광주	
10 전북	11 대구	12 인천		

2024 K리그2 순위

1 안양	2 충남아산	3 서울이랜드
4 전남	5 부산	6 수원
7 김포	8 부천	
9 천안	10 충북청주	11 안산
12 경남	13 성남	



한국 프로야구 KBO리그는 10개 팀이 팀당 144경기를 치르는 페넨트레이스를 벌인다. 그 다음은 이른바 '가을야구'다. 페넨트레이스 4-5위가 맞붙는 준플레이오프, 그 경기 승자와 3위가 만나는 플레이오프(PO)에서 이긴 팀이 1위가 기다리고 있는 한국시리즈(7전 4선승제)에 진출한다.

올해 K1은 울산 HD, K2는 FC 안양 우승 프로축구 K리그는 '가을축구'가 없다. K리그1(12팀)은 팀당 38경기, K리그2(13팀)는 36경기씩을 치러 승점이 가장 높은 팀이 우승한다. 올해 K리그1은 울산 HD가 우승했다. 시즌 중간 흥명보 감독이 A대표팀으로 갔지만, 후임 김광관 감독이 팀을 잘 추슬러 3년 연속 우승의 위업을 달성했다. K리그2에서는 FC 안양이 처음으로 1위에 올랐다.

프로축구는 시즌이 끝나면 피 말리는 승강제 시스템이 작동한다. K1 최하위 팀은 K2로 강등된다. 지난해 명문 클럽 수원 삼성에 이어 올해는 '생존왕'이라 불리던 인천 유나이티드가 강등됐다. K2 1위는 K1으로 승격한다. 올해 안양이 영광을 안았다.

K1 11위(대구 FC)와 K2 2위(충남 아산)는 홈앤드어웨이로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른다. K1 10위 전북 현대도

K2 3위 서울 이랜드와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만난다. K1 최다 우승(9회)에 빛나는 전북도 승강제의 탓에 걸려버렸다.

승강 PO 첫 경기부터 이변이 일어났다. 지난달 28일 1차전에서 K2 아산이 K1 대구를 4-3으로 꺾었다. 아산은 12월 1일 2차전에서 비기기만 해도 창단 후 처음으로 K1에 올라간다. 반면 대구는 강등의 날벼락을 맞지 않으려면 2차전을 반드시 이겨야 한다.

K1과 K2는 관중 수, 입장권 수입, 후원사와 후원 선수 등에서 큰 차이가 난다. 해당 구단이 있는 지역의 정세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런 까닭에 기업 구단이 아닌 시·도민 축구단의 구단주인 지자체장들은 승강제에 매우 민감하다.

FC 안양 구단주인 최대호 안양시장은 축구에 진심이다. 홈 경기 때는 빠짐없이 경기장을 지킨다. 2022년 수원 삼성과의 승강전에서 경기 막판 결승골을 얻어맞고 승격이 좌절되자 응원단과 함께 평평 울었을 정도다.

최 시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축구는 투자 대비 가성비가 높다. 축구를 통해서 도시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고 시민의 자존감도 커진다. 앞으로는 프로축구 팀이 있는 도시와 없는

도시 사이에 문화적 차이가 생길 것이다"고 말했다.

유럽 축구리그는 대부분 승강제 채택 원래 안양에는 안양 LG라는 연고 팀이 있었는데 2004년 서울로 연고지를 이전해 FC 서울로 이름을 바꿨다. 안양 축구팬들은 큰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다. 이 에너지가 모여 시민구단인 FC 안양이 탄생했다. "언젠가 K1으로 승격해 우리를 버린 팀에 복수하겠다"며 이를 갈았다. 내년부터 안양의 '리벤지 매치'가 현실이 된다.

창단 21년 만에 처음 K2로 강등된 인천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구단주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달 25일 인천시청에서 직접 마이크를 들고 "K1 복귀와 구단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천 유나이티드 비상(飛上)혁신위원회를 가동하겠다"며 구단의 혁신 방안을 설명했다. 운동생리학 분야 권위자인 최대혁 서강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은 혁신위는 선수단 전력 분석과 정밀 진단, 구체적인 선수단 전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단 임시대표로 스포츠마케팅 전문가인 심찬구 전 스포터즌 대표를 영입했다.

문제는 한번 강등되면 좀처럼 다시 승격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K2 강등을 경험한 구단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

로 "K2는 한번 빠지면 헤어 나오기 힘든 늪 같은 곳"이라고 했다. 실제로 정몽규 축구협회가 구단주로 있는 부산 아이파크는 2021년 두 번째 강등 후 4년째 승격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K리그 7회 우승(통산 2위) 기록을 갖고 있는 성남 FC도 지난해 강등됐고, 올 시즌은 최하위로 처졌다.

승강제는 '감독들의 무덤'이기도 하다. 승격과 강등의 위대한 줄타기를 하는 동안 받는 감독의 스트레스는 상상을 초월한다. 그 압박으로 인해 두 명의 전도유망한 지도자가 유명을 달리했다. 2017년 10월, K2에서 경남과 승격 경쟁을 하던 부산 아이파크 조준호 감독이 심장마비로 숨졌다. 2019년 강등 위기에 처한 인천 유나이티드를 맡았던 이상철 감독은 체장암과 싸우면서 팀의 K1 잔류를 이끌었다. 그리고 2년 뒤 세상을 떠났다.

유럽 축구리그는 대부분 승강제를 채택하고 있다. 한국·중국·일본도 승강제를 도입했다. 어떤 이는 승격의 기쁨에 울고, 다른 이는 강등의 아픔을 안고 눈물을 흘린다. 승강제 승부는 냉혹하고 비정하지만, 승강제에서 만들어지는 풍성한 스토리와 프로 구단들의 치열한 경쟁은 리그의 질을 높여 준다.

정영재 기자

야구에는 없는 '감독들의 무덤'
K1 꼴찌 K2 강등, K2 1등은 K1 승격 K1 하위 2팀, K2 상위 2팀과 승강전
K2 떨어지면 승격 힘들어, 지자체도 민감 강등된 인천 UTD, 비상혁신위 가동 'K1 9회 우승' 전북 현대는 승강제 대상

1 안양 우승을 이끈 유병훈 감독. 2 강등팀 최초 득점왕 인천 무고사. 3 승강 PO에 나서는 전북 이승우. [뉴스1, 사진 FC 안양·프로축구연맹]

① 위싱턴 중앙일보 **좋은 아침! 좋은 신문! 중앙일보**

인터넷 마케팅은 **인텔리시스템**에서

기억 못하는 광고에 얼마를 쓰시겠어요?

YouTube

스몰 비즈니스, 유튜브 광고가 압도적인 5가지 이유

인텔리시스템의 3가지 장점

1. 저렴한 비용
2. 편리한 풀서비스
3. 믿을 수 있는 회사 (2002년 부터 지금까지)

1. 건너뛰면 광고비 없다
2. 건너뛰어도 고객이 기억한다
3. 원하는 지역에서만 광고한다
4. 사업체를 눈부시게 차별화한다
5. 하루에 커피 한잔 값이면 한다

지금 전화주세요!
내 사업체의 미래를 바꾸세요~

703-337-0123

www.intelisystems.com

아마존 스토어 마케팅

구글 스마트 쇼핑

구글광고 & SEO

온라인 리뷰관리

문자마케팅

유튜브광고

소셜미디어

웹사이트 제작

온라인 쇼핑물

이메일 마케팅



**창문
WINDOW
SPECIAL**

JGL 건설회사

JGL 건설회사는 VA/MD/DC 컨트랙터 클래스 A 라이선스 및 시공 보험에 가입된 전문 건설회사입니다.

“하청없이 저희 25년 이상 숙련된 자랑스러운 시공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실내공사
INTERIOR**

**실외공사
EXTERIOR**

★ 지붕 ★
스페셜 프로모션
10sq 이상
\$300 할인

★ 창문 ★
스페셜 프로모션
창문 20개 이상
\$500 할인

**3개월
할부
무이자**



마루시공
Hardwood, Carpets



주방 리모델링
Cabinet, Sink, Faucets



욕실 리모델링
Bathroom, Tile



덱 / 사이딩
Deck / Siding



창문
Windows



지붕
싱글, 플랫폼

강풍 / 우박 피해 지붕 보험 상담 환영

믿을 수 있는 자재 시공과 건설능력으로 당당하게 제공할 수 있는 보증기간!

Exterior 문의 : 703.628.5216 / 703.474.3112
Interior 문의 : 703.559.4213

8001 Forbes Place Suite 207
Springfield, VA 22151
Office: 571-213-8678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한국과 미국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력을 갖춘

통증 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해 드립니다!

메디케어 교통사고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진료 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봐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예약환자 에 의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L & 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AIR CLEANER AND HUMIDIFIER
 -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FURNACES & AIR HANDLERS
 - NEW FURNACE INSTALLATION
 - FURNACE REPAIR SERVICE
 -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 AC INSTALLATION
 -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죠?



덕트 클리닝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 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찌든 먼지와 세균 알려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합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iversal

12월 구인광고

전기차 충전 EV 장비 전문회사

모든 전기 수리/구축/공사

LifeTime Energy
VA, MD, PA, DC, WV, DE

전화
240-316-1823

LA mart

구인
LA 마트내 볼티모어지점 스페니쉬 베이커리 임대하실분

문의
410-646-1501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풀타임 & 파트타임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이중언어 우대
▶무경험자 환영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LÖTTE market

락빌 롯데플라자 마켓에서 함께 일하실 전산 아이템 코디네이터를 구합니다.
▶301-417-8678

롯데플라자 마켓 본사 승원우동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구합니다.
* 위치 : 메릴랜드 제섭(Jessup)
1. 승원 물류센터 사무직원 모집
- 업무 : 사무직원 (서류관리 및 인보이스등)
- 시간 : 주 32 ~ 48시간 (주 5일 근무 가능)
2. 승원 물류센터 현장 관리자 모집
- 업무 : 현장 직원 관리 및 입출고 관리
- 시간 : 주 48 ~ 52시간
- 유경험자 우대(물류센터 운영 전반)
접수 방법 : 간단한 이력서 작성 이메일 접수
▶연락처 : han97003@lotteplaza.com 240-750-0016 / 물류센터장

롯데플라자 마켓 본사인 승원에서는 그래픽 & 웹디자인을 구합니다.
■모집부문 : 그래픽 디자이너/웹 디자이너
■근무형태 : Full Time (Mon.~Fri. : 7:30AM - 5:00PM)
■근무지 : 승원 본사 디자인실 (Jessup, MD) chankim@lotteplaza.com
으로 Resume와 포토폴리오 첨부

LÖTTE Plaza 롯데플라자

스털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스털링점(VA)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쉬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주세요!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시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운동을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옵니다"

25년 용자 경력 제인 최 용자

\$비교해 보십시오!

매입용자/재용자
최저이자율 보장
용자비용 \$0 가능

현금인출 용자/2nd 용자
긴급용자(차압 또는 급전),
노인컴 용자, 외국인 용자,
상업용 용자 등
모든 용자 프로그램 취급

703-244-3453 Mortgage4U LLC.
Janec.loan@gmail.com
VA 8200 Greensboro Drive, #900 Mclean, VA 22102
MD 9211 Corporate Blvd., #200, Rockville, MD 20850

구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시니어 보험 에이전트 모집

- ▶안정된 소득과 도와주는 기쁨
- ▶라이선스 소지자 우대/라이선스 교육 가능
- ▶목회자/사모님/교회 종사자 환영

ehyum0530@gmail.com
571-232-5022

구인

ENI DIST, INC 사무직 Columbia, MD 위치

- ◎ 구매부 0명
- ◎ 영업지원팀 0명

ERP/Excel 경험자우대

이력서:eni@enidist.com
문의
301-477-4710

금매 한식+일식 센터빌 VA

- ▶ 연매상 100만+25만
- ▶ 급하게 처리원함
- ▶ 롯데에서 가까운 거리
- ▶ 꼭 사실분만 연락바람

AGENT 환영
443-631-3125
SERIOUS INQUIRIES ONLY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 Lease end
- Machine less used
- Low price
-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메디케어 정문기·정선화 보험

건강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유니티 보험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택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12월 2일 월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료광고내용보내실곳:kdclass2018@gmail.com (계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3

메릴랜드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즐거움건강복지센터에서 주방장, 주방보조, RN 간호사, 리셉션니스트, 액티비티선생님을 구합니다. 볼티모어 메릴랜드지역
410-916-6362

메릴랜드주 로크빌에 있는 병원에서 리셉션니스트와 직원을 구합니다. 영주권 스폰 가능/월요일-금요일 정규직/파트타임/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해야 합니다. 이력서를 LaurenKim@gmail.com으로 보내거나 ▶301-275-2357로 전화하세요.

책임감있고 성실한 직원모집
*College Park지역, MD-경험많은 Handyman-Part Time Office관리자-정육부 관리자*Capitol Heights지역, MD-사무보조:이중언어가능자
*PT 20~35HR:\$17-20/H
jobsmd@outlook.com
문의:(301)333-2209

MD 글렌버니지역 Severna Park 베트남 국수 식당 Full/Part Time Hall Server 구합니다
240-678-5395

Silver Spring, MD에 위치한 종합보험 Agency에서 함께 일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한 유, 무경력자 구함. albert@wkinc.com (Cell) Mr. Kim 301-526-7000

락빌 롯데플라자마켓에서 함께 일하실 전산 아이템 코디네이터를 구합니다.
▶301-417-8678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보조(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P: 301-942-5071

닥터 오피스에서 full or part time 직원 구함. 락빌/콜롬비아 이중언어, 신분에 걸려사유 없으신분 문의 301-580-5777

▶▶요양원에서 일하실분 풀/파트 타임 입주가능. 경력자우대. 엘리콧시티 240-426-5678

MD에 위치한 MGH Adult Medical Daycare Center에서 근무할 RN 간호사를 구함 443-621-2625

▶▶어시스트리빙노인분들 케어 해주실분. 남녀불문 경력자우대. 속식도 가능. 메릴랜드 콜롬비아 410-961-3012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터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간호사(RN) -건강보험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유급휴일과 유급 병가 eamdc@emmanuel.care ▶443-828-7777

▶▶메릴랜드 JESSUP-화장품출세일

(NYX L'OREAL) 세일즈(남)구함/풀타임, 컴퓨터사용가능 성실하고 참신한분. 410-852-1006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식당/델리

▶▶볼티모어 케이스톤스빌 지역 베이글샵에서 주 3-4일 7시-3시까지 도와 주실분 연락주세요 443-797-3938

▶▶메릴랜드 글렌버니 지역 Severna Park (A.A County) 식당 목요일과 토요일 또는 하루 일하실 서버 구합니다. 식당 Open hour 11:00 AM -8:00 PM -초보자도 환영합니다- 240-678-5395

▶▶파사데나 지역 비빔밥 캐리아웃 화, 수, 목, 같이 일 하실분 구함 남녀 전부 환영 (문자요망) 443-991-9331

▶▶엘리콧 시티 Cafe June 에서 풀타임 바리스타로 일하실분 유무경력자 443-310-9247

▶▶엘리콧시티 장수 설령탕에서 새가족을 구합니다 주방/케슈어/경험자 우대 410-750-3333

▶▶볼티모어 지역에서 토보자사시 & Fried Chicken 파트/풀타임 구합니다. 646-220-8184

Gaithersburg, MD 남/여 머리하시는분 ▶301-926-3638 / 301-538-4246

4일 또는 2일, 일 하실 바버 구합니다 메릴랜드 앤드류 공군 기지 근처 애난데일에서 25분 거리 703-975-8008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240-246-4477

세탁소/이미용/기타

▶▶세탁소에서 바지 프레스/카운터 시간조절가능, 볼티모어 Royola 대학근처 410-433-5008 (Store) 410-868-6670 (Cell)

골든 듀 보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 판매. 결혼 예물, 아기 돌반지 팔찌 ▶410-480-2477 (엘리콧시티, MD)

▶▶픽업바느질하실분(파트타임)/엘리콧시티 410-926-3200

운전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요점정리, 예상문제. 한국/타주면허 기타 교통국 업무. -카톡ID: jimdong123 -이메일: allmandong@gmail.com ▶571-294-0057

▶▶렉서스 SUV RX 350, 12만 마일 급매 \$7,000. 상태 최고! 240-796-0093

OK택시공항-장거리 최저요금로 모십니다 ▶240-796-0093

JD STAR 소득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엘리콧시티 자동차 정비소 성실히 일하실분 메케닉, 영주권 가능, 좋은 대우 410-446-9981

자동차 정비사 구함 Columbia MD 지역 443-983-1965

▶▶게이더스버그 MD에서 남/여 머리하시는분 구합니다. 301-926-3638 301-538-4246(Soo)

▶▶MD 아룬델밀 샵센터 근처에 위치한 무궁화메디컬 데이케어에서 풀타임 운전하실분 구합니다. 443-621-2625

싱글/타운/콘도 방렌트

▶▶볼튼스빌 MD (엘리콧시티에서 18분거리) 단독주택 2층방2/부엌/화장실 1 1/2/택 \$1,700 1층방1/부엌/화장실/샤워/출입문 별도 \$700 443-983-8100

▶▶워튼 도서관 한아름 근처/메트로근처 싱글룸방1/아파트식 뒷문 별도/인터넷/직장인환영 301-655-3248

우드스탁반 지하단독.화장실.침대.출입문별도.금연.MD 443 983 1880

저먼타운 방1 옥실별도, 금연자 깨쓰한 콘도/노인우대 단기 702-622-8853

엘리콧시티-롯데에서 10분 거리/타운 홈 2층방/유포/가구일체/교통편리/남자분 원함 443-631-7866

▶▶엘리콧시티 타운홈 렌트 매릴랜드 10Th Street. 방3개, 화장실/샤워 넓고 잘가꾸진 집. 롯데/한아름 5분거리 443-676-9225

실버스프링 두플렉스방2/부엌1/화장실1/출입문 별도 301-257-7126

▶▶저먼타운 단독주택 리모델링한 지하실 방2개 워크아웃 부엌 화장실 2층방 1 \$700 / 문자요망 240-393-3615

메릴랜드 콜롬비아 싱글룸렌트 방5, 화장실4, 차고2, 좋은환경, 최고 학군 410-599-1800

메릴랜드 대학 가까운 495와 95 만나는 교통 편리한곳. 싱글룸방4, 화2.5 차고 2 301-385-3535 (문자요망)

▶▶조용/교통 편리한 워튼 도서관 한아름 메트로근처 싱글룸방1 아파트식 뒷문 별도 인터넷 직장인

301-655-324
▶▶MD 실버스프링 Calverton 교통편리, 싱글룸, 큰방, 욕실, 유포, 인터넷, 가구, 금연, 301-648-2422

▶▶단독주택 이층 큰방/인터넷/가구 완비/냉장고별도/샤워별도/주차, 29번과 198번 사이 Burtonsville, MD 20866 직장인, 금연자 240-413-2738

▶▶Ellicott City 가까운 Hanover 지역 지하전체 세놓음 240-393-5530

▶▶단독주택 지하방2. 출입문별도, 부엌, 욕실, 거실등, 저먼타운 메릴랜드 (롯데마켓 5분거리) 문자요망 202-985-9191

사업채

글렌버니에 새로 시작하는 리커스토어를 매니지먼트로 자기 사업 하실 분. 문의: 443-262-1813

1. 메릴랜드 자이안트엠티 - Sea Food 매매 \$195,000/주매상: \$9,500/렌트: \$3,750 All(6일근무) 부부 가능. 좋은장점 있음. 571-242-3736

컨비니언 스토어/매입 - 그로서리 매입 / 현장 매입 결정 - 결정 당일 현금지불*이메일, 문자 환영 6313125na@gmail.com/443-631-3125

버지니아 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애난데일 회계사 사무실에서 파트/풀타임 직원 구합니다. 이력서 k54672@gmail.com

▶▶1. 세라미스트 첫 3개월 연봉 12만 2. CAD/CAM 경력자 첫 3개월 연봉 6만 703-597-0955 (문자요망)

▶▶“Annandale, VA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분 모십니다. Full & Part time / 경력자우대. 무경력자도 환영. / Benefit 있음(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등등)/영주권스폰서가능 Email : wjkim0111@gmail.com

케어피플 홀헬스 Billing Coordinator (센터빌) 한국어, 영어 가능하신분 이력서: carepeopleinfo@gmail.com

▶▶1. LED Light 세일즈 2. Electrician 배우실분. 202-993-8870 (문자요망)

▶▶LORTON 헤어제품수입출세일창고에서오전:고객오더접수오후:노던버지니아지역및메트로지역담당관리. 영어/불어우대 이력서 jhntiva@hotmail.com 703-864-6641 John Lee 문자요망

김서규공인회계사사무실에서 회계업무하실분 구합니다 영주권스폰서가능합니다 경력자우대 합니다.

Resume : skim@skimcpa.com
ENI DIST, INC 사무직 Columbia, MD 위치 *구매부 0명/영업지원팀 0명 -ERP/Excel 유경험자우대 이력서: eni@enidist.com 301-477-4010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 타임/파트 타임/일요일 판매 경험자 우대 ▶문의: 571-348-3723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풀타임/파트타임/영어/컴퓨터사용 -Annandale 인근 지역 ▶이력서 joshuah123@gmail.com

▶▶Smart Insurance P&C (Property and Casualty) specialist 모집 -경력자우대(P&C License 소지자)/신입환영 -MS Office 사용가능자 -Benefit: 401K/Health Insurance/PTO/Sick Leave ▶지원: smartacct@solomonus.com 703-639-0882

WBS 직원 모집 사무직, 월-금, 금휴가, 건강보험/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이력서: hr@worldbankcard.net ▶문의: 703-225-5500

Fairfax 풀/파트타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경험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탑여행사 버스타어 가이드 구함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공인 회계사 사무실 (Annandale) 책임감 있고 성실한 직원 채용 경험자 우대. 베네핏 있음. 영주권 스폰서 가능함 Email: acct2014a@gmail.com

Wanted Sales/Marketing. YI design factory, LLC 443-240-5114

첼트리 위치한 한미포스트 물류회사 풀/파트타임 (9am-5pm or 10am-2pm) 운영팀 00명, 패키징/포장팀 00명 학생/한국에서 오신지 얼마 안되신분 ceo@hanmipost.com *스폰가능

ASL Division Manager: 애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수어(ASL) 통역 메니저 구함 -통역사들의 스케줄관리 -정부계약및 vendor 관리 -좋은 인성과 성실함 -100% Medical/Dental/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60,000 이력서: admin@visitlod.com

의료품 관련업체 세일즈 사무직, 스폰서 가능 703-626-3489 / Vp@ytsglobal.com

버지니아 한의과 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마사지사 구합니다. /타이슨스 코너 5분거리/풀타임/파트타임 가능 ▶571-243-4251

센터빌, 첼트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coreptrrehab16gmai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우표수집에 관심이신분 연락 바랍니다!

우표

우표 수집한것 팝니다 오랜동안 수집 해 온 (한국, 미국, 여러나라 우표) 귀하고, 소중한 우표들이 더 좋은 주인을 찾습니다.

301-275-6533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운전면허에 관한 모든 것

VA, 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 필기시험 요점정리, 예상문제
▶ 한국/타주면허 갱신
▶ Real ID 신청
▶ 차량 구입/등록
▶ 기타 교통국 업무

Jim Dong 571-294-0057

구인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임업 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 토지 개간
-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 산책로 및 목초지

540-905-2849 SALES@ALLIANCERLANDMANAGEMENT.COM English 상담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C14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료광고내용보내실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2일 월요일 중앙일보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션니스트
월/화/목/금, 영어가능자
Entry-Level Welcome
▶Resume to:naturadent@gmail.com

▶▶치과임플란트: \$1,000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다양한 종류, 형태의 임플란트
전문 Full Mouth Case-40년 경력
703-569-8000

급구, 센터빌/첼렌지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파트타임
유경력 어시/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슨톤/ 타이슨스)
경력자 우대, Dentrix Plus Full/ Part Time
No exp.require 이종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영어/한국어 가능 경력자 우대
P:703-965-3103
email: admhappy.hr@gmail.com

러브랜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모집분야: 행정직, 간호사(RN, LPN),
Case Coordinator, Day Care Driver
-지원자격: 이종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능,
자격증 소지자
-근무혜택: 건강보험·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 우대함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E-mail: admin1@
lovehandhomehealth.com

식당/식품

▶▶새로 오픈한 치킨집
주방에서 한국 음식 하실분
Warrenton, VA 경력자 우대
703-717-2341

에난데일 치맥에서
Part time Server 구합니다.
571-352-4938
Chimc.va@gmail.com

▶에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Customer Service 직원 구합니다.
경력자 우대합니다.
연락처 703-712-7089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력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력자 우대
매니저: 박성태 부점장
▶703-573-6300

Global Food VA 매장 그로서리 매니저
info@theglobalfood.com
▶703-897-6100

롯데프라자 스타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시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점보 인터내셔널 수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우드브릿지 지구촌마켓 한식코너
파트타임 캐시어 구함(월, 수요일)
410-961-7376

한식 일식당 sushi chef 구합니다
플로리다(마이애미) 지역 속속 완비
561-525-6544

베이글샵에서 일하실 분
파/풀타임(주말포함), 알렉산드리아 스프링
필드 몰에서 5분거리, 문자요망
703-371-1263 / 703-899-5098

알링턴의 Gute Leute 커피샵에서 커피에
대한 열정을 가진 바리스타를 모집합니다.
바리스타가 되고 싶은 분들도 환영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
요. guteleute.usa@gmail.com
703-989-9828 (Text Only)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 주세요. 풀타임, 파트타임
571-991-4172

현돈 H-마트 인 민가네 식당 캐셔 구함
703-638-8878

미국음식 하시는 분 구합니다.
경력자 구함. (Woodbridge, VA)
월 \$6500+Tip (전화+text 부탁합니다)
571-365-8303

▶▶92 치킨과 함께 창업하실분을
찾습니다! 같이 성공하는 길을 갑시다.
703-901-1004

▶▶알렉산드리아 MATSUI 일식당에
서 풀타임 스티맨 구합니다!
703-888-6627 (MR. 노)

▶▶Honest Grill 에서 파트타임
Host/Hostess 구합니다. 영어 필수.
703 - 543 - 2320

아난데일 한식당에서 경력있는 웨이트
레스 / 쿡 하실분 구합니다.
301-938-4075 문자요망

▶▶텍사스도넛센터빌(에커보조구함(아인))
영주권 스폰서 가능
703-462-4349

이미용

제빵 기술자 구합니다. 리치몬드 지역
919-225 4703/jaybae67@gmail.com
후레드릭스버그 버지니아 이발소에서 금, 토
요일 일하실분 구합니다.
703-907-9541

첼렌지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스킨케어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 메세지 다 가능
(571)215-6767

첼렌지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스킨케어를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 메세지 다 가능
571-215-6767

에난데일 미용실에서 리셉션리스트
구함(일요일 근무가능 하신분)

703-750-2424/ 703-717-8256

▶▶이발소를 \$8만불 판매/하노버 매릴
랜드 엘리컷시티에서 20분거리 Arundel
공장 근처/최근 맥도날드, 스타벅스, 도미
노가 있는 분주한 쇼핑센터를 개조/ 저렴한
임대/30년 동안 같은 위치
301-672-1326 (켄)

세탁/엘터레이션

▶▶로튼 세탁소 파트/풀타임 카운터
보실분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03-599-5331

알렉산드리아 픽업/카운터, 배킹 하실
분/파/풀타임(문자요망)
703 608 5183

▶▶세탁소공장에서 카운터, 배킹, 프레스,
빨래/파트타임 또는 풀타임 / 우드브릿지 지역
571-455-3609

픽업 스토어에서 필요물품가게 크로즈로
판매. (컴퓨터, 엘터레이션 장비등 일체)
571-224-7777

DC 세탁소 픽업하실분 풀타임 메트로 3분
몽골분 환영
301-221-2463

알렉산드리아 지역 세탁소 픽업소 등에서 파
트타임 하실분. 연락처.
703-300-4959

세탁소 수선하실 분 구함
페어팩스 가버먼트 파크웨이
703-568-3574

바느질 하실 분 구함. 알렉산드리아 지역
703-328-3064

픽업 풀타임 카운터 구함. 우드브릿지 지역
571-455-3609

자동차/정비/바디샵

2006 Toyota Sienna
20만6천마일, 703-825-0852(문자)

포드 광통밴 냉장형, 18만, 12년,
굿 컨디션. \$8,500.
240-796-0093

▶▶자동차 정비 매케너 구함.
Alexandria, VA (문자요망)
703-887-5355

첼렌지 자동차 정비소에서 성실히 일하실 분
모집합니다. 메케닉, 준메케닉, 헬퍼 구함.
703-266-1983

Chantilly va. (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 따라 우대함. 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에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게 맡아 하실분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
571-376-7878

플러밍/냉난방

L&B Universal, Inc. (냉·난방/덕트

클린)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 703-678-1749

Office 청소하실 분 구합니다.
경험있는 Area Manager, 매나스 (VA)
▶301-537-3800

No.1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571-591-4455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초빙 부서: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자격: 라이선스 보유 J-1 (교환교수, 인턴),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기타/구인/청소

▶▶가사도우실분을 찾습니다
: 음식 잘하시는 분
맥크린 (VA) 지역 가정집
주 5일 혹은 3일: 12시-19:30분
240-994-8456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풀타임 내니를 구합니다!
703-822-7810

▶▶VA 스프링필드/페어팩스 지역.
밤청소 하실분
703 980 1917

버크 태권도 사범 구합니다 풀타임 \$50,000
tony@incouragemartialarts.com
571-243-7027 (문자요망)

홀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력자 우대 이종언어 구사자
이력서: hr@firsthco.com
▶571-549-6789

홀케어 오피스에서 HR, Billing
Scheduling 하실 직원분들을 구합니다.
영어가능자 환영, 영주권 스폰가능합니다.
571-422-7189

페어팩스 노리학교에서 아이들을 사랑하
는 선생님을 구합니다. 이종언어, 교육자
전공자 & 경력있는 분을 구합니다. (풀/파
타임) norischookids@gmail.com
703-881-8349

박스배달요원을 구합니다.
에난데일 운전가능자
571-242-3736

알렉산드리아 치맥치킨 훔말아서해주시분
703-473-6022.

각종류의 영어서류 신청과 등록 및 접수와
해석하면서 도와드려요. 연락처주세요.
703-537-6756 (씨니 한)

필그림유치원 교사 모집
토들러반 풀타임 / 오후 파트타임
571-212-9020

몸이 불편하신 시니어분들 모집합니다.
-최적의 위치·시설 -최고의 식사와 돌봄
703-980-9890

사인 컴퍼니에서 일하실 성실하고
꼼꼼하신분. 유·무 경험자
703-499-0857

건물관리인(월-토), 스폰서가능
영어, 전기, 기계, 목공 모두 가능하신분
240-903-0777

싱글/타운하우스렌트

에난데일에 위치한 저택 렌트합니다.
(알링턴 2마일, DC 7마일). 3층, 7베드룸과
7베스전체 7500+sf의 아름다운 집!
.크레딧 없는 분도 가능! 월 \$7,495.
703-244-3453

▶▶싱글홈 지하 렌트 워아웃 \$2100
방2, 화장실2, 풀키킨, 단독샤워, 와셔,어,
66번가 가까운 페어팩스, 지하출입문 별도
▶703-489-6926

▶▶센터빌 타운하우스 지하 \$1,100
▶▶페어팩스 싱글홈 2층방.
조지메이슨 부근 여학생 환영. \$1000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페어팩스 싱글홈 렌트 \$3,500
▶703-231-5572

페어팩스 콘도 \$1,600
큰방1, Den(Dining Room), End Unit,
집전체 새 나무마루, 새 화장실, Washer &
Dryer 집안에 있습니다. 넓은 남향 Bacony,
밝고 환한 집. 880S.F.(넓은 사이즈).
Costco 가까운 동네.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센터빌 타운홈(차고 두개 짜리) 사고저하는
분 연락주세요.
연락전화: 571-277-7758

1. 페어팩스 타운홈, 방3, 화3.5,
좋은 로케이션, 잘 관리된 집 \$3,700
2. 사우스라이딩 타운홈, 방3, 화2.5,
전체 새 페인트와 바닥 등 Renovation,
Freedom High 학군 \$3,300
571-567-5797

콘도 렌트

▶▶센터빌 롯데근처 콘도 방2, 욕
실 1.5 즉시 입주 가능/깨끗하고 위
치 좋음. \$2,150
301-466-1646/301-529-2175

▶▶SALE 콘도 아파트 2층
방2/마루/전철역/좋은 학군
703-336-3283

▶▶에난데일 콘도 방2 화장실 2.
밝고 넓은 리빙룸, 큰방2, 나무마루.
엘리베이터, \$1,900(물값과 가스비 포함되
어 있음). H-Mart 가까운. 교통편리.
703-477-3114.

▶▶아난데일 H마트 옆, 방/1, 가구완비,
남여 직장인/유פו/\$800
703-350-1986

센터빌 콘도. 방2, 화2, 2층, Loft, Top Floor,
탁트인 부엌, 넓은 리빙룸, H-Mart, Lotte
Mart 가까운, 전용주차장 2대, \$2,200
▶703-477-3114

에난데일 콘도. 방1, 화1, 새 나무마루,
새 부엌, 새 화장실, 새 페인트, New Light
Fixture, 넓은 발코니, 밝은 리빙룸,
계단없는 1층 위치. \$1,500(Water, Gas,
Trash removal 포함됨)
▶703-477-3114

방렌트

Burke H-Mart 10분거리
유포, 취사, 인터넷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직원 모집

워싱턴 중앙일보에서는
진취적인 마인드로 성실히 근무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

사무직/편집/디자이너

- 기본 MS 오피스 프로그램 사용

▶ 자격: 신입 및 경력 (풀/파트 타임)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 제출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 근무 혜택: 회사 내규에 따름

이력서 보내실 곳 (이메일)
kdclass2018@gmail.com

정크 빨리빨리

이제
어떻게
버리자?

“가정, 사업체에 쓰이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각종 딜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정크 빨리빨리

571-723-0446

열린 마음으로 시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자녀들의 휴가, 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천 2분거리)입니다.
- ◆ 1인1실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571-278-8811 / 703-999-3557

중앙생활안내광고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12월 2일 월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료 광고내용보내실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5

\$600 여자분 한함
703-678-7833

애난데일 고급 주택 내의 단독 화장실 딸린 큰 방 렌트. DC 까지 7 마일. 집앞에 버스 스타프 있음
703-244-3453

▶▶페어팩스 웨그망 걸어서 5분 카펫 없음. 마루바닥. 개인방, 화장실, 보안보장 빛 잘 들어오는 모던 스타일 콘도 \$1150/유틸리티 포함 아침 저녁으로 비어있음 /여자분만
571-664-9905

센터빌 유포, 세탁기, 취사가능, 아침부터 저녁 8까지 비어있음. 넓고 햇빛 잘 들고, 깨끗함. 작은방, 큰방 입주가능. 여자분만.
571-664-9905

▶▶센터빌타운하우스/화장실/파킹장딸린집/2층 큰방
917-403-4388

애난데일 예촌근처 반지하방1/화실/샤워/유포, 파킹 즉시 입주가능
703-629-6275

▶▶애난데일 H마트 근처 타운홈 인터넷, 가구/냉장고/욕실별도/직장인/금연자 환영
571-230-7121
301-633-4232

▶▶지하방1/웍아웃/샤워/간단취사가능/여자/커플 환영/페어팩스 머릴필드 지역
571-229-7124

▶▶애난데일 콘도 방1/화1/식사/라이프가능/K마트 근처
703-362-5425
703-772-5622

센터빌 타운하우스 베이스먼트. 출입문 별도, 샤워, 화장실, 인터넷. 유틸리티 포함. 한인마트 2마일. 출퇴근하는 직장인 한분만 원합니다.
703-405-9005

애난데일 한강위방1/화1 즉시 입주가능
703-395-4380

홀디포워 방렌트 주차장 넉넉, 출입문 별도
571-237-3411

▶▶애난데일 아파트/한강위/여자분 원함/큰방+Full Bath+간단취사
571-217-7155

▶▶애난데일 H마트 옆 방1/여자분 환영
703-505-5698

▶▶방 세놓음 맥클린 싱글 하우스 아래층 방 3개 전체 리모델링했음 직장인이나 학생구함 교통이주 좋음 워싱턴 실버타운 걸어서 7분에서 8분거리 타이슨코너 근처
703-307-2473

▶▶교통 편리한 애난데일 단독주택 넓은 지하방 렌트.
703-559-5607

▶▶센터빌 타운하우스 2층 작은 방 여학생 환영. 유포 \$800
▶703-489-6926

▶▶센터빌 방/욕실/화장실 1 세놓음 문자 또는 전화주세요!
703-470-5655

▶▶Annandale 방 렌트: townhouse 밝고 조용한 뒷층방 or walkout basement with a private bathroom, 마루, 유포함, 교통편리함 여자분 원함.
571-345-8879

▶▶애난데일 노바 3분거리. 조지메이슨 대학 5분거리, 반지하 출입문 별도. 즉시 입주가능.
703-598-6087

▶▶애난데일 한강식당위 싱글홈 방 렌트 돌침대/가구/화장실/ 즉시 입주가능
703-395-4380

▶▶조지메이슨 노바 5분거리 반지하 \$900/부엌/화장실/출입문 별도/마루바닥/유틸리티포함/문자요망
703-598-6087

▶▶싱글홈 지하렌트 조지메이슨 근처 워아웃, 방 2, 거실, 화장실, 풀킴, 워셔, 드라이어
703-898-3838

▶▶애난데일 예촌근처 반지하 전체 방1/ 화장실/샤워/욕실 유포, 파킹 즉시 입주가능 문자요망
703-629-6275

▶▶애난데일 예촌 앞 출입문 별도 방1/ 화장실/샤워/욕실 유포, 파킹 즉시 입주가능 문자요망
703-622-2033

애난데일 지역 싱글홈, 방 1개 렌트
▶703-470-5238

1. 애난데일 콘도 렌트 \$1,800 방 1, 화 1 세탁기, 전부 리모델링, 마루, 환한 3층 1,000sqft
2. 옥탑 싱글 \$3,600, 방 5, 화 2.5, 차고 2, 2.5acre 숲속, 아름답고 조용한 게이트 있는 집
3. 센터빌 stonegate, 콘도 렌트 \$2,100 방 2, 화 2, 2층 1100sqft, security gate

▶▶571-239-6054

사무실/점포 렌트
센터빌 던킨 뒤 오피스 콘도 - 렌트 2층 1200sqft \$2,100, 방 1 / 화 1 / 큰 오픈 사무공간
▶▶571-239-6054

애난데일 지역 오피스 렌트 오피스 전체 4Room \$1,600 1사무실 \$500 (전기, Wifi 포함)
703-209-5150 (Message 문자주세요)

부동산 매매

사업체 매매

콘도 렌트 \$1,900 Springfield 애난데일 10분 거리. 방 2, 화장실 1, 세탁기, 건조기 나무 마루, 깨끗한 화장실, 넓은 리빙룸, 큰 발코니 파킹 3개 층분 리모델링하여 밝고 환한 집.
▶703-477-3114

1. Coming Soon 애난데일 싱글홈 \$899,900 완전 업그레이드하고 리노베이션 한 단독 주택, 방 4, 화 4, 편리한 램블러 스타일
2. 스프링필드 \$549,900 타운하우스, 방 4, 화 2½, 1,612sf., 교통편리, Walkout Basement, Fenced Backyard, Braddock Rd와 Backlick Rd 만나는 동네

1. 근교 (I-66 Exit 47) 주택 추천 교통 및 생활여건 좋아진 Manassas, 병원, 사립물, 한국 그로서리, 식당 등 근린 생활 기반이 잘 조성되어 있는 지역
2. 싱글 \$520,000-590,000 방 3, 화 2.5, 0.3에이커 대지 단층집, 워kout 베이스먼트
3. 타운하우스 \$440,000 방 3, 화 2.5, 1car 거라지
4. 콘도 Main level \$300,000 방 3, 화 2, 콘도 Fee \$260/월

부동산/사업용 매매
페어팩스 싱글 \$795,000 방 4, 화 3, 전부 리모델링 마루, Twinbrook shopping
▶▶571-239-6054

▶▶엔지 부동산 파고, 사고자 하시는 분 이익 창출위해 함께 고민해 드립니다
571-550-7658

▶▶리커 | 식당 | 카워키 | DC 건물 | 호텔 현재 리타이어를 준비하시는 사장님들! 비즈니스 매매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I. 사업체 매매 상황을 잘 Evaluation 하여 매매 가격을 산정해야 합니다.
II. 정확한 매물 상황과 매매 조건들이 flexible해야 합니다
III. 커머셜 / 비즈니스 매매 부동산 전문가를 고용해야 합니다
20년 경력의 남보다 2배 더 뛰어난 케빈 신과 은퇴를 설계하세요!
703-395-3123

1. 미용실·바버 \$70,000 Manassas Sudley Road 사립물,

1,500스퀘어, 부스 10+3, 저렴한 렌트비
2. B2 상업용 용지 \$2M 2.4에이커, 인근 800세대 신규 주택지 개발 중인 진입로 독점적 위치, 상가 개발 환영
▶703-483-0505

▶▶성업증인 오토 리퍼어 (VA) 연매상-\$850,000. 포텐셜 좋음 매매 -\$38만(실 바이어 Only)
571-242-3736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 요점정리·예상문제/한국·타주 면허/Real ID 신청/차량 구입·등록/기타 교통국 업무
▶571-294-0057 (Jim Dong)

ZOOM-ART - Pen & Water Color - 누구나(성인, 시니어) / 주 1회 90분 수업 -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문의: 703-678-6639

통역 서비스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관광서류 대행, 심부름 대행, 퍼미트 대행, 이민국 인터뷰, 병원, 카운티, DMV, 차없으신분 라이프 가능
703-939-2737

▶▶수학 개인과외 합니다. (면대면 및 Zoom) SAT & ACT 준비 (대학입시 준비반) 및 영재 수학-올림피아드 (중, 고등학교 준비반) 교육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202-320-0431

중 / 고 수학과외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 inyeolchoi@hotmail.com

중고품/기타매매

▶▶우표수집한것입니다. 우표수집하시는분 연락바랍니다. 오랜동안 여러나라의 귀하고, 소중한 우표들 새 주인을 찾습니다.
301-275-6533

▶▶귀국 관계로 가사일체를 헐값이나 무료로 드립니다. 허백련, 청천등 고미술 품과 돌침대 가재 도구 다수그림과 수백권의 책 무료로 드립니다
443 799 2124

▶▶렉서스 SUV RX 350, 12만 마일 급매 \$7,000. 상태 최고!
240-796-0093

무빙세일역 이민 가구 및 생활용품을 정리. 냉동고, 컴퓨터, 옷장, 히터, 서랍장 등...
703-203-5177 (3시 이후 전화요망)

골동품/이조가구/전통 그림, 한국가면 고가 판매가능, 일본 물건도 있음.
240-796-0093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요금로 모십니다
▶240-796-0093

건축/페인트/마루

▶▶구인-리모델링 건축회사에서 같이 일하실 기술자, 헬퍼 직원들 구합니다.
703-499-4494

▶▶리모델링 부엌, 화장실, 에디션, 텍, 팬스, 지붕 제너럴 컨트랙터 MR. 박
703-434-2810

Mr. Lee 페인트 703-508-7214

TOP 건축 콜롬비아 MD - 집수리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 주방, 욕실 / 전기설비, 타일 마루 / 루핑, 카펫, 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문의 전화: 703-910-0400

Park's Floor 경력 20년 이상. 우드, 카펫, 장판 LVT, VCT, Laminate, 무료견적
▶703-395-0050

레드론 페인트/하우스 페인팅(In, Out), 텍 메인 터너스와 클리닝, 샌딩, 파워워시, 핸디맨 서비스
▶문의: Mr. 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자체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손사이드 / 메케닉 크루

703-955-2827 / 540-680-1571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텍, 그외모든공사, 주정부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가입, 카톡 아이디: wani6311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 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240-687-5155

보험

조은혜 종합보험/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 접수 / 자동차 / 주택 / 사업체 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용자

제인 최 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
▶703-244-3453

마이클 장 용자 주택/사업용자/재정상담
▶410-370-4229

▶유나이티드 모기지네이션 - 낮은 이자 / Cash 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 소지
▶202-774-6554

냉동 & 히팅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703-678-1749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트펌프, Carrier, Trane 달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산업용
▶문의: 703-380-2282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 ELECTRIC CONTROLS SPECIALIST / 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장비, 케리아웃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 펌프, 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443-280-1873

정스 냉동(가정용/산업용) (Mr. Chung)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플러밍, 워킹쿨러, 아이스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301-572-2786 / 403-953-0801

보석

▶▶JJ VA 시계, 보석 수리 기술매우면서 일하실분/영어 필수 우대
703-691-1993

골든벨라 보석 (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카펫, 에어덕트 클리닝

토탈가넷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상업용 한번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러파워 시스템삼푸,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제거, 브러쉬, 파워폴청소, 응급수해복구 및 타일 플로워 왁스
▶703-967-4155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온수, 히터 디쉬워셔,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온수, 히터교체, GAS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안밖물세는것

▶703-499-5984

이삿짐

Movers LLC (GOOD HAND) -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 쓰레기 / 폐기물 처리
571-982-9871 (Korean) / 202-802-2858
▶ sales@moversdmv.com

MI 이삿짐 (24/7) 빠른·책임·값이 싼·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mimovingllc@gmail.com

정크 8282 각종 딜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디스 페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 / 사업체에 안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 처리해 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적, 확실한 만족, 귀국 이삿짐 포장이사, 타주 이사(차량운송) 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 자체창고 보관 서비스 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곳, 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 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장이사, 타주, 시내 이사, 자체창고 보관
▶703-550-5550

리모델링/핸디맨/전기

▶▶HBS Energy Inc에서 VA 지역 LED 프로 그램 세일즈 및 전기 헬퍼 하실분 구합니다. 담당자: 301-704-2482 회사: 443-864-5193 Email: hbsenergysolution@gmail.com

▶▶리모델링/부엌/화장실/실내/실외 30년 경력/정직/확실한 시공과 마감! 파인애플 홈 Mr. 박
703-434-2810

핸디맨(애난데일/페어팩스/센터빌)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드립니다. 페인트/플로밍/전등/히팅등 등 교환·수리
▶571-567-5165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571-239-8525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인 가격
▶571-229-4633

H.P.C 집수리 센터 집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퍼어, 핸디맨 서비스 집박-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703-340-5858(VA) / 443-980-5858(MD)

▶▶미국회사 Electric Co. 전기 기술자, 영어 소통 필수 973-997-5805 (엘렌)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가능,
▶703-582-7757

Nest Energy Service, LLC EV 전기자동차 가정용 충전기 설치 및 리베이트 도와드립니다. 전기마스터 면허와 1M 보험 보유 업체
▶703-855-3565

유리

JK 유리 & Window / 상점, 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 Aluminum, Door 설치, MD/VA/DC 지역
▶703-346-5962

샤워도어, 자동문, 식탁유리, 거울장식, 특수유리교체 및 특별 주문제작

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값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조?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트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센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 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목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페인트 전문

목수, 타일, 마루, 욕, 캐비닛 샌딩 보수

핸디맨, 플로밍, 전기, HOA 지적 수리

703.965.3011

라돈 가스 검사/유리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두 번째 주요 원인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가스입니다.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꼭 검사를 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 ↔ 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 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83-208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 귀국, 해외 이사
- 타주, 시내 이사
- 귀국, 타주 차량운송
-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고려통운

-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ICC인가업체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 100% 자체보험으로
 -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 703-550-2424 Fax. 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조양운송

- 신속 안전 신용 저렴
- ▶ 귀국 이사 전문
 - ▶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Movers LLC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Professional all types of moving service)
쓰레기 / 폐기물 처리
(All types of junk removal)

571-982-9871 (Korean) / 202-802-2858
sales@moversdmv.com

MD 업소 안내

냉난방

소독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석

건축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 ◆ 백금 (Platinum)
- ◆ K14, K18, Setting 전문
-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 순금 아기를 받지 팔지
-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 각종 보석 감정 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 지하 내 Ellicott City, MD 21043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각종 집수리 일체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전기공사, 페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 리모델링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애난테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MI 이사짐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금 고가 매입
순금 야기 돌반지 팔찌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밖 물새는것

24Hr
703.499.5984

홈 플러밍/집수리센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플러밍 핸디맨

◆ 수도꼭지 교체 ◆ 루핑수리/거러교체
◆ 싱크/디스포저 ◆ 사이딩 리페어/창문
◆ 워터히터/물새는것 ◆ 데크 수리
◆ 하수막힘/변기교체 ◆ 드라이월/페인트
◆ 셉퍼프 교체 ◆ 파워워시

24 hours 7days Service
571.594.4080
VA 라이선스/보험 13908 Green Trails Ct, Centreville, VA 20121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 일단 전화 주세요! ”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라이어블리티, 워킹스펙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목수, 각종 집수리

Licensed and insured
240-687-5155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통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linds.com / bbgbllinds@gmail.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Vinyl)
● LVT (Luxury Vinyl Tile)
● VCT (Vinyl Commercial Tile)
● 라미네이트 (Laminate)

703-395-0050

임업 멀칭 / 토지, 들판, 잔디, 울타리, 목초지 관리

ALLIANCE LAND MANAGEMENT
FORESTRY MULCHING & LAND SERVICES

핸드폰 540-905-2849
이메일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임업 멀칭이란 무엇입니까?

임업 멀칭은 자란 나무, 덩굴, 초목을 토양에 최소한의 교란을 주면서 잘게 잘라 멀칭하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뿌리 덮개는 원치 않는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업 멀칭

- 토지 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이용자 가능

군인, 응급 구조대원, 간호사, 교사에 대한 할인 요금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광고문의 213-368-2525

L.A

일본식당 구인
*히바찌 셰프 0명

홀트 식물원
유경협자
침식제공
(걸어서 출퇴근 거리)
알라바마 관광지역
(909)625-4577
11602 Ramona Ave.
Chino, CA 91710

Hello Town

미국 생활에 대한
고퀄리티 리얼정보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까지!
All about US Life!

구인

RENT

렌트 부동산

미국 라이프 모든 것

자동차

전문업체

문의 213.368.2525

us.srotech.com

**건식온돌 난방
진짜가 나타났다**

전통온돌의 우수성을
재현한 조립식
구들장입니다.

너무나 쉬운 설치
시공 영상
시청하세요~
us.srotech.com
지사 및 대리점 모집
문의 510-381-0301

애틀랜타

기타 지역

구인

매매

알라스카식당 매매
건강상, 아주오래된식당
연매상 \$80만
대지 14,000sf.
가격 문의바람
(907)545-0152

법무사가 되세요

대면 수업 시작!!!
항상 고소독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
(213) 674 - 7000

총장 법학박사 허워드리

개인 / 비즈니스 / 용자전문

- ▶ GOOD크레딧, BAD 크레딧 상관없이 용자상담환영
- ▶ 비즈니스론, SBA론, 머천트론 전문
- ▶ 개인용자, 카드용자 및 현금화 전문
- ▶ 집 모기지 페이먼트 할드신분
- ▶ 메이저은행에서 용자 거절된분 환영
- ▶ 다스크레딧카드 한도 증액 후 재용자 가능
- ▶ 사업체 운영 / 매매 / 폐업시 용자 가능
- ▶ 역이민 고려하시면 연락요망 (귀국플랜)
- ▶ 나쁜크레딧 리페어 빌드업 전문

중부컨설팅 (213)357-1010, (213)820-3912

잠자리를 갖기 25분 전에,
1캡슐 복용으로 1주일 지속효과
비아그라의 부작용이 전혀 없는 MADE IN USA
천연 비아그라, 즉효성 남성 발기제
발기부전, 전립선 비대증, 배뇨장애
고혈압, 근본 원인 치료제, 비아그라
시알리스 효과 없는 남성 특효 보충
1-213-703-8809, papaaaa.com

함께한 50년, 함께할 50년

www.koreadaily.com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에서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함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o#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9월
햇산삼
세일

5파운드 이상 구입시 홍채인 가격 판매

- 30년 1파운드 \$750 → \$550
- 40년 1파운드 \$1,500 → \$950
- 50년 1파운드 \$2,350 → \$1,500
- 전산삼 40% ~ 50% 파격세일

US Wildlife & Natural Food Inc. (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818)518-0033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치로 발기 능력 쑥쑥
향문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향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치로 뱃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2024 야생 햇산삼을 소비자와 함께 공동 구매합니다.

야생 햇산삼 공동구매

지금지긋한 류마티스 관절염, 요통
모든 통증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한방병원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심마니 가격 450g 한/정/판/매

	소비자 가격	중간 마진	심마니 가격
중(M)	\$3,500	\$1,700	\$1,200
대(L)	\$4,800	\$2,400	\$1,400
특대(XL)	\$5,800	\$2,900	\$1,800

전립선

온열치료기 J2V-N
www.j2v.co.kr

전립선암 예방 및 치료 효과
*30일 전액 환불제 실시

드림바이오메디칼 (714)926-4607 7011 Warner Ave #E Huntington Beach CA 92647

- 가정에서 간편하고 편안하게 경제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 특허청 100대 우수특허대상 (생명공학 부문) 수상
- 경화되고 비대해진 전립선 조직체를 정상상태로 회복시켜 줍니다.
- 야뇨, 잔뇨, 빈뇨 증상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 약물치료로 효과보지 못하신 분
- J2V 전립선치료기는 안전한 물리적 치료방법으로 부작용이 없습니다.

신제품

전립선 온열치료기 새롭게 나왔습니다.
치료기능 향상 | 충전량 표시 | 약정화면 향상

햇살처럼 따뜻한 대한민국
최고의 온열매트 명가(名家)

대한민국 판매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부동의 1위 일월

이월
1월

북미주 일월 총판업체
213.985.4200
www.ilwoulusa.com

겨울은 책임지는 일월!

ilwoulusa.com
방문하셔서 H10 code로
10% 추가 D.C혜택을 보세요.

가성비 끝판왕!

탄소 스타일리쉬
워셔블 온열매트 (원난방)

탄소 원적외선 벨보아원단 기모 극세사 워셔블 온열매트 트윈 \$229 쿤 \$279 \$430 \$540	모터없이 자연순환방식 숯속애 온수매트 싱글 \$325 더블 \$409 \$498 \$615	거실을 온돌처럼 따뜻하게 온돌마루 탄소 카펫 중형 \$350 대형 \$430 \$558 \$692	향균·위생 원단 에어로실버 워셔블 온열매트 싱글 \$179 더블 \$209 \$282 \$332
탄소 원적외선 100% 천연섬유 프리미엄 텐셀 워셔블 온열매트 싱글 \$209 더블 \$259 \$332 \$415	한국 최초 다목적 온열 담요 블랭킷 \$189 → \$159	가성비 최고의 70W 초절전형 온열매트 \$258 → \$165	편리한 쇼파용 미니 온열매트 \$148 → \$95

\$215 \$265
싱글 \$139 | 더블 \$169



먼길, 험한길, 언제나 한결같이 묵묵히 손잡아 주는 **사랑손**이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 간병사 그리고 직원들, 모두가 만족한 회사
러브핸드 홈헬스 & 데이케어에 가족의 돌봄을 맡겨주세요.

은혜안에 한행복, 한소망을 나누는 곳!! 섬김이 무엇인지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메디케이드 (Medicaid) 신청이 필요하세요? 롱텀케어(Long-Term Care) 신청이 힘드세요?

러브핸드 홈헬스의 전문 상담사가
신청부터 성실히 도와드립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간병인이 필요하세요?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는 러브핸드 홈헬스의
간병사분들이 여러분을 섬깁니다.

편법이 없는 간병회사를 찾고 있으세요?

원칙의 신념 러브핸드 홈헬스에 전화하세요.
저희는 원칙과 법을 준수합니다.

사랑의 섬김이 넘치는 러브핸드 시니어데이케어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시니어 데이케어
-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프로그램 구성
- 그리운 맛과 건강을 생각한 집밥으로 아침 및 점심 식사, 그리고 영양 간식 제공
- 의사 방문시 교통편 제공
- 메디케이드 혜택
- 친절한 간호사와 함께하는 수시 건강 체크 및 상담
- 취향에 맞춘 즐거움과 편리함을 주는 각종 시설 완비
- 일반 회원은 소정의 회원비로 센터이용 가능
- 서류 번역 및 작성 등 제반 소셜 서비스 제공

사랑의 돌봄이있는 러브핸드 홈헬스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전문 간병 서비스
- 노인성 치매, 장애우 전문 간병
- 메디케이드 혜택
- 개인 부담 환자 최저 부담 상담
- Skilled Nurse 서비스
- 방문 물리치료 서비스

직원 모집

- * 데이케어 드라이버
- * 회사 성장으로 인해 일할 더 많은 인재를 모집합니다.
- * 문의: admin1@lovehandhomehealth.com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문의 및 상담 703-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찬들리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Chantilly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703) 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뉴포트뉴스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 Newport News
716 Denbigh Blvd., Suite E-1
Newport News, VA 23608
757) 527-4140

고객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World Bankcard Service가 새로운 혁신과 서비스로 찾아왔습니다.



1 새로운 크래딧 카드 기계:
결제 중 끊김과 오랜 결제 시간 등의 불편을 해소합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결제를 보장합니다.

2 새로운 POS 시스템:
효율적이고 신속한 POS 시스템을 도입하여
여러분의 사업을 한 단계 높여드립니다.
간편한 운영으로 비즈니스 성과를 더욱 향상시킵니다.

3 더 낮은 카드 수수료:
부담스러운 고물가 시대!
사장님들을 위해 더 낮은 카드 수수료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World Bankcard Service와 함께라면 더욱 원활하고 효율적인 비즈니스 운영이 가능합니다.
저희와 함께 성공을 이루어가십시오. 더 많은 정보 및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함께하는 비즈니스의 파트너가 되어드립니다.
함께 성장해나가는 여정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EL. 703-225-5500, 1-800-927-5675 | FAX 703-225-5507
10855 FAIRFAX BLVD 3rd FL., FAIRFAX, VA 22030
World Bankcard Service

독점 CENTREVILLE 싱글홈

방 5, 화장실 5, 1/2 5,908SqFt
5.38Acres 에 자리잡은 멋진
캠브릿지 스타일 싱글홈
워싱턴 한인 장로교회 근접

\$1,799,000



Contract

독점 WOODBRIDGE 싱글홈

2 Car Garage, Formal Model House 방5/화3/1/2,
탁트인 강과 숲이 보이는 경치 Walkout Basement.
첫주인이 잘관리한 넓고 밝고 환한집

\$659,900



Contract

독점 FAIRFAX 타운홈

코스트코 근처, 2005년도 2 차고,
방3개, 화장실3 1/2, 3,220sq
잘 관리된 밝고 환한집

\$800,000



Sold

독점 MANASSAS 싱글홈

업데이트된 예쁜 단독주택 방3/화2/1,755sf
New Floor, Updated Bath & Kitchen,
Large Deck & Fence. "NO HOA"

\$540,000



Sold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 · 사실 분 · 경매)



Principal Broker 세리 리
703.244.6526